

# 濟州道 花卉產業振興方案에 관한 研究 (2)

— 流通的 側面을 中心으로 —

姜 景 璿\*

目 次	
I. 序	V. 花卉類의 輸出入動向
II. 花卉의 需給現況	1. 輸出入 概況
1. 生産動向	1) 輸 出
1) 生産構造	2) 輸 入
2) 地域別 種類別 生産動向	2. 國別·品目別 輸出入 實績
2. 需要動向	1) 國別·品目別 輸出
1) 需要構造	2) 國別·品目別 輸入
2) 消費形態	VI. 關係國의 花卉事情
3. 價格動向	1. 日 本
1) 長期變動	2. 泰 國
2) 短期變動	3. 臺 灣
III. 花卉流通市場機構와 性格	4. 싱가포르
1. 流通經路	VII. 產地形成의 方法 (結語)
2. 流通物量	1. 農作物 收入과의 比較
3. 市場現況	2. 特化品目
1) 產地 直·共販場	3. 花卉의 需要豫測
2) 都散賣市場	4. 生産體制 整備對策
3) 小賣市場	5. 販賣對策
IV. 生産·販賣實態	6. 企業家的 經營의 確立
1) 農家實態와 耕地保有形態	7. 몇가지 助成措置
2) 經營技術的 問題	1) 地力形成
3) 資金調達 狀況	2) 技術의 高度化와 研修活動
4) 栽培動機 및 生産者 意向	3) 營農資金의 擴大
5) 產地組織活動 狀況	4) 輸出基盤의 助成
6) 生産費用	5) 產地共販場의 開設
7) 販賣 및 出荷形態	6) 球根·種子等 生産要素 購入의 體系化
8) 月間 販賣實績	7) 濟州寒欄의 保全과 商品化
9) 流通마진	8) 環境素材産業의 育成
10) 流通助成 機能	
11) 商的 流通機能	※ 부 록 (1~6)

\* 濟州大學校 農科大學 農業經濟學科 副教授

## I. 序

濟州地域의 최근 花卉類 생산은 導入期를 지나 產地形成期에 접어들고 있다. 참여 농가는 '85年 현재 300여호에 생산액은 50억원에 이르고 있어 地域의 所得作目으로 定着되고 있다. 花卉類中 특히 盆花의 난류, 切花의 球根類, 花木의 철죽, 동백 등은 本道가 主産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그 重要性이 증대함에 따라 花卉類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연구가 요구되고 있어 본 조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첫째, 切花類를 中心으로 流通實態를 파악하여 그 개선점을 모색하였으며,

둘째, 東南亞 國家를 中心으로 花卉類의 輸出入 動向을 파악하여 수출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셋째, 花卉類 全體의인 產地形成의 方法論을 제시하여 제주지역에서의 화훼농업의 지속적인 발전문제를 검토하였다.

물론 花卉類의 需給現況, 花卉流通市場 機構와 特性, 花卉類 輸出入動向 등도 파악하여 그 실태를 대략 정리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으로는 既存資料 등을 수집·분석하였고 事例調査와 병행하여 면담·관찰 등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전개방향을 모색하였다.

## II. 花卉의 需給現況

### 1. 生産動向

#### (1) 生産構造

채소·과수·화훼 등의 원예경영은 耕種部門에서도 穀作과는 달리 소득탄력성이 높은 부문으로서 生活樣式, 食生活의 向上과 함께 수요가 증대하는 이른바 선택적 확대부문으로 되어 있다. 특히 최근 품질의 개선과 不時栽培技術의 발전에 따라 종래의 계절성 수요를 넘어선 새로운 연간 수요를 개척하고 있는 부문이다. 특히 시설원예 조직이라는 비닐 house, 유리 온실 재배기술의 진보는 축성재배, 억제재배를 통한 경영조직의 기술변화가 농업경영조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代表的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은 施設을 驅使하여 될 수 있는 한 안정되고 수익이 많은 작물재배를 지향

하고 있고 기술과 판매시장이 확보되면 보다 탄력성이 높은 花卉나 花木生産을 指向하기도 한다. 생활정도의 上昇으로 장식용, 贈答用 등에 의한 個人消費도 증대하고 있고 호텔, 음식점, 회사, 기타 관청 등의 公的 需要도 급격하게 신장되고 있다. 그리하여 花卉作經營은 施設園藝의 중요한 作目이 되고 있다 (사실 80년 이후는 농업생산의 선택적 확대, 성장 농산물의 代表的 作目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花卉生産은 商品의 特性에서 食料品用 農産物이 아닌 觀賞用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sup>1)</sup>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최근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1).

( 표 1 ) 花卉生産農家 및 栽培面積

年度	農家戶數(戶)			栽培面積(ha)			house 率(%)	戶當 面積(ha)	戶當生産 額(원) (백만원)	生産額 (백만원)	指 數
	專業	副業	計	露地	하우스	計					
1975	947	1,499	2,446	979	91	1,070	8.5	0.44	27,450,707	6,716	100.0
1976	842	1,603	2,445	1,003	77	1,603	7.1	0.44	2,918,200	7,135	106.3
1977	833	2,065	2,898	1,591	90	2,065	5.4	0.58	4,444,444	12,880	191.8
1978	804	1,357	2,161	1,174	72	1,357	5.8	0.58	5,183,248	11,201	166.8
1979	907	1,274	2,181	1,087	98	1,185	8.3	0.54	5,393,856	11,764	175.2
1980	1,399	1,334	2,733	1,100	180	1,280	14.1	0.47	7,785,218	21,351	317.9
1981	1,683	1,410	3,093	1,014	225	1,239	18.2	0.40	6,455,868	20,010	297.9
1982	2,203	1,552	3,755	1,120	336	1,457	23.1	0.39	8,544,874	32,086	477.8
1983	2,411	1,786	4,197	1,373	459	1,832	25.1	0.44	13,364,910	56,093	835.2
1984	2,583	1,711	4,294	1,540	460	2,000	23.0	0.47	14,242,998	61,156	910.6
1985	2,947	2,418	5,365	1,598	651	2,249	28.9	0.42	13,904,753	74,599	1,110.8
	(311.2)	(161.3)	(219.3)	(163.2)	(715.4)	(210.2)					

註 ( )內 숫자는 1975년을 100으로 한 수임. 하우스 면적에는 유리온실 기타 포함임.  
資料: 農水産部

첫째, 절대재배 농가수의 증가와 함께 재배면적의 증가는 물론 專業農의 比率('75년 專業 38.7%, 副業 61.3% → '85년 專業 54.9%, 副業 45.1%)이 80年代에 들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花卉經營의 특징인 商品生産經營이라는 요인이 지배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施設率(house 率)이 30% 수준에 이룸으로써 기술 및 자본집약적 농업이라는 특

1) 화훼류의 생산 및 공급상의 특성을 보면 ①화훼생산의 지역성 ②자본 노동의 집약성 ③고도의 배기술에 의한 年中出荷 ④수송상 많은 부수작업의 요구 ⑤상품성 유지를 위한 작업의 요구 ⑥ 짧은 판매 기간등을 들 수 있다.

징이 또한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露地中心의 花木類나 草花, 觀賞樹에서 施設栽培中心의 切花나 觀葉植物 등 盆花栽培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類推해 볼 수 있다.

세째, 절대생산액에 있어서도 '75年 6,716百萬元이던 것이 '85年 74,599百萬元으로서 10.1배가 증가되고 있다.

네째, 아직까지는 戶當經營規模가 1,200~1,300坪으로서 경영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sup>2)</sup> 施設化 등으로 集約度を 높이고 있다. 그러나 純收益率は 낮지만 代替作物인 시설 채소보다 收益額이 크다는 점에서 또는 시설물의 증대에 따른 자본집약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他農業에 비하여 반드시 영세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표 2).

(표 2) 施設菜蔬와 花卉의 收益性 比較(100坪當)

品 目	數 量	粗 收 入	生 產 費	純 收 益	純 收 益 率
시 설 딸 기	649 kg	461,616원	461,619원	176,997원	72.7%
시 설 오 이	1,610 kg	656,880	426,051	230,051	35.1
시 설 토 마 토	1,801 kg	840,527	450,638	389,889	46.4
온실 카네이션	76,000本	5,928,000	4,895,333	1,032,667	17.4

資料：1981年, 農振廳·農畜産物標準所得 園藝試驗場(農水産部推定)

(표 3) 年度別 花卉品目別 生産實績

區分 年度	生 産						生 産 額 百萬元
	切 花	盆 花	球 根	花 木	觀 賞 樹	種 子	
1975	390	277	20	529	5,466	34	6,716
1976	556	228	30	636	5,647	39	7,135
1977	737	374	21	1,095	10,648	5	12,880
1978	2,304	411	25	1,115	7,344	3	11,201
1979	2,061	722	37	923	7,872	49	11,764
1980	3,469	3,338	192	1,788	12,471	19	21,351
1981	3,494	1,524	177	1,746	12,996	31	20,010
1982	6,222	7,584	1,173	3,848	12,776	213	32,086
1983	10,439	11,674	1,719	7,360	24,899	2	56,093
1984	11,414	12,440	1,728	7,366	28,205	3	61,156
1985	14,369	14,726	1,656	8,459	35,356	33	74,599
	(19.3)	(19.7)	(2.2)	(11.3)	(47.4)	(0.04)	(100.0)

資料：農水産部

2) 규모별 농가호수 구성비를 보면 ('85年) 300~600坪의 재배농가가 24.5%로 가장 높고 120坪 이하의 재배농가는 전체의 8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300坪 미만은 전체의 34.3%이며, 2,400坪 이상은 전체의 8.1%가 되고 있다.

다섯째, 品目別 生産實績을 보면(표3) '85年 現在 單價가 높은 觀賞樹가 전체의 47.4%로서 가장 높고 盆花 및 切花가 각각 19.7%, 19.3%로 비슷하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81年 이후 球根類의 증가는 花卉類의 수입자유화 조치로 외국으로부터 값싼 種苗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은 자연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좌우되는 편이다. 그런데 花卉生産의 경우에는 探種과 球根生産만 자연조건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切花 및 盆花의 경우는 자연조건보다는 資金·勞動力·市場 등 경제적 조건에 더욱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花卉類의 생산은 大都市를 중심으로 한 근교농업으로 시작되고 발전한다. 이러한 성향에 따라 道別 栽培動向을 보면(표4) 서울 및 경기지구에 전체의 45.8%('85)가 집중되어 하나의 中部生産圈을 형성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산·경남지구에 전체의 17.5%로서 南部生産圈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과 부산이라는 큰 소비시장에 가깝다는 경제적 조건의 우위성이 産地形成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自然的 條件에 따라 商品的 特質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화훼류는 地域競爭力이 크게 지배된다. 여기에 항공수송 등 교통조건의 발달에 따라 立地指向의 水平的 分化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표4) 地域別 業態別 花卉農家와 栽培面積 現況 (1985)

구분 지역별	농가계 (구성 (A) 비율)	전업 (B)	부업 (C)	전업율 B/A%	재배면적 (구성 (D) 비율)	비닐하우스(E)	노지	시설율 E/D, %
서울	647 (12.1)	632	15	97.7	125.0 (5.6)	84.7	40.3	67.8
부산	263 (4.9)	212	51	80.6	66.0 (2.9)	50.4	15.6	76.4
대구	36 (0.7)	22	14	61.1	16.1 (0.7)	4.4	11.7	27.3
인천	131 (2.4)	78	53	59.5	27.6 (1.2)	18.0	9.6	65.2
경기	1,647 (30.7)	1,008	639	61.2	729.2 (32.4)	126.3	602.9	17.3
강원	56 (1.0)	8	48	14.3	14.1 (0.6)	6.4	7.7	45.4
충북	69 (1.3)	18	51	26.1	65.9 (2.9)	2.5	63.4	3.8
충남	368 (6.9)	111	257	30.2	214.9 (9.6)	25.9	189.0	12.1
전북	611 (11.4)	140	471	22.9	300.8 (13.4)	38.5	262.3	12.8
전남	466 (8.7)	176	290	37.8	252.2 (11.2)	55.1	197.1	21.8
경북	80 (1.5)	31	49	38.8	41.4 (1.8)	12.4	29.0	32.4
경남	677 (12.6)	404	273	59.7	297.5 (13.2)	114.2	183.3	38.4
제주	314 (5.9)	107	207	34.1	98.3 (4.4)	41.9	56.4	42.6
계	5,365 (100.0)	2,947	2,418	54.9	2,249 (100.0)			28.9

자료 : 농림수산부

일곱째, (표5)에서 농업경영에 차지하는 花卉生産의 地位를 보면 총농가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花卉栽培農家は '75年 2,446戶(100.0)에서 '84年 4,294戶(175.6)로 증가하였으며 1戶當 花卉生産額도 '75年의 2,745,000원에서 '84年 14,200,000원으로 약 5.2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農家受取價格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農林水産部가 集計한 花卉生産額과 일반농가의 호당 조수익을 비교해 보면(1984) 일반농가 조수익이 5,277,000여원인데 비하여 花卉農家の 生産額은 1,420만으로서 꽤 높은 편이나(2.7배) 그 增加率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반농가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花卉의 경우 절대재배 면적이 '75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났고 시설율도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花卉生産額 增加率이 농업조수입 증가율보다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花卉農家經濟의 質的인 低下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표5) 農業經營에 점유하는 花卉栽培의 地位

	1975	1980	1984
農 家 戶 數 (A)	2,379,058 호	2,155,915	1,973,539
同 上 指 數	100.0	90.6	83.0
花 卉 栽 培 農 家 (B)	2,446 호	2,733	4,294
同 上 指 數	100.0	111.7	175.6
(B) / (A)	0.10	0.13	0.22
花 卉 農 家 1 戶 當 生 産 額	2,745,707 원	7,785,218	14,242,198
同 上 指 數	100.0	283.5	518.7
一 般 農 家 戶 當 農 業 粗 收 入	891,000	2,342,000	5,277,000
同 上 指 數	100.0	262.9	592.3

자료 : 농림수산부 자료에서 작성

(2) 地域別 種類別 生産動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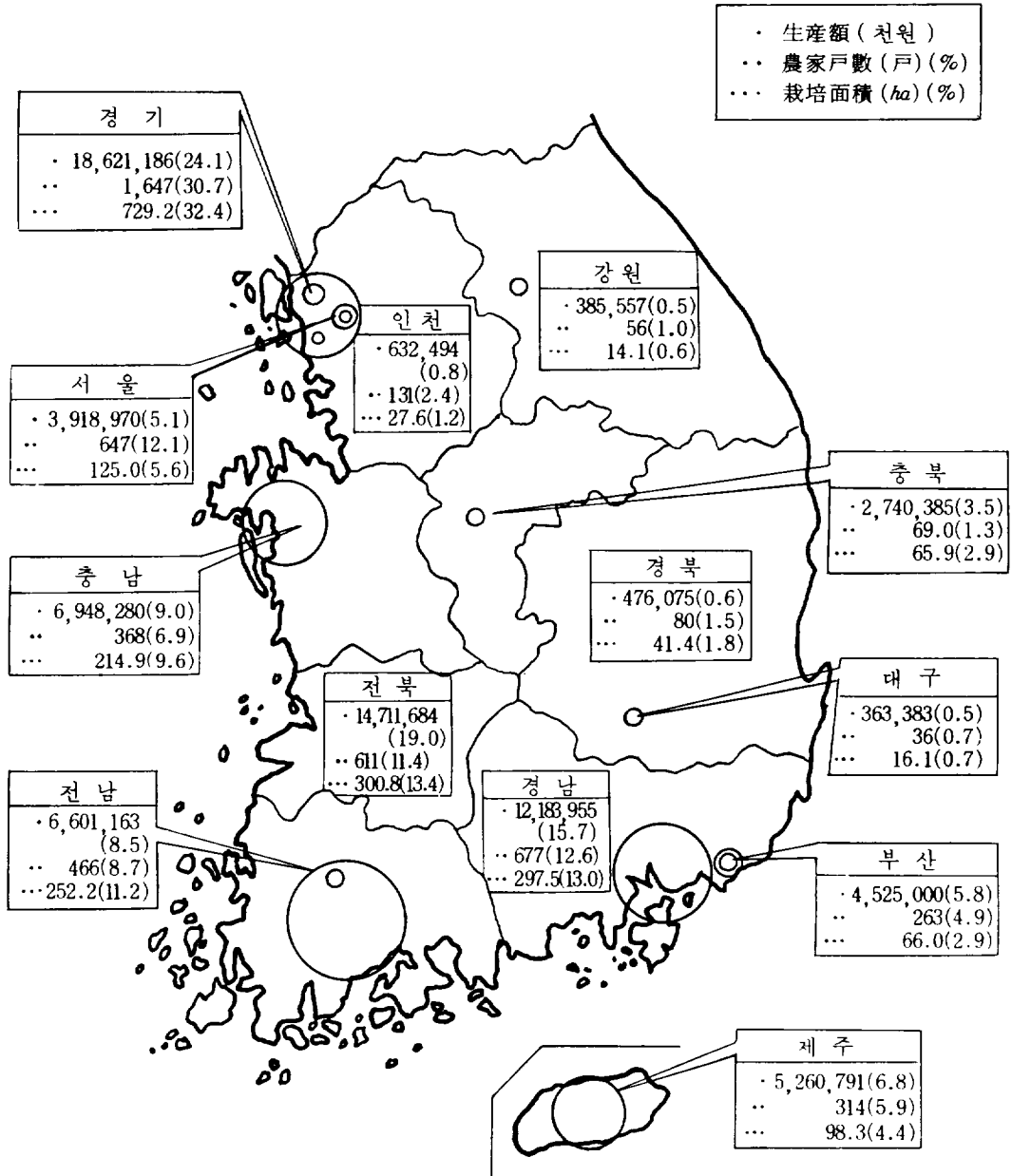
① 地域別 現況

1985年度 花卉農家の 地域別 分布를 (표4 및 그림1)에서 보면 경기도가 30.7%로 가장 높고 경남 12.6%, 서울 12.1%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세 지역에 55.4%가 집중되고 있다(그런데, '83年의 集中度 65.4%에 비하면 낮아진 것으로서 그만큼 地域分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재배면적의 地域別 分布를 보면, 경기도가 32.4%, 전북 13.4%, 경남 13.0% 順으로 되고 있으며(제주는 4.4%임) 生産額의 地域別 分布(표6 및 그림1)는 경기도가

24.1%로서 가장 높고, 전북 19.0%, 경남 15.7%, 전남 8.5% 順을 나타냄으로써 이들 4개지역의 생산액이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제주는 전체의 6.8%임).

〈 그림 1 〉 全國 地域別 花卉生産現況 (1985 年)



(표 6) 地域別 類別 生産額 (1985 年)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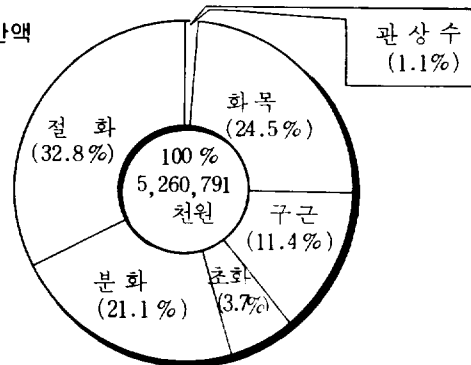
구분 지역	총생산액	%	절화류	%	분화류	%	초화류	%	구근류	%	화목류	%	관상수	%	종자류	%
서울	3,918,970	5.1	163,945	12.0	1,430,398	9.7	364,970	16.1	20,200	0.9	1,479,872	17.5	459,590	1.3	-	-
부산	4,525,000	5.8	1,756,000	12.2	6,692,250	11.5	520,000	23.0	115,280	5.3	97,300	1.2	344,170	1.0	-	-
대구	363,383	0.5	146,710	1.0	97,160	6.6	390	0.02	-	-	4,238	0.05	114,885	0.3	-	-
인천	632,494	0.8	100,645	0.7	64,128	0.4	38,094	1.7	112,500	5.2	19,302	0.2	297,825	0.8	385	1.2
경기	18,621,186	24.1	2,429,710	16.9	6,597,832	44.8	256,189	11.3	346,667	16.0	722,510	8.5	8,269,278	23.4	-	-
강원	386,557	0.5	45,640	0.3	164,276	1.1	86,006	3.8	10,490	0.5	12,835	0.2	66,310	0.2	-	-
충북	2,740,386	3.5	83,445	0.6	291,286	0.2	117,476	5.2	13,120	0.6	169,890	2.0	2,053,168	5.8	12,000	36.4
충남	6,948,280	9.0	286,500	2.0	649,856	4.4	134,660	6.0	19,080	0.9	1,016,802	12.0	4,841,382	13.7	-	-
전북	14,711,684	19.0	978,690	2.6	1,493,298	10.1	227,810	10.1	41,713	1.9	1,529,607	18.1	11,040,566	31.2	-	-
전남	6,601,163	8.5	1,514,940	10.5	883,090	6.0	233,670	10.3	652,783	30.2	1,758,880	20.8	1,547,700	4.3	10,100	30.6
경북	476,075	0.6	152,991	1.1	60,313	0.4	42,601	1.9	500	0.02	36,690	0.4	182,980	0.5	-	-
경남	12,183,955	15.7	5,586,080	38.9	193,807	1.3	47,290	2.1	231,163	10.7	323,602	3.8	5,791,523	16.4	10,500	31.8
제주	5,260,791	6.8	1,724,025	12.0	1,108,175	7.5	193,200	8.5	601,221	27.8	1,287,680	15.2	346,490	1.0	-	-
계	77,369,308	100.0	14,369,321	100.0	14,725,864	100.0	2,261,346	100.0	2,164,717	100.0	8,459,208	100.0	35,355,867	100.0	32,985	100.0

자료 : 농림수산부

② 種類別 動向 - 濟州道の 位置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花卉類 總生産額은 52억 6,079만 1천원으로서 全體의 6.8% 비중을 점하고 있어 경기(24.1%), 전북(19.0%), 경남(15.7%), 충남(9.0%), 전남(8.5%) 다음 順이 되고 있다. 또한 이를 類別로 보면 切花類는 切花類 全體의 12.0%, 盆花類는 7.5%, 球根類는 27.8%, 草花類는 8.5%, 花木類는 15.2%, 觀賞樹는 1.1%의 비중을 점하고 있어 生産額에서 볼 때 切花類, 球根類, 花木類에 特化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生産액을 類別로 나누어 보면 切花類 32.8%, 盆花類 21.1%, 球根類 11.4%, 花木類 24.5%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85년 제주도의 화훼류 생산액





그런데 여기서는 특히 切花類 및 球根類에 중점을 두어 살펴봄으로써 그 花種에 따라 특화의 정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가. 切花類

切花類의 生産額은 '85년 143억6,992만1천원(표6)이며, 이 중 국화 33.2%, 카네이션 20.9%, 장미 12.7%로서 이들 3個品目이 切花類 全體生産額의 66.8%를 점하고 있다. 이를 地域別로 보면 국화가 경남 45.2%, 경기 16.9%, 전남 13.9%로서 이들 지역이 76%를 차지하고 있어 하나의 主産地를 형성하고 있고, 카네이션은 경남 64.3%, 부산 24.8%로서 이들 2개 지역에서 89.1%의 비중을, 장미는 경남 35.2%, 경기 32.2%, 부산 17.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표7).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3大花種이라 할 수 있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의 주산지는 경남, 경기, 부산, 전남지역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최근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球根類에 特化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즉 切花類의 花種別 生産額中 제주지역은 백합에 있어서 전체의 95.9%, 프리지어 84.5%, 극락조화 82.2%, 거베라 74.8%, 글라디올러스 52.7%, 튜울립 31.8%, 스토크 29.7%, 아이리스 26.9%, 안개초 4.1%의 비중을 보임으로써 이들 9개 花種이 特化하고 있다(표7).

(표7) 切花의 類別 生産額 및 栽培面積('85)

(단위 : %)

구 분	생 산 액 구 성 비	재 배 면 적 구 성 비	주 요 산 지		
국 화	33.2	45.3	경남 45.2%	경기 16.9%	전남 13.9%
카 네 이 션	20.9	13.0	경남 64.3%	부산 24.8%	전남 4.8%
장 미	12.7	10.8	경남 35.2%	경기 32.2%	부산 17.5%
백 합	5.5	4.4	제주 95.9%	충남 2.5%	경북 0.7%
글라디올러스	3.6	3.5	제주 52.7%	경기 13.6%	충남 12.1%
안 개 초	6.1	5.2	경남 69.9%	전남 19.0%	제주 4.1%
튜 울 립	1.8	2.5	경기 43.8%	제주 31.8%	전북 15.6%
프 리 지 아	0.9	1.2	제주 84.5%	인천 8.2%	경남 6.1%
아 이 리 스	2.5	1.6	경기 51.5%	제주 26.9%	경남 9.0%
극 락 조 화	0.6	0.4	제주 82.2%	전북 13.8%	인천 4.1%
스 토 크	0.2	0.1	경남 70.3%	제주 29.7%	
거 베 라	0.7	0.4	제주 74.8%	충남 25.2%	
기 타	9.2	11.5	경기 31.1%	부산 22.2%	전남 21.2%
계	100.0	100.0			

자료 : 농림수산부 자료에서 작성

나. 球根類

1985年度 球根類 生産額은 '85년 21억6,471만원(표6)인데 이 중 백합이 44.4%로 가장 많고 다음은 글라디올러스 25.0%, 아이리스 11.7%, 튤립 5.6% 順으로 나타나 이들 生産額은 전체의 86.7%나 되고 있다. 이를 주요산지별로 보면 백합은 제주 44.0%, 글라디올러스는 전남 57.6%, 튤립은 경기 41.4%, 아이리스는 제주 34.6%, 수선은 전남 100.0%, 프리지어는 인천 81.6%, 아마릴리스는 제주 84.7%, 칸나는 전북 100.0%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주는 구근류에 있어서 백합, 튤립, 아마릴리스 등에 特化하고 있다(표8).

(표8) 球根類의 類別 生産額 및 栽培面積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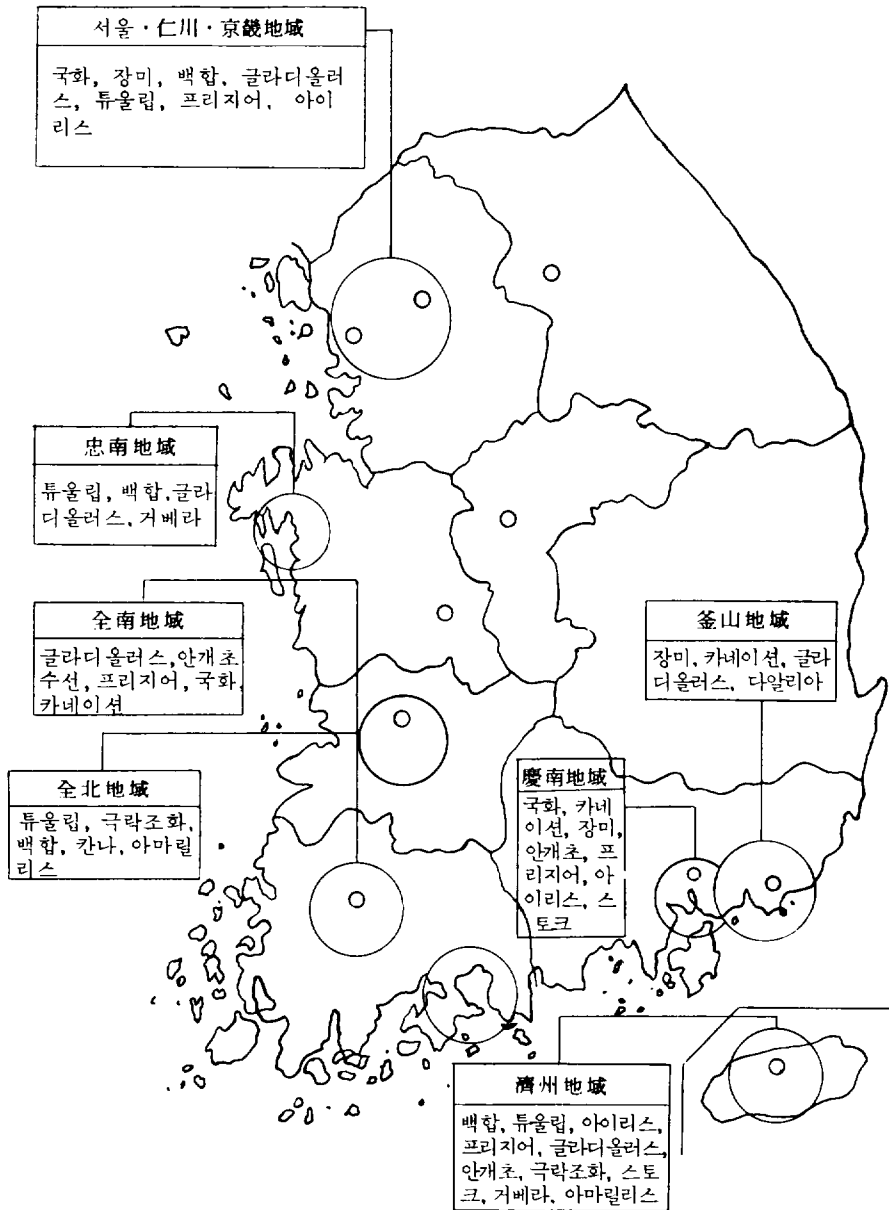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생 산 액 구 성 비	재 배 면 적 구 성 비	주 요 산 지			
백 합	44.4	34.2	제주 44.0	전북 31.1	경기 12.3	
글라디올러스	25.0	19.8	전남 57.6	경남 15.3	부산 7.5	
튤 립	5.6	11.3	경기 41.4	인천 27.2	전북 12.1	
아 이 리 스	11.7	12.0	제주 34.6	경남 27.9	경기 27.9	
수 선	0.6	1.3	전남 100.0			
프 리 지 어	1.3	1.8	인천 81.6	전남 18.3		
아 마 릴 리 스	2.0	1.8	제주 84.7	전남 9.4	전북 5.9	
다 알 리 아	0.2	0.5	부산 100.0			
칸 나	0.1	0.5	전북 100.0			
기 타	9.1	16.8	경기 50.4	제주 11.3	서울 9.4	
계	100.0	100.0				

자료 : 농림수산부 자료에서 작성

이상과 같은 切花類, 球根類의 地域的 特化現象을 그림으로써 표시해 보면 다음(그림 3)과 같다.

〈그림 3〉 切花 및 球根類의 種別 地域別 特花現況 ('85)



2. 需要動向

(1) 需要構造

花卉類의 수요 또는 소비동향을 보면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화훼수요도 역시 거기에 촉발하여 증가되고 있다. 그렇기는 하나 花卉는 말할 것도 없이 生活必需品는 아니어서 所得이

낮아지면 소비자는 구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활필수품의 序列에서 말하자면 최후의 단계에 속하여 觀賞用品 (leisure 用品) 의 部類에 들어가고 있다. 그럼에 따라 所得彈力性이 아주 낮은 商品임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꽃은 비싼 것이라는 인상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嗜好性이 높은 상품이지만 쉽게 대중적 수요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sup>3)</sup> 따라서 高所得層 또는 꽃꽂이나 꽃디자인을 통한 연습용 수요와 호텔, 레스토랑, 요리점 등의 장식용 수요가 큰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sup>4)</sup>

이와 같이 切花 및 盆花는 특수수요 (例컨대 leisure 的인 수요) 와 결부되어 발전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꽃은 아직 가정생활 속에 定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도시 생활, 공업화사회, 인간소외의 생활환경이 진행됨에 따라 꽃에 대한 수요도 綠化産業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요확대가 예상된다.

그런데 수요량은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年代에 들어와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화훼류의 총수요는 57,819 百萬원 (1983) 규모이며 종류별로는 관상수, 盆花, 切花,

(표9) 年度別 花卉需要 現況

單位：百萬圓

年度別 形態別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切花·切葉	295	870	1,213	1,820	1,776	4,785	8,693
盆花	374	411	722	3,338	1,524	7,854	11,674
球根	26	29	106	402	420	1,631	2,398
花木	1,095	1,115	923	1,788	1,746	3,848	7,860
觀樹	10,648	7,344	7,972	12,471	12,996	14,204	26,774
種子	17	40	128	171	194	525	420
其他	-	-	-	156	941	-	-
計	12,455	9,809	11,064	20,146	19,597	32,847	57,819

資料：農水産部の生産, 輸出, 輸入資料에 따라 KREI에서 作成한 것임.

註：國內需要 = (國內生産額 + 輸入額) - 輸出額

- 3) 花卉는 需要面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국민취향에 따라 主消費花種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一例컨대 한국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順이나 대만의 경우는 국화재배면적이 60%를 넘고 있으나 카네이션 栽培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花卉農業을 수출전략화하려면 이와같은 各國의 消費特性에 대한 市場調査와 이에 맞는 花種을 選擇 育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② 花卉需要의 初期段階에서는 일반수요가 정착되지 않고 公共需要나 行事用 需要가 대부분이어서 불안정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소비자의 소비가 증가하여 수요의 안정성을 보게된다. ③다른 농산물에 비하여 그 用途가 多樣하다는 점이다. 一例컨대 보고 즐기는 것뿐 아니라 都市生態系에 존재하는 해로운 gas를 제거하거나 蒸散作用과 幅射를 통한 온도조절 작용도 한다.
- 4) 花卉需要는 최종소비후세에 따라 ①일반소비자에 의한 수요와 ②꽃꽂이 학원등의 연습용 수요 그리고 ③업무용 수요 (호텔, 레스토랑, 회사, 공공기관등의 生花 및 慶弔用 花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현단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업무용 및 꽃꽂이 학원의 연습용 등 대량소비처의 소비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花木順이 되고 있다.<sup>5)</sup>

또한 家口當 消費額을 보면 '77年 平均 1,777 원에서 '80年 2,528 원, '85年 7,657 원으로서 '77年에 비해 4.3 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日本의 家口當 平均消費額과 비교해 보면 '80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2,528 원, 日本은 20,446 원으로서 약 8 배 이상 소비하고 있다. 더욱 世界主要國의 1人當 花卉消費額을 (표10)에서 보면 '81年 현재 한국이 0.9 \$, 네델란드 60 \$, 서독이 55 \$로서 한국에 비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國民生活樣式과 文化 등의 差異에도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國民所得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인당 GNP가 높아지고 社會文化的 要求가 큰 나라일수록 소비량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우리나라는 1인당 GNP에 대한 소비율은 0.06 %로서 극히 낮은 수준임).

(표 10) 國家別 1人當 花卉 消費額 (1981)

(단위 : \$)

國 名	金 額 ( a )	1 人 當 GNP	지 수 ( % )
한 국	0.9	1,607	0.06
네 델 란 드	60.0	11,367 * 2)	0.53
덴 마 아 크	35.0	12,945 * 1)	0.27
일 본	12.5	9,585	0.13
벨지움·룩셈부르크	45.0	12,057 * 2)	0.37
서 독	55.0	11,135	0.49
프 랑 스	33.0	12,068 * 1)	0.27
스 웨 덴	40.0	14,663 * 1)	0.27
스 위 스	39.2	15,557 * 1)	0.25

資料 : 韓國銀行 調查統計 年報 (1983), 經濟企劃院 統計年鑑 (1982).

註 : \* 1) 1980. 1人當 GNP

\* 2) 1980. 1人當 GNP

(a) 원예시험장 화훼 과 자료

한편 화훼류 수출입 문제는 달리 상술하겠지만 '77年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입 실적을 보면, '81년까지는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82년에는 수입액이 수출액을 100만 \$이나 上廻하였고 '83년 156만 \$, '84년 59만 \$, '85년 108만 \$을 상회하고 있어 수입국이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5) 國內에서 생산된 花卉가 全量 去來되었다는 가정하에 국내총생산액에서 수출액을 감하고 수입액을 합산하면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다.

2) 消費形態

소비가구당 切花 1회 平均購入額은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74 원이며 (구입회수는 연평균 174 회이며 꽃꽂이용의 빈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꽃다발, 꽃바구니, 화환구입 빈도는 극히 낮다) 고소득층일수록 1회 구입액이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국민소득증가와 함께 증가할 것임은 물론 切花의 品質改良과 우수상품 생산 출하 등 상품화의 고급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家口當 年間 切花구입액은 평균 5,859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60~90 만원의 소득계층이 8,136 원으로 가장 높고 30 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은 1,390 원으로 가장 낮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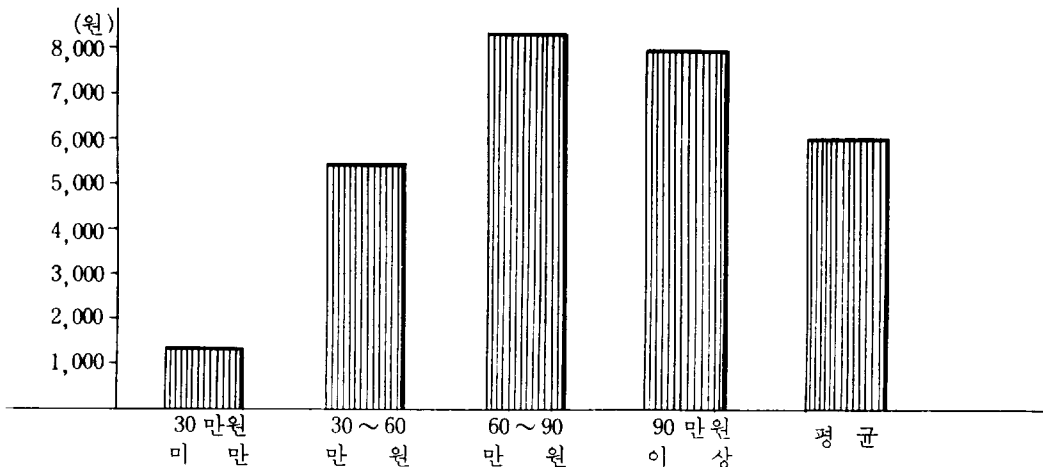
(표 11) 消費家口當 切花 1회 購入額

(단위: 원)

	꽃 송이	꽃 다발	꽃바구니	화 환	평 균
30 만원 미만	934	2,041	-	20,000	1,473
30 ~ 60 만 원	1,797	3,680	8,611	13,258	3,104
60 ~ 90 만 원	2,984	2,715	9,674	30,714	4,246
90 만원 이상	2,199	5,850	18,333	43,333	4,404
평 균	2,021	3,391	9,975	20,224	3,374

자료: 농어촌개발공사, 유통조사월보, 1986.8.

<그림 4> 所得階層別 家口當 年間 切花 購入額



자료: 위와 같음.

소비자의 切花구입형태는 주로 꽃꽂이용 구입율이 3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축하용 꽃다발(24.4%), 경조용 화환(22.8%), 꽃바구니(15.8%)가 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切花類의 品目別 選好度를 보면 가장 좋아하는(선택)꽃은(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화가 22.1%, 장미 21.7%, 카네이션 13.4%, 안개초 11.1%, 백합 10.7%, 튜울립 5.7%, 글라디올라스 2.7%, 아이리스 1.6%, 후리지아 1.5%, 기타 9.5%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가구의 소득계층별 절화류 品目別 選好度는 60만원 미만의 소득층은 장미를 선호하고 60~90만원의 소득층은 국화를, 90만원 이상의 소득층은 카네이션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6)</sup> 이상의 品目を 다음(표13)과 같이 비교해 볼 때 제주도에서 산지형성이 진행되고 있는 백합, 튜울립 등 球根類가 切花의 生産額 中에서 점하는 비중보다 소비자의 選好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그 수요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표12) 所得階層別 切花類 品目別 選好率

(단위: %)

소득계층별 품목별		所得階層別				평 균
		30만원미만	30~60만원	60~90만원	90만원이상	
국	화	19.0	22.8	24.2	22.1	22.1
장	미	23.4	23.7	21.0	18.9	21.7
카	네 이 션	13.1	11.9	14.0	19.1	13.4
안	개 초	5.4	12.2	12.5	7.7	11.1
백	합	10.8	10.9	11.2	7.7	10.7
튜	울 립	1.4	7.1	3.5	5.8	5.7
글	라 디 올 라스	1.4	3.1	2.8	1.9	2.7
아	이 리 스	-	1.7	1.4	1.9	1.6
후	리 지 아	-	1.0	2.1	3.5	1.5
기	타	25.5	3.9	7.3	10.9	9.5
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위와 같음.

6) 농어촌개발공사; 유통조사월보 1986.8, pp.7~8.

(표 13) 切花의 類別 生産額('85) 및 選好率 比較

(단위 : %)

구 분	생산액 구성비	선 호 율
국 화	33.2	22.1
카 네 이 션	20.9	21.7
장 미	12.7	13.4
백 합	5.5	10.7
글 라 디 올 러 스	3.6	2.7
안 개 초	6.1	11.1
튤 율 립	1.8	5.7
프 리 지 아	0.9	1.5
극 락 조 화	0.6	-
스 트 크	0.2	-
거 베 라	0.7	-
아 이 리 스	-	1.6
기 타	9.2	9.5
계	100.0	100.0

### 3. 價格動向

#### (1) 切花市場價格의 長期變動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변동은 長期變動과 短期變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구분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14 및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切花價格의 實質價格指數를 보면 '7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81년에 들어서서 '84년까지 계속 補合勢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趨勢를 所得變化<sup>7)</sup>와 연관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吟味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所得과 需要量과의 관계에서 볼 때 3단계의 모형을 제기해 주고 있다(그림 5, 6).

제 1 단계 : 초기 발전단계로서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단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70年代까지이다. 이 때에는 주로 공공주택, 도로의 미화 등에 필요한 花木, 觀賞樹의 수요가 공공기관의 主導로 증가된다. 그리고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수요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여 가격등락이 심하게 나타난다(표14 및 그림 7 참조).

7)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수요와 공급이 변하게 되면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수요 변동 요인으로서의 所得變化를 모형적으로 연관시켜보고자 한다.



( 표 14 ) 花種別 가격지수 차이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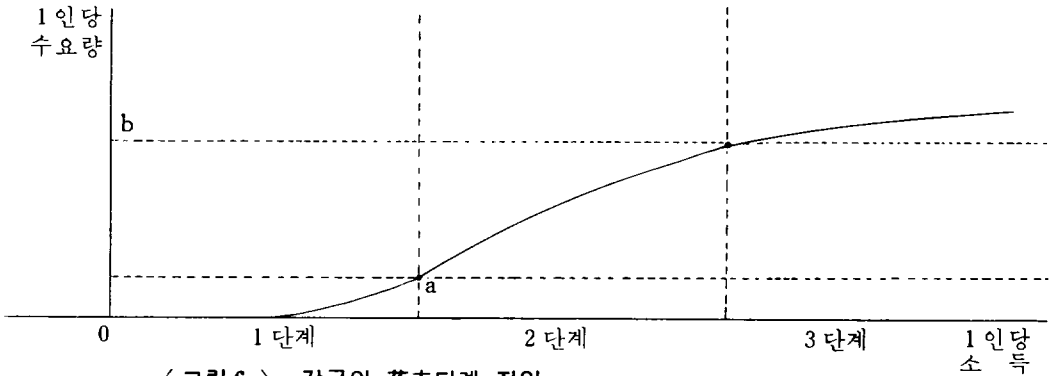
	'71	'73	'75	'77	'79	'80	'81	'82	'83	'84
切 花	109	77.6	46.7	67.3	126.1	81.2	54.6	56.1	64.7	62.9
盆 花	128	109	195	159	205	376	329	329	336	319
觀 賞 樹	372	436	390	355	275	311	219	219	326	311
花 木	290	215	120	115	101	141	209	209	305	260

註 : 1) 가격지수 =  $\frac{\text{생 산 액}}{\text{조정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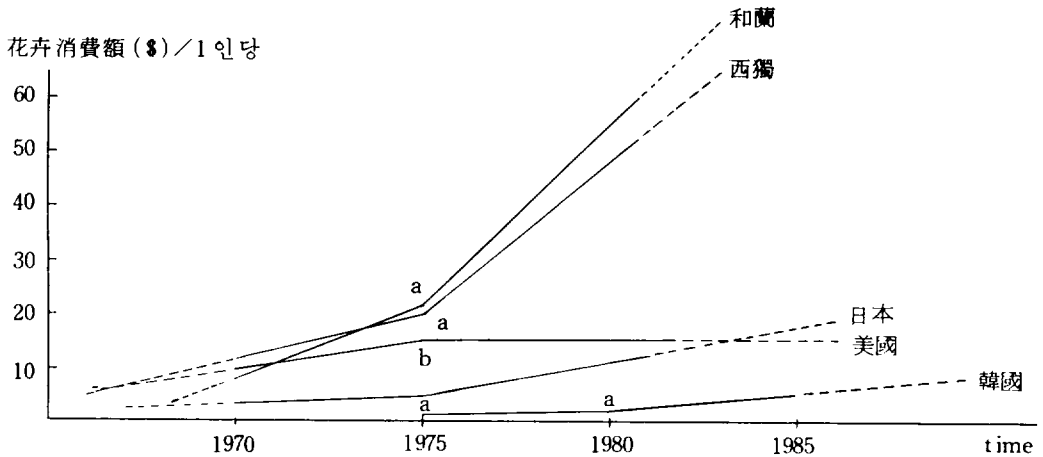
2) '80 년도 불변가격

자료 : 한문규, 화훼수요 및 시장구조분석, 서울대 대학원, 1986.

< 그림 5 > 花卉消費額과 所得과의 關係에 對한 假設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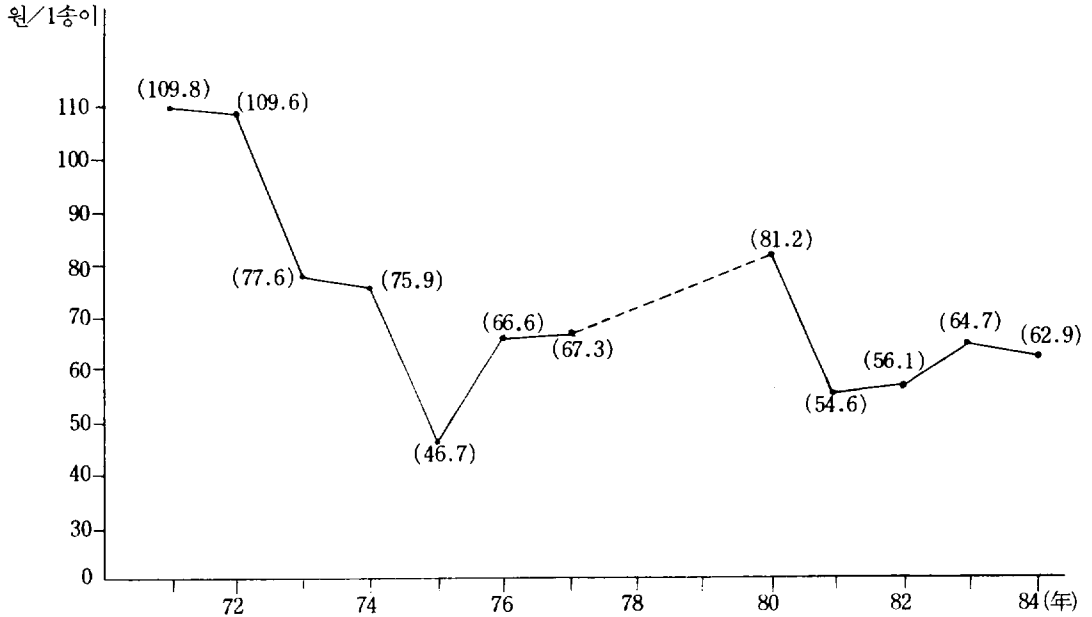


< 그림 6 > 各國의 花卉단계 진입



※ 점 a는 2 단계 진입점, 점 b는 3 단계 진입점

〈그림 7〉 切花 價格의 趨勢



註 : 1) 價格지수 =  $\frac{\text{생 산 액}}{\text{조정생 산액}}$

2) '78, '79는 각각 233.2, 126.1 등 비정상적으로 계측되었음.

3) '80년 불변가격

자료 : 위와 같음.

제 2 단계 : 이 단계는 점진적인 증가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단계로서 화훼소비증가는 소득의 증가속도를 훨씬 앞지르게 된다. 이때는 꽃을 일단 가까이 하게 된 단계이므로 계속 수요를 하려고 하는 기호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수요의 지속성을 보인다. 이렇게 수요가 안정되면 가격도 안정된다. 또한 개인주택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切花 및 盆花의 소비증가가 뚜렷이 이루어진다(실내를 중심으로 한 소비 및 공원조성). 우리나라에서는 '80年代에 이러한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일본의 경우는 '60年代末 이후 '70年代를 거쳐 현재 지속되고 있다).

제 3 단계 :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량의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단계이다(미국의 경우는 소득이 약 7~8000 \$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때는 고급절화 즉, 球根類 切花인 튜올립, 수선, 글라디올라스, 백합 등과 난류, 고급 관상수 소비가 늘게 된다.

(2) 切花市場價格의 短期變動

切花의 長期變動이 需給의 長期的 變動에 따라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切花의 短期變動

도 수급의 단기적 변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기서는 단기변동으로서의 계절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花卉價格이 다른 농산물에 비하여 변동폭이 큰데 그 이유부터 살펴보기로 한다.<sup>8)</sup>

첫째, 花卉類는 일반적으로 生育期間이 길고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신속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 심한 변동을 나타내고 業務用 需要가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가격변동이 크게 나타난다.

둘째, 市場이 大都市에 偏重되어 있고 出荷先이 한정되어 있으며 市場이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需給上 약간의 변화에 의해서도 가격변동이 예민하게 나타난다. 또한 동일한 시장내에서 동일한 품종·품질이라도 판매자와 구매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가격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切花는 꽃의 개화상태, 신선도, 크기, 색깔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날 뿐만 아니라 수명이 한정되어 있어 기간내에 판매되지 않으면 폐기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루 중에도 여러번 변동한다.

다음은 切花類의 季節別 價格變動 推移(1983年度)를 주요 花種 5가지에 대해 살펴본다.

(표 15) 主要 切花類의 月別價格(1983年)

單位: 원

月別		單位	1月	2	3	4	5	6	7	8	9	10	11	12	平均
국화	중·대국류	10송이	2,000	3,700	1,600	1,000	620	470	670	480	620	1,000	1,200	820	1,182
	소국류	10대	1,400	2,100	1,600	650	410	430	380	300	580	760	1,100	750	872
장미	카리나	10송이	1,800	2,200	1,800	1,400	1,300	500	600	400	600	1,300	1,600	1,900	1,283
	산니아	"	2,100	2,700	2,000	1,500	1,300	500	500	400	600	1,300	1,400	2,000	1,358
	마드레보아	"	2,000	2,500	2,000	1,300	1,400	500	600	400	600	1,200	1,400	1,700	1,300
카네이션	백색	20송이	2,500	2,400	1,600	1,200	800	500	800	900	650	1,400	1,300	1,800	1,321
	스케니아	"	2,000	2,300	1,500	1,200	1,400	500	1,000	900	700	900	1,200	1,700	1,275
백합	합	10대	4,500	4,600	4,000	3,800	1,700	900	1,000	1,500	2,000	3,700	4,300	4,300	3,025
	튜올립	10송이	3,000	3,500	2,500	1,400	-	-	-	-	-	-	4,500	3,500	3,067
글라디올러스	합	10대	6,500	7,300	7,000	5,200	3,600	2,000	1,000	1,000	1,300	2,400	3,200	5,000	3,792
	아리스	10송이	2,500	2,300	2,300	2,000	-	-	-	-	-	-	3,400	2,700	2,533
극락조화	합	1대	2,000	1,300	1,000	1,000	800	1,000	1,000	800	1,100	1,100	900	1,300	1,108
	안개	10대	1,700	2,500	2,100	1,200	900	500	500	600	900	1,700	1,500	1,500	1,300
스토크	합	10대	1,600	2,100	1,500	1,500	1,100	700	-	-	1,500	1,500	1,300	1,400	1,420
	베라	10송이	2,700	2,500	2,200	1,800	1,000	1,000	900	1,000	1,700	2,000	2,300	2,500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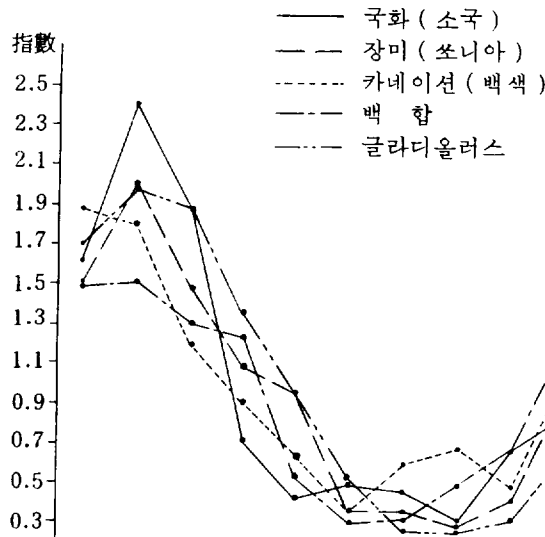
註: 1) 서울 大都 꽃 都賣市場 平均價格임.

資料: 한국화훼협회, 「화훼협회보」, 1983.

성배영외, 화훼류 유통체계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에서 인용

8) 이상훈; 서울시 화훼도매시장 유통에 관한 연구, (중대 대학원) 1985, pp. 13~14.

〈그림 8〉 主要切花類의 季節別 價格變動 1)



구 분	단 위	1月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국 화 ( 소 국 )	10 대	1.61	2.40	1.84	0.75	0.47	0.49	0.44	0.34	0.67	0.87	1.26	0.86	12.00
장미 ( 쏘니아 )	10송이	1.55	1.99	1.47	1.10	0.96	0.37	0.37	0.29	0.44	0.96	1.03	1.47	12.00
카네이션 (백색)	"	1.89	1.82	1.21	0.91	0.61	0.38	0.61	0.68	0.49	1.06	0.98	1.36	12.00
백 합	10 대	1.49	1.52	1.32	1.26	0.56	0.30	0.33	0.50	0.66	1.22	1.42	1.42	12.00
글라디올러스	"	1.71	1.93	1.85	1.37	0.95	0.53	0.26	0.26	0.35	0.63	0.84	1.32	12.00

註: 1) 서울 大都 꽃 都賣市場 平均價格임.

資料: 한국화훼협회, 「화훼협회보」, 1983.

성배영외, 화훼류 유통체계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에서 인용

(표15 및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切花의 경우 品目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6-8월의 夏節期에 가격이 폭락했다가 9월부터 서서히 상승하여 12-2월 사이에 최고 가격을 형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절화가격의 계절변동은 매우 심하다.<sup>9)</sup> 그 내용을 品目別로 보면 글라디올러스의 경우에는 출하성숙기인 6월에는 1단당(10대) 1,000원밖에 하지 않다가 단경기인 12월~2월에는 단당 5,000~7,300원까지 값이 오르고 있고 튜울립은 3,4월이 出荷성수기로서 총출하량의 80% 내외가 이 기간에 생산·출하되고 있

9) 성배영외; 花卉類 流通體系 分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pp.22.

으나 가격은 1 단당 (10 송이) 2,500~1,400 원으로서 단경기에 해당하는 11 월 중의 가격 4,500 에 비하여 훨씬 싸다. 백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수기인 5-6 月의 가격은 1,700 ~900 원에 불과하나 단경기인 1-2 月에는 4,500~4,600 원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으로 花卉價格이 5-8 月 사이 급격히 하락하는 이유는 첫째, 이 期間은 값이 저렴한 1 年生草가 많이 나오는 出荷성수기이며, 둘째, 소비자들의 室外活動이 많은 기간이기 때문에 室内空間에서 관상하는 用途인 切花의 수요가 감소하며, 셋째,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꽃의 수명이 다른 계절보다 짧기 때문에 그 수요가 감소된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 산지형성이 진행되고 있는 球根類의 切花는 겨울의 溫暖性을 활용하여 12~2 月의 出荷를 위한 作型調節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花種別 '84~'86 年の 價格動向은 한국농축수산물유통연구원이 작성한 <부록1>을 참조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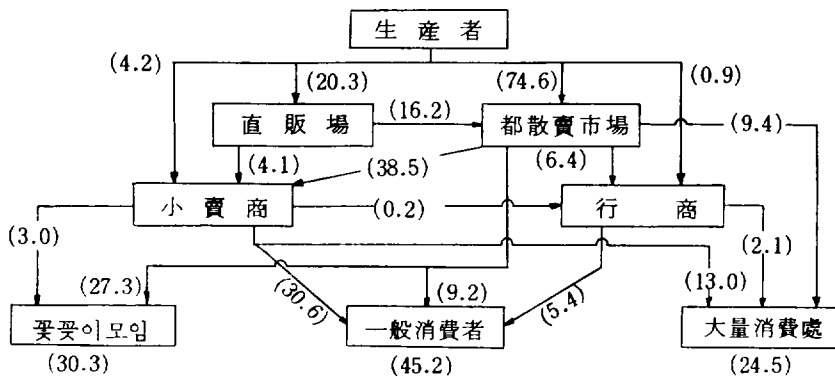
### Ⅲ. 花卉流通市場機構와 性格

#### 1. 流通經路

切花生産農家들은 대부분 產地直·共販場이나 都散賣市場 (類似都賣商內的 委託商) 에 委託販賣하고 있는데 그 流通行爲의 主體에 따라 구분하면 3 가지 경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生産者 → 都散賣市場 (委託商) → 小賣商 → 消費者인데 이 經路는 현재의 主要 經路로서 全體流通量의 74.6 % (그림 9) 가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림 9> 切花類의 流通經路 (1983)



( ) 内는 流通經路別 비중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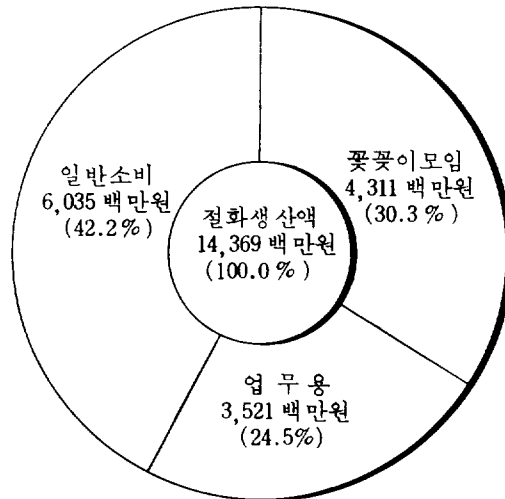
자료: 성배영, 농수산물 상품시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p.273에서 인용.

둘째, 生産者 → 產地 直·共販場 → 都散賣市場 → 小賣商 → 消費者. 이 경로는 생산자가 스스로 組織한 產地 直·共販場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生産物量의 20.3%가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중 16.2%는 都散賣市場으로 가는데 都賣市場의 商人들이 이를 利用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都散賣市場經由率은 첫째의 經路 74.6%와 이 16.2%를 합치면 90.8%가 됨으로써 類似都賣商內 委託商 中心의 流通體系를 형성해 주고 있다.

셋째, 生産者 → 小賣商 혹은 行商 → 消費者 經路인데 이것은 생산자가 직접 소매상이나 行商을 통하여 去來하는 것으로서 전체의 5.1% 水準으로 추정된다.

한편 花卉의 최종 소비처별 비중을 보면, 전체 유통량의 45.2%가 일반가정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30.3%는 꽃꽂이 모임에서, 나머지 24.5%는 업무용(호텔, 음식점, 교회, 회사, 학교, 공공단체)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0),11)</sup> 이를 切花生産額과 연결시켜 보면 다음(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切花의 消費狀況 (1983)



한편 盆花類의 流通經路를 간단히 살펴보면 生産者 → 都散賣市場 → 小賣商 → 消費者 經路가 56.8%이고 生産者 → 小賣商 및 行商의 經路가 36.8%, 生産者 → 產地 直·共販場 이용이 6.4% 되고 있다. 이와 같이 盆花는 消費地 附近에서 生産되기 때문에 生産者와 小賣商間의 直去來 比重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 성배영외, 上揭書, p.28.

11)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반 가정소비 34%, 꽃꽂이 모임등 연습용 34%, 업무용 32%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花卉類(切花, 盆花)의 流通經路나 流通段階는 일반 농산물에 비하여 단순해 보이거나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은 生産者 → 產地 直·共販場이라는 생산자들에 의한 공동출자·공동판매의 형태(주로 일의 조합형태)를 보이는 바 없지 않으나 그 主流는 生産者 對 中間商人으로서 都賣商人團의 막강한 세력으로 유통의 거의 全段階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買者과점적 현상을 보이고 있고 판매과정에서는 都賣뿐만 아니라 대소비자 전역을 그들의 小賣商團으로 포섭-폐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산자와 도매상간에는 대등한 去來力에 의한 公正去來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 流通物量

花卉類의 去來物量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前近代의 流通構造下에서는 극히 어려운 일이나 '81年 大都市의 그것을 대략 살펴보면(표16) 서울이 51.8%, 부산 23.1%, 대구 10.4%順으로 되고 있다.

(표16) 主要 都市別 花卉流通額 比率

(單位: 千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합 계
切花類流通額 %	12,410 55.7	4,530 20.3	2,135 9.6	1,390 6.2	890 4.0	950 4.3	22,295(33.2) 100
盆花類流通額 %	22,400 49.9	11,025 24.6	4,850 10.8	2,980 6.6	1,975 4.4	1,675 3.7	44,905(66.8) 100
計 %	34,810 51.8	15,555 23.1	6,985 10.4	4,370 6.5	2,865 4.3	2,615 3.9	67,200(100.0) 100

자료: 농어촌개발공사, 화훼산업육성방안조사연구, 1984.에서 인용.

또한 各 地方의 花卉市場에 搬入되는 物量을 보면(표17) 서울로 반입된 物量이 全量 서울 시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 96.0%, 광주 55.4%, 대전 72.1%, 춘천 75% 전주 70% 등의 서울 依存率을 보여주고 있어 서울은 花卉類에 있어서 集散市場體系를 이루고 있다. 그럼으로써 轉送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달리 검토코자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의 市場占有率은 서울근교, 마산, 부산 다음이 되고 있다.

( 表 17 ) 地 域 別 切 花 搬 入 現 況

調 査 地 域	産 地	搬 入 占 有 比 率	%										주 반 입 품 목
			10	20	30	40	50	60	70	80	90		
서울	서울근교	29.5	[Bar chart showing 29.5%]										다알리아, 국화, 장미
	마산	16.4	[Bar chart showing 16.4%]										국화, 장미, 카네이션
	부산	15.0	[Bar chart showing 15.0%]										카네이션, 장미, 백합
	제주	13.6	[Bar chart showing 13.6%]										프리지어, 백합, 튜울립, 수선화
	밀양	12.9	[Bar chart showing 12.9%]										수선화, 히야신스, 아이리스
대구	김해	12.6	[Bar chart showing 12.6%]										" " "
	대구근교	48.4	[Bar chart showing 48.4%]										금잔화, 국화, 살비아
	김해	19.7	[Bar chart showing 19.7%]										카네이션, 극락조화
	마산	17.6	[Bar chart showing 17.6%]										백합, 카네이션
	서울	7.8	[Bar chart showing 7.8%]										프리지아, 목련, 장미
부산	부산근교	3.9	[Bar chart showing 3.9%]										후리지아, 천일홍
	부산	2.6	[Bar chart showing 2.6%]										양난 등
	김해	35.0	[Bar chart showing 35.0%]										국화, 장미, 백합
인천	마산	2.5	[Bar chart showing 2.5%]										카네이션, 백합, 극락조화
	기타	4.6	[Bar chart showing 4.6%]										국화, 다알리아, 카네이션
	인천근교	4.0	[Bar chart showing 4.0%]										글라디올러스, 백합
광주	서울	96.0	[Bar chart showing 96.0%]										전품목
	광주근교	44.6	[Bar chart showing 44.6%]										히야신스, 카네이션, 장미
대전	서울	55.4	[Bar chart showing 55.4%]										전품목
	대전근교	17.2	[Bar chart showing 17.2%]										극락조화, 글라디올러스
	서울	72.1	[Bar chart showing 72.1%]										국화, 칸나스토크
	마산	4.2	[Bar chart showing 4.2%]										국화, 백합
	대덕	3.6	[Bar chart showing 3.6%]										칸나, 백합
춘천	김해	2.9	[Bar chart showing 2.9%]										카네이션
	춘천근교	25.0	[Bar chart showing 25.0%]										다알리아, 글라디올러스
청주	서울	75.0	[Bar chart showing 75.0%]										전품목
	마산	50.0	[Bar chart showing 50.0%]										카네이션, 장미
	진해	30.0	[Bar chart showing 30.0%]										프리지마, 금어초
	서울	15.0	[Bar chart showing 15.0%]										전품목
전주	기타	5.0	[Bar chart showing 5.0%]										금잔화, 국화, 장미
	전주근교	30.0	[Bar chart showing 30.0%]										국화, 백합, 글라디올러스
전주	서울	70.0	[Bar chart showing 70.0%]										전품목

資料 : 農 開 公 調 査 部, 調 査 月 報, 1984.1. 花 卉 都 賣 市 場 去 來 實 態 調 査



### 3. 市場現況

현재 우리나라에는 花卉類取扱 法定都賣市場이 全無한 상태이고 단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일부 大都市에 中間都賣를 하는 상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전국적인 分布를 보면 (※부록 2) 切花專門市場 7개소(총규모 2,400坪), 盆花專門市場 17개소(면적 830坪), 切花·盆花 混合市場 8개소(면적 1,850坪)로서 全體 32개소와 花卉 直·共販場으로는 切花共販場 2개소, 盆花共販場 7개소가 개설되어 있다(※부록 3).

이상의 分布中 서울권내의 市場이 16개의 꽃시장과 直·共販場이 있으며 현재 切花都賣市場은 남대문 대도시장(3층)과 강남의 터미널 상가, 코벤트 상가 정도이고 그외의 시장은 都散賣行爲를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小賣市場의 성격이 지배적이다.<sup>12)</sup> 盆花의 경우 생산자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直·共販場을 제외하고 거의 都散賣市場이다.

이상의 전체 시장규모는 8,430坪인데 이 중 서울이 5,770坪으로 68.4%에 해당된다. 地方都市의 市場은 부산 4개소, 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광주 1개소가 개설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규모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1) 產地 直·共販場

產地 直·共販場은 農協的인 것(嶺南花卉組合, 馬山花卉組合, 구서共販場)과 自生的 任意組合形態(통일로 꽃장)가 있으며 영남화훼조합과 마산화훼조합은 任意組合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들 共販場은 많은 失敗 경험을 갖고 있으며 共販의 發生動因은 都散賣市場을 견제할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생산자의 적극적인 참여 결여와 委託商人의 반발, 경매에 필요한 표준화 등 제도적 장치의 결여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去來能力面에 있어서도 都賣市場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競賣制를 導入하여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조합으로 영남화훼공판장('82.9.22)과 부산花卉 구서共販場('80.12.14)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판매방법은 會員(作目班員)인 생산농가가 생산물을 직접 판매장에 가지고 나와 농가별, 품종별, 등급별로 분류·진열하여 판매하는 形式인데 切花類는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상인에게 즉석에서 판매가 결정되고 盆花類는 판매예상 가격을 결정하여(생산자와 판매담당책임자간의 협의) 이에 따라 상인과 판매담당자간에 相對賣買가 이루어진다.

한편, 直·共販場은 판매사업뿐 아니라 시장정보의 수집제공, 기타 생산자 권익 보호 및

12) 70年代에는 남대문시장내의 대도시상가에서 그리고 80년대에는 강남지역에 商圈을 확대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대문시장내의 대도시상가, 강남의 터미널상가, 코벤트상가의 3大都賣市場은 類似都賣市場이다.

소득증대 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品目別로 販賣處를 보면 切花類는 각 직·공관장별로 등록된 상인들에게 全量販賣되고 盆花類는 都小賣商人에게 79.3%, 行商 5.0%, 個別消費者 75.7% 비중으로 판매되고 있다.<sup>13)</sup>

## (2) 都散賣市場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花卉類 法定都賣市場이 없고 다만 法的으로는 당국으로부터 小賣商 許可를 받은 小賣商이나 現實的으로는 都賣行爲를 하고 있는 이른바 類似都賣商(委託商)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런대로의 都賣商은 서울의 남대문 대도시장과 강남 터미널 및 코벤트 시장 정도이고 대부분은 都散賣(小賣兼)商으로서 靑果物 都賣市場(法定)과 같이 手數料 中心의 都賣人과 差益商으로서의 中間都賣商인 仲買人으로 機能的인 分化가 되어 있지 않다.<sup>14)</sup> 그럼으로써 委託商이 되기도 하고(都賣機能) 小賣商이 되기도 하는 都賣와 小賣가 同一人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5)</sup> 이에 따라 代金の 受拂도 同一人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유통형태나 시장거래에 있어서는 個別的 分散的임과 동시에 폐쇄적이다. 여기서 폐쇄적이라 함은 開放的, 競爭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특정의 인격적 결합, 상관습, 개인적 거래성에 의해서 생산자와 위탁상간에 固定性이 형성되고 또한 分散과정에서 특정의 小賣商과 결부되어 결국은 폐쇄성이 지배하고 만다. 이에 따라 出荷經路가 단순하여 集荷獨占性 내지 과점성으로 나타나 판매 및 가격결정권은 중간상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상인들의 受託거부 및 위험부담 전가행위, 판매대금결제 지연과 精算上의 가격조작 등으로 생산자와의 의견충돌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sup>16)</sup>

그러면 다음은 서울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地方市場에의 轉送關係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서울의 花卉 都散賣市場은 蒐集 및 分散機能을 全國的으로 수행하고 있어 產地의 商品들이 서울을 거쳐 다시 產地附近의 都市로 반출되는 集散市場體系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두 사례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의 事例는 서울특별시의 대표적인 切花都賣市場인 南大門 大都市場과 江南코벤트 꽃시장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인데<sup>17)</sup> 이들 시장의 상인들이 去來하는 去來人과 去來處

13) 成培永外; 前掲書 p.58.

14) 都賣市場制度의 기본적인 三大原則 - 市場去來의 公開制, 都賣人과 中間都賣人(仲買人)과의 差別性, 無條件 委託, 受託거부 금지등은 찾아볼 수 없다.

15) 남대문 대도시장과 강남코벤트시장의 경우를 보면 순수도매만 하는 상인은 10.3% 뿐이고 나머지는 도매, 소매 비율이 半半정도인 상인이 42.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농어촌개발공사, 화훼산업육성방안조사 연구, 1984, p.121.

16) 한 예를 보면 지난 2월 졸업시즌때 졸업선물용 화환으로 가장 많이 매매되는 튜울립의 판매 精算書가 문제돼 생산자와 상인간에 심각한 일이 있었다. 당시 市場價는 3~4,000원인데 精算에는 1,300~2,200원이나와 생산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온 것이다; 농축수산유통정보, 1986.7.14.

17) 農漁村開發公社, 화훼산업육성방안조사연구, 1984.

別 販賣比重은 다음 ( 표 18 ) 과 같다 ( 표 17 참조요 ).

( 표 18 ) 去來處別 販賣比率

구 분	거 래 물 량 %
1. 地方都賣商	40
2. 地方小賣商	5 (45)
3. 서울의 中間都賣商	10
4. 서울의 小賣商 (花房)	30
5. 서울의 行商	10 (50)
6. 기 타	5
계	100

資料 : 農漁村開發公社, 花卉産業育成方案 調查研究, 1984, p.131.

위 ( 표 18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市內 自體內需量은 50 % 정도이고 지방으로 반출되는 量이 45 % 나 되고 있으며 한편, 地方都賣市場으로 판매되어 나가는 去來比率을 地方別로 살펴보면 대전, 청주시 등 충청지방이 20 %, 대구가 22 %, 수원·인천지방이 20 %, 부산 16 %로 반출되고 있다 ( 표 19 ).

( 표 19 ) 서울市場에서 地方으로 販賣되어가는 去來狀況

단위 : %

지 방 별	충 청	대 구	광 주	전 주	부 산	강 원	수원·인천	기 타
계	20	22	11	7	16	4	20	-

자료 : 위와 같음.

둘째의 事例는 다음 ( 표 20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 서울의 경우 서울지역 자체소비가 75.0 %, 他地域으로 반출되는 量이 25 %이며, 제주도를 포함 전국적으로 반출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지역 시장에서는 36.7 %가 경상·전라도 일원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대구 및 대전지역은 10~20 % 정도의 量이 인근도시로 나가고 있다.

18) 成培永 : 農水産 商品市場 分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pp.293~294.

( 표 20 ) 都小賣市場의 他地域 搬出 物量 比重 (1984)

단위 : %

地 域	他地域搬出比重	搬 出 地 域
서 울	25.0	全 國
부 산	36.7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마산, 경주, 포항 등
대 구	20.0	포항, 안동, 경주, 김천, 구미, 왜관
대 전	10	공주, 부여, 논산, 청주, 영동

資料 : 成培永外, NMMP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成培永, 農水産 商品市場分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p.293 에서 인용.

이상 두 가지 事例에서 볼 때 (數值上에는 차이가 없지 않지만) 花卉類 都賣市場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의 廣域的 體系 (全國流通, 大都市 市場流通 - 集散市場 體系)에 의해서 地方中小都市 市場으로 再分散하는 轉送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sup>19)</sup> 그럼으로써 大都市 市場으로부터의 轉送에 의한 社會的 空費 (轉送 cost)가 운임상승과 함께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대도시 市場에의 과도집중이 결과적으로는 産地間 競争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동안 花卉類의 地方市場 整備가 되어 있지 않았던 요인과도 관계되지만 서울 등 대도시의 편중에 기인됨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地域的 體系 (地域流通, 地場流通) 指向의 화폐시장정비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한편, 화폐상인 (위탁상 또는 도매상)의 購入處別 購入量 比重을 보면 (표 21) 切花의 경우 서울위탁상은 김해지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구입하고 있으며, 부산은 김해직매장에서, 대구는 서울에서, 대전도 서울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다. 제주도로부터의 구입은 서울 切花 4.3%, 盆花 5.5%, 부산 切花 4.3%, 대전 盆花 10%를 구입하고 있어 제주 花卉類 market share 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또한 盆花의 경우 서울도매상은 90% 이상을 서울근교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으며 대구 및 대전 지방의 도매상은 약 60%의 물량을 서울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物量은 그 地方近郊 農家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 轉送體系는 大都市→地方中小都市場이라는 體系이지만 大田의 경우 切花는 서울市場에 72%의 존하고 있어 (표 17) 결국 서울→大田→공주, 부여등 中都市→小都市 消費市場이라는 몇 단계의 轉送段階를 보임으로써 社會的 空費 (轉送 cost)는 상상이상의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 都賣商의 購入處別 購入量 比重 (切花 및 盆花), 1984

단위 : %

구 분		구 입 처
서울	切花 (委託)	서울근교 (28.5), 부산 (10.4), 김해 (36.8), 마산 (18.2), 서산 (1.8), 제주 (4.3)
	切花 (都賣)	서울위탁상 (80.0), 서울근교 (10.0), 서산 (10.0)
	盆花 (都賣)	서울근교 (78.6), 경기일원 (12.1), 경남 (3.8), 제주 (5.5)
부산	切花 (都賣)	서울 (0.3), 부산근교 (8.2), 김해 (20.4), 김해직매장 (55.0), 제주 (4.3), 마산 (11.8)
대구	切花 (都賣)	서울 (36.7), 부산 (11.7), 김해직판장 (30.0), 대구근교 (8.3), 마산 (13.3)
	盆花 (都賣)	서울 (56.7), 대구근교 (43.3)
대전	盆花 (都賣)	서울 (60.0), 천안 (10.0), 광주 (10.0), 진주 (10.0), 제주 (10.0)

資料 : 成培永外, NMMP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成培永, 上掲書에서 발췌

### (3) 小賣市場

小賣段階의 流通組織은 花房과 行商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分布는 精確히 알 수 없으나 '82년 현재 소매상은 전국적으로 4,000여 개로 이 중 서울이 2,300여개, 부산에 700여개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1,000여개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0)</sup> 그밖에 行商 (리어카商, 노점商)이 있는데 전체 절화의 10% 정도가, 盆花는 5% 정도가 이들을 거쳐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分布立地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데 빌딩가 및 商街地域으로 갈수록 切花取拔量이 크고 주택가에선 盆花比重이 크다. 이는 빌딩가의 花房이 자본규모가 크고 또 선물용 수요 등 상품회전이 빠른 切花類를 많이 취급하는 반면 주택가에서는 수명이 길고 안전한 盆花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표 22).

그리고 小賣商의 分布를 보면 소비자가 주로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상업지역이 5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지역 26.0%, 사무실 지역 18.0%, 공업지역 2% 순이 되고 있으며, 취급화체류의 내용을 보면 盆花類 50.6%, 切花類 41.8%, 관상수류 5.2%, 종자류

20) 韓國花卉協會 推定價임.

( 표 22 ) 立地別, 花卉種類別 取扱比率

구 분	단위 : %			
	切 花	盆 花	觀 賞 樹	種 苗 種 球
빌딩密集都心街	48.0	52.0	-	-
商 街 地 域	33.3	64.0	-	0.8
準 商 街 地 域	45.0	55.0	-	-
住 宅 街	27.7	65.7	1.5	1.7
平 均	35.1	62.8	0.4	0.6

資料 : 農開公, 上掲書, p.138.

1.8%, 구근류 0.6% 順이 되고 있다.<sup>21)</sup>

한편, 小賣商들의 購入處別 比重을 보면 다음(표 23)과 같이 切花의 경우 서울의 소매상은 위탁상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全量購入하고 있으나 盆花類는 분산구입하고 있다.<sup>22)</sup> 제주의 경우 切花는 地域內 購入이 45.0%이고, 나머지 30.2%는 서울 상인, 24.2%는 부산상인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어 地域外 依存率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또한 盆花類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地域內 購入은 15%에 불과하고 부산 24.0%, 김해 30.0%, 마산 30.0%의 의존율을 보여주고 있다.

( 표 23 ) 小賣商의 購入處別 購入量 比重( 切花類 · 盆花類 ), 1984

구 분	단위 : %	
	구	입 처
서울	切花 盆花	서울위탁상(66.4), 서울도매상(33.6) 서울도매상(20.0), 서초동(22.5), 구과발(23.0), 천호동(16.5), 세곡동(10.0) 우면동(8.0)
부산	切花 盆花	부산도매상(57.6), 김해(5.4), 김해직판장(26.9), 대구직판장(7.7), 마산(2.4) 서울상인(5.6), 부산근교(30.3), 부산석대공판장(30.8), 부산서구공판장(14.0) 자유시장(9.5), 국제시장(8.3), 대구(1.5)
대구	切花 盆花	김해직판장(33.3), 대구도매시장(66.7) 서울상인(27.6), 부산(25.0), 대구근교(15.0), 대구도매상(25.0), 대구직매장(12.5)
광주	切花 盆花	서울상인(39.0), 부산상인(2.0), 김해(2.0), 광주근교(43.0), 나주(3.0), 마산(11.0) 서울(35.0), 광주근교(41.5), 나주(19.5), 금성(4.0)
대전	盆花	서울(86.4), 대전도매상(3.6), 대전근교(10.0)
제주	切花 盆花	서울상인(30.2), 부산상인(24.2), 제주(45.0), 마산(0.6) 서울(1.0), 부산(24.0), 김해(30.0), 제주(15.0)

( )内는 구입량 비중(%)임.  
자료 : 성배영외, NMMP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에서 작성.  
成培永, 前掲書에서 발췌

21) 농어촌개발공사; 유통조사월보 1986.8. p.10.

22) 小賣商의 年間 平均 賣出額은 26,466천원이 되고 있다; 農開公; 유통조사월보, 1986.8. p.10.

## IV. 生産·販賣實態

(※다음은 제주도의 花卉農家(切花中心) 20戶에 대하여 販賣實態를 중심으로 조사표에 의한 조사 결과의 분석이며 여기에 화훼관련 문헌 및 청취조사가 보완되었다.)

### (1) 農家實態와 耕地保有形態

화훼생산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33.4歲로 비교적 젊은 층이며 학력은 국졸 5%, 중졸 25%, 고졸 50%, 대졸 20%로서 높은 學力水準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農家別 經營形態는 60%가 專業이며 나머지 40%가 副業으로 하고 있어 專門經營의 趨勢이다.

조사농가의 戶當 平均 花卉栽培面積은 1,748坪이고 이중 賃借率은 72.9%이며, 施設率(house率)은 48.1%이다(표24). 그리고 平均 坪當 賃借料는 674.3원으로서 김해지역의 坪當 700~900원과 비슷하다.

(표24) 花卉農家の 耕地狀況

구 분	소유면적	임차면적	화훼재배면적		계
			시설	노지	
戶當平均(坪)	473 (27.1)	1,275 (72.9)	840 (48.1)	908 (51.9)	1,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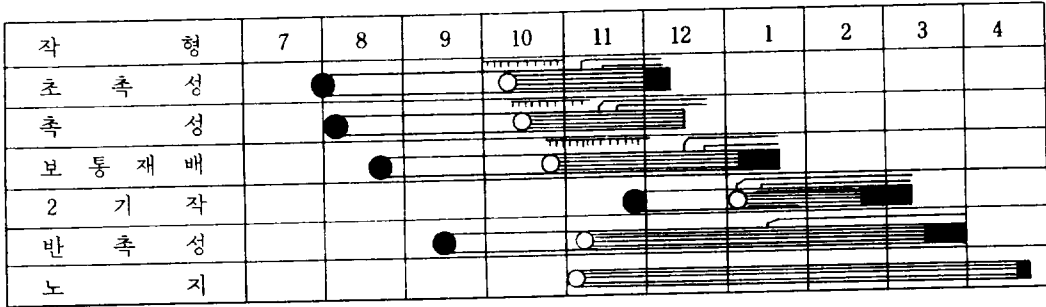
註: ( )内는 構成比. 본 연구 조사결과

이상과 같이 대부분 화훼경영면적은 賃借에 의존하고 있어 영구시설에 대한 투자의욕 저하, 지력증진에 대한 관심 약화, 지속적인 영농에의 심리적 불안 초래 등의 현상이 엿보인다(조사농가의 전체 경지면적은 호당평균 2,913坪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중 花卉施設·露地栽培面積만을 화훼 경영면적으로 파악하였다).

### (2) 經營技術의 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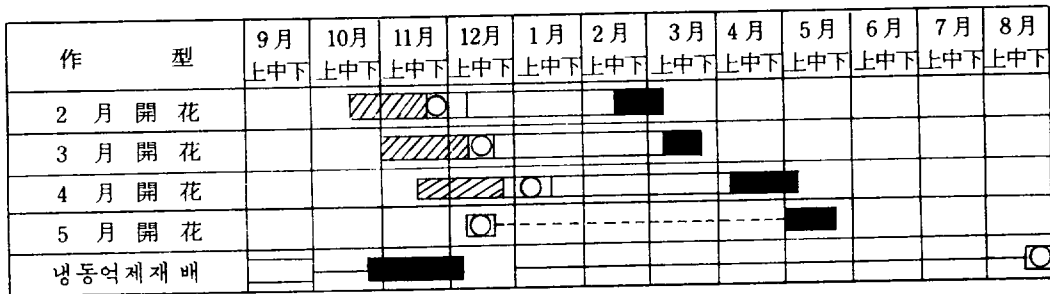
作型決定에 영향을 주는 두 變數는 品種과 出荷時期이다. 同一出荷時期일지라도 新品種이 選好되며 또한 같은 品種이라도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 作型選擇은 농가당 4~10(?)의 작형이 채택되고 있는데 출하시기를 분산함으로써 가격불안에 대처하려는 경영적 대응이라 보아진다. 제주도는 球根類에 特化하여 대부분 11月中旬부터 5월까지를 출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그림 11,12 참조>

〈그림 11〉 튜울립 절화재배 작형



●냉장 ○식재 □냉장기간 ▣생육기 ▽보온 ▲기온 ■수확

〈그림 12〉 스카시百合의 작형



▨冷蔵(低溫處理) □○植栽時期 □加溫하우스 ---無加溫하우스 ■採花期

작형決定의 動機를 보면 (표 25) 가격시세가 제일 많고 (47.5%) 그다음 재배기술, 영농자금 順이다.

(표 25) 작형決定의 動機

구분	노동력조달	영농자금	가격시세	재배기술	계
호수	3 (7.5)	4 (10.0)	19 (47.5)	14 (35.0)	40 (100.0)

註: 1戶當 2개문항. ( )内는 구성비 (%), 본 연구 조사결과

또한 작형選擇의 技術的 問題는 종묘구입, 육묘 및 방제기술인데 종묘구입은 대부분 네델란드産을 종묘회사 또는 상회를 통하여 구입하고 있으나 일부는 수입상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고 日本産도 일부 있다.

그리고 技術習得源은 서적이나 자기경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는데 (표 26) 이것은 제주



도의 화훼재배가 아직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화훼재배 경력이 평균 3-4년에 지나지 않고 있다).

( 표 26 ) 技 術 源

구 분	동네사람	서 적	상 인	자기경험	독 농 가	연구기관	계
호 수	1 (2.5)	13 (32.5)	1 (2.5)	11(27.5)	10(25.0)	5(12.5)	40(100.0)

註 : 1 戶當 2 개문항. ( ) 内는 구성비 (%). 본 연구 조사결과

(3) 資金調達狀況

화훼경영은 高額의 投資가 요구되는 반면 재배자는 資本蓄積力이 미약하므로 자본조달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화훼농가의 營農資金 利用實態를 보면(표 27) 경영자금규모는 1,598만원이며 이 중 自己資本率은 41.0%이고 나머지 59%는 他人資本이 되고 있다. 이 중 私債는 19.1%이며 制度金融은 19.7%의 수준이다(조사농가는 대부분 負債를 지고 있는데 최소한 140만원으로부터 1,000만원이 되고 있으며 商人의 先貸資金은 2개농가에서 2,000만원을 쓰고 있다. 이들은 대개 서울의 위탁상에게 물량을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영농자금 형태로 使用하고 있다. 이때 利子는 총판매액의 5%이나 판매수수료 15%를 가산하여 20%를 공제한다. 그런데 金海地域의 화훼농가 先貸資金 利用率은 전체의 41%로서 이것과 비교할 때 제주도는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販賣經路選擇에 독자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 표 27 ) 營農資金 調達狀況

단위 : 만원

구 분	自己資本	制度金融	私 債	先貸資金	行政支援	後繼者支援	合 計
戶 當 平 均	655 (41.0)	315 (19.7)	305 (19.1)	100 (6.3)	118 (7.4)	105 (6.7)	1,598 (100.0)

註 : ( ) 内는 %. 본 연구 조사결과

한편 제주도의 切花生産費目中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種苗費(52.5%)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球根類에 特化하고 있어 수입(주로 네덜란드) 종구를 사용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른 資金需要量과 그 時期를 조사해 본 결과 戶當 平均 자금수요량은 561만원이었으며 時期는 7-9월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시책이 바라지고 있다. 그리고 희망하는 용자방법은 대부분 신용대출 및 시설담보융자를 원하고 있다.

(4) 栽培動機 및 生産者 意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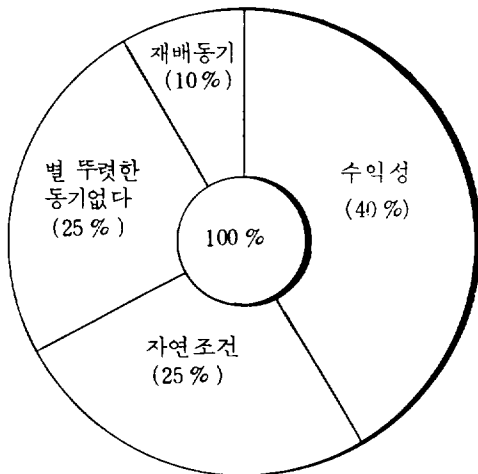
제주도는 주지되는 바와 같이 최근 화훼재배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배동기를 알아본 결과 (그림 13) 우선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40%)를 들고 있지만 자연조건이 좋아서 (25%), 별 뚜렷한 동기가 없다 (25%)로서 自然條件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生産者 意向은 現狀維持希望이 45%로서 지배적이고(그림 14) 규모확대희망 농가는 35%로서 그 동기는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데에 두고 있다. 그리고 축소를 희망하는 농가도 2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축소하려는 이유로는 가격안정성이 없어서를 우선 들고 있으며 그다음은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낮아서를 들고 있어 최근 切花類 價格動向이 不安定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과잉생산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 농가들이 조절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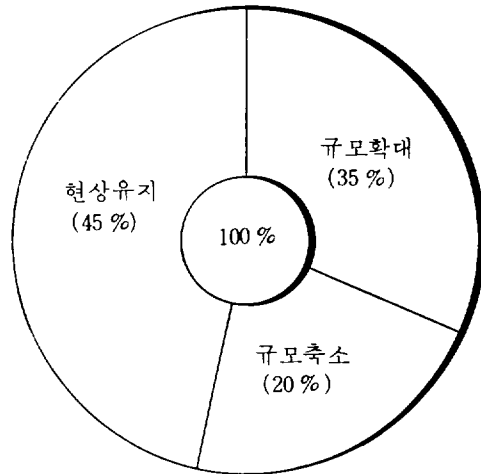
그리고 1年동안 ('85) 재배한 화훼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品目順을 알아보았더니 백합, 글라디올러스, 아이리스, 프리지어, 튜울립, 극락조화, 양란, 금어초, 안개초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도는 球根類를 특히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재배동기



주 : 본연구 조사결과

<그림 14> 생산자 의향



주 : 본연구 조사결과

(5) 產地組織活動 狀況

산지 조직활동은 主產地形成 과정에 중요한 정비조건이 된다. 그것은 종래의 個別的인 產地에서 集團化한 產地로 발전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생산·판매상의 個別的 對處가 아닌 集團行動에 의한 共同利益追求가 우선시된다. 생산·판매상의 有機的 組織形成은 產地內 經營規模의 同質性, 經營方式의 單一化(特化)를 內的 條件으로 하며 產地間 경쟁에 의하여

促發되고 對市場占有率 (market share)의 제고에 일차적 목표가 있다.

產地組織은 크게 생산(자)조직과 판매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는 아직까지 생산(자)조직(예컨대 화훼작목반 등)이 없으며 공동수송, 정보제공, 친목을 도모하는(사단법인)한국화훼협회 제주도지부가 있고(회원 약 150여명), 이와 연관된 北部支會(회원 20여명)가 있다. 그런데 화훼협회제주도지부는 최근 분파되어 제주도 화훼협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판매조직의 한 형태인 產地直販場은 전국에 걸쳐 11개소가 있지만 본도에는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다.<sup>23)</sup>

이와 같이 본도는 생산자들의 조직적인 활동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어 한 예로서 영농자재 구입처별 비중을 알아보았더니(표 28) 대부분 市場 個別 購入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자(종묘)는 종묘회사에서 구입하고 있다.

( 표 28 ) 營農資材의 購入處別 比重

단위 : %

구분 품목	시 장 개별구입	협 회 등 공동구입	상인알선	종묘회사	수출입 자	기 타	계
비료	80	20					100
농약	80	20					100
비닐온실부자재	65	35					100
종자(종근)	10	-	5	65	15	5	100

주 : 본연구 조사결과

#### (6) 生産費用

切花生産農家の 段歩當 總生産費는 4,606千원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4)</sup> 각 비목별로 보면 종묘비, 수도·광열비, 인건비 등이 전체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영상 큰 制約點(bottle neck)이 되고 있으며 방제비·포장비, 농기구 또는 시설수리비는 10% 이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인건비 38.0%, 수도·광열비 27.6%의 비율이 높으며 제주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은 종묘비가 각각 52.5%, 47.6%로서 총비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가 球根類에 特化하고 있어 高價品이라는 것뿐 아니라 수입종묘를

23) 共販場의 성격과 기능을 보면 먼저 市場占有力 내지 交渉力의 강화수단으로 流通面의 協同化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생산의 진분화·대량화 및 가격의 안정화·유통비용의 低減效果 등을 수반한다.

24) 成培永外; 花卉類 流通體系 分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pp.51~52.

사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 표 29 ).

( 표 29 ) 切花類의 段步當 ( 300 坪 ) 生産費用

單位 : 千圓, (%)

구분 지역	종묘비	비료비	방제비	인건비	수 도 광열비	임대료	포장비	제 재 료비	농기구 설비 수리비	기 타 비용	計
서울	300 (10.9)	153 (5.5)	148 (5.4)	1,047 (38.0)	761 (27.6)	150 (5.4)	28 (1.0)	50 (1.8)	35 (1.3)	85 (3.1)	2,757 (100.0)
충청도	1,282 (47.6)	154 (5.7)	55 (2.0)	208 (7.5)	600 (22.3)	175 (6.5)	43 (1.7)	160 (5.9)	-	20 (0.8)	2,693 (100.0)
전라도	715 (21.8)	228 (6.9)	142 (4.3)	617 (18.6)	954 (29.0)	217 (6.6)	54 (1.6)	178 (5.4)	10 (0.4)	170 (5.2)	3,285 (100.0)
경상도	412 (9.9)	417 (10.0)	159 (3.8)	788 (18.9)	1,131 (27.2)	274 (6.6)	183 (4.4)	195 (4.7)	305 (7.3)	299 (7.2)	4,163 (100.0)
제주도	2,961 (52.5)	372 (6.6)	86 (1.5)	596 (10.6)	498 (8.8)	157 (2.8)	101 (1.8)	512 (9.1)	37 (0.6)	319 (5.7)	5,639 (100.0)
평균	1,489 (32.3)	344 (7.5)	128 (2.8)	668 (14.5)	890 (19.3)	220 (4.8)	126 (2.7)	274 (6.0)	190 (4.1)	277 (6.0)	4,606 (100.0)

資料 : 成培永外, 花卉類 流通體系分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p.52.

그런데 수도·광열비를 보면 제주도는 경상도에 비하여 56% 정도의 절감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겨울의 온난성이라는 자연조건의 입지적 혜택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sup>25)</sup> 일반적으로 切花類의 主産地形成에 있어서 市場的 要因이 보편적인 통태요인이라면 자연적 요인은 제주지방이 다른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유리성을 갖게 하는 특수한 靜態的 要因이 된다. 이에 따라 切花生産은 大消費地에서 먼거리에 立地할수록 수송비의 증가를 감수하는 대신 유리한 자연환경에 의한 생산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제주지역이 갖는 자연조건의 상대적 유리성은 冬期의 溫度와 日長條件에 의존하는 바 온도차이를 경상도의 주요 화훼류 생산지(국화)인 馬山과 비교해 보면 제주 1月 平均氣溫(서귀포지역) 6℃인데 비하여 馬山은 0.4℃로서(서울은 -5.9℃) 5.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온도차가 施設 花卉經營에 미치는 영향은 연료비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양지역간의 相對的 有利性關係를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으며(표 30) 제주지역의 상대적 유리성이 현저함을 볼 수 있다.

25) 연료비의 경우 제주지역은 서울의 70%, 부산의 30% 절약이 가능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농어촌개발공사; 화훼산업 육성방안 조사 연구, 1984, p.247.

( 표 30 ) 地域間 燃料費·運賃比較

시설 100 평당

지역 \ 항목	연료비	운임	합계
경상도	377,000원	150,000원	527,000원 (100.0%)
제주도	166,000원	192,000원	358,000원 (67.9%)

주 : ① 100평당 생산량 마산(국화) 20,000송이 25 box, 제주(백합) 12,000대 30 box

② 운임 마산 - 서울(항공) 1kg당 150원  
 제주 - 서울(항공) 1kg당 160원

③ 연료비에는 수도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음.

여기서는 이상과 같이 연료비 관계를 간단히 비교하여 보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제주지역이 지니고 있는 溫暖성이 농업생산에 어느 정도의 有利性を 창출시켜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즉 적지 적환경에 의한 에너지 절약수준 및 에너지 투입 산출에 따른 原單位 計算이 있어야 될 것이다. 참고로 日本의 계산 예를 다음(표 31)에서 보면 露地에 비하여 토마토는 33~40배, 오이 27~28배를 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표 31 ) 生鮮農産物의 Energy 消費比較

	投入 Energy (Gcal/ha)	産出 Energy (Gcal/ha)	産出 效率 = $\frac{\text{産出}}{\text{投入}}$	Vit.C생산에 투입된 Energy (Kcal/mg)	露地栽培에 대한 倍率	露地것에 대한 價格 倍率
딸	30.1	16.7	0.55	-	-	-
토마토 (1)	35.3	23.2	0.66	2	1.0	1.0 (7~9)
토마토 (2)	631.0	31.0	0.05	67	33.5	2.3 (12~3)
토마토 (3)	693.0	28.3	0.04	80	40.0	
오이 (1)	48.8	6.8	0.14	4	1.0	1.0 (6~8)
오이 (2)	1,023.0	10.9	0.01	111	27.8	2.4 (12~3)
오이 (3)	818.0	8.9	0.01	110	27.5	
가지 (1)	70.0	1.3	0.25	16	1.0	1.0 (7~9)
가지 (2)	461.0	23.5	0.05	156	9.8	2.3 (12~3)

資料 : 全國農業新聞 (1977.3.18) : 東京大學農學部, 高倉直 算出.

註 : ① house 內에 作物에 함유된 Vit. C는 露地의 것의 1/2로 가정되어 있음.

② (1)은 露地栽培 (2)는 加溫 house 內의 半促成栽培 (3)은 加溫 house 內의 促成栽培.

③ 露地의 것에 대한 가격의 배율은 東京 都賣市場을 기준한 것임.

首都圏流通問題研究會編 : 農産物流通の現代的 課題, 統計協會 p.27에서 인용.

(7) 販賣 및 出荷形態

1) 出荷形態와 活動

그러면 먼저 主產地와 單純한 產地(特產地)를 구별하여 主產地形成의 論理를 살펴보고자 한다.<sup>26)</sup> 主產地는 論理的으로 볼 때,

指標(1a) 전문화된 農산물 생산이 그 地域內的 自立經營農家 및 이에 준하는 農가계층 대 다수가 基幹部門으로서 經營조직으로 확립할 것.

指標(1b) 그 선택되는 農산물은 보다 높은 생산성과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指標(1c) 市場에서 大量性, 均質性, 計劃性 등이 확립되어 총판매량은 관계되는 市場으로부터 有名品으로 인정을 받을 것.

指標(2) 流通組織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농가는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에 있어서 機能的 組織을 형성할 것 등을 전제하고 있다. 만약 지표(2)의 기능적 조직체가 결여될 때는 「單純한 產地」로서 생산농가가 다만 地域의 立地條件을 이용하는 정도로 보고 기능조직체 형성이 있을 때 이를 主產地라 하고 있다. 이 기능적 조직체는 해당지역 農산물의 選別, 包裝, 輸送, 販賣活動을 전개할 뿐 아니라 대형기계 및 시설의 도입이나 공동이용을 하며 때로는 기능적 조직체에 포함되는 全生産農家の 利益을 위하여 農산물의 수확기간이나 판매기간을 지정하기도 하고 판매량까지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主產地의 발전단계를 보면, ① 독농가 단계, ② 대중보급 단계, ③ 주산지 형성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太田 弘은 주산지 형성조건으로, ① 농가의 참가조건, ② 기술적 조건, ③ 경영방식의 조건, ④ 유통 및 시장조건을 제시하여 각 단계에 따른 이들 조건의 형성과정을 다음(표32)와 같이 밝히고 있다.<sup>27)</sup>

( 표 32 ) 主產地 形成의 過程

發展段階 整備條件	篤農家の段階	大衆普及化段階	主產地形成段階
農家の 參加條件	篤農家 中心	新規生産者の 參加	全 層 化
技術的 條件	篤農家の 技術에 依存	재배技術의 普及	재배技術水準의 平準化
經營方式의 條件	經營方式의 多樣化	특정작물의 基幹部門化	특정작물 經營의 特화
유통 및 시장조건	個別個人出荷	공판체제의 초기형성	공판체제의 確立

26) 강경선; 감귤의 경영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I), 제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978년

27) 太田 弘; 花き流通—その經濟分析と展望, 誠文堂 新光社 1970, pp 25~26.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主產地 形成過程에서 農家間의 機能的 組織을 강조하고 특히 共販 體制의 확립을 주요한 특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主產地 形成段階에서 볼 때 독 농가적 단계와 대중보급 단계의 과도적 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들에 의한 기능적 조직-생산 및 판매조직을 하루속히 정비하는 일이라 보아진다. 더욱이 화훼류의 유통근대화를 촉진하는 기초조건으로서 28) ① 화훼경영의 대형화와 계층분화의 진전, ② 출하규모의 대형화, ③ 산지에 있어서 규모화의 진전 등을 들고 있으며 유통의 객관적 조건 변화로서, ① 교통조건의 정비, ② 物流 流通技術의 개발, ③ 유통관계 자료의 정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추진도 물론 정책적 추진이 중요하지만 생산자들 스스로의 조직에 의해 조건을 정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切花類의 主要產地別 出荷形態를 보면 다음(표33)과 같으며 우리나라 주요산지의 출하형태는 아직 초보적 단계(단순한 산지단계)로서 수송단계의 공동보조 및 집하단계의 일부지역 공동화를 보여주고 있을 뿐 대개 個別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화훼협회 제주도지부가 중심이 되어 집하공동 수송공동활동을 그런대로 전개하고는 있으나 기본 판매형태는 個別段階에 있다. 29)

( 표 33 ) 切花類의 主要 產地別 出荷形態

區分 產地	出 荷 形 態			
	選 別	包 裝	集 荷	輸 送
金 海	個 別	個 別	共 同	共 同
濟 州	"	"	"	"
光 山	"	"	個 別	個 別
馬 山	"	"	"	"
仁 川	"	"	"	部分 共同

그런데 現販賣方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았더니(표 34) 대부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0%).

28) 太田 弘; 上掲書, p.37.

29) 전국 화훼 생산농가의 출하경향을 보면 응답자중 89.5%가 개별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출하는 10.5%에 지나지 않았다; 농개공, 유통조사원보, 1986.8, p.11.

이는 생산농가가 직접 소비시장의 위탁상이나 도매상에게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것으로서 판매시의 제경비 및 위험부담을 생산자 자신이 책임을 지고있다.

( 표 34 ) 現販賣方法에 대한 만족도

	만족	비교적 만족	비교적 불만족	만족하지 않음	계
비중 (%)	5	—	25	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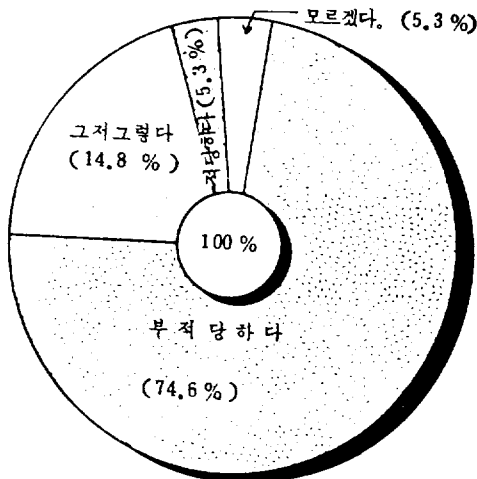
자료 : 본연구 조사결과

제주도에 한정된 조사는 아니나 農開公의 調査結果를 보면<sup>30)</sup> 위탁판매 응답자 중 58.2%가 판매시 불편하고 손해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서는 판매가격의 미확실(35.2%) 위탁상 이윤 15.3%, 판매금액 지불지연(4.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切花委託販賣時 農家受取價格에 대한 만족도(그림 15)는 5.3%에 지나지 않으며 74.6%가 부적당하다. 14.8%가 그저 그렇다. 4.6%가 모르겠다. 5.3%가 부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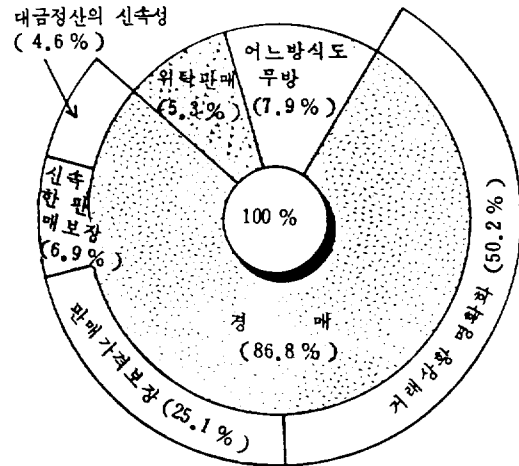
販賣方法 選好度를 보면(그림 16) 86.8%가 경매를 희망하고 있으며 경매선호 사유로는 거래상황의 명확화(50.2%)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판매가격 보장(25.1%), 신속한 판매보장(6.9%), 대금정산의 신속성(4.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生産者の 販賣價格에 對한 滿足度



주 : 농개공, 유통조사월보, 1986.8, p.12.

<그림 16> 切花生産農家の 販賣方法 選好度



주 : 左同

또한 판매방법 선호도와 관련하여 화훼생산 농가들의 바람직한 출하형태를 알아보았더니 (제주) 개별판매는 20%에 불과하고 80%가 공동판매를 희망하고 있어 현재의 개별위탁

30) 農開公, 유통조사월보, 1986.8, p.12.



판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쩌서 생산농가들은 공동판매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개별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이다. 물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은 생산자 조직의 미비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도시의 決定都賣市場이 하루 속히 개설되어 公正去來와 함께 共同出荷를 촉구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될 것이다. 사실 화훼의 수요 및 생산은 급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여기에 相應하는 판매방법은 아직까지 前近代의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판매처

일반적으로 切花類는 都散賣市場内の 委託商 및 都賣商에게 거의 모든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데 제주지역은 이러한 판매가 96.9%로서 절대적이다(표 35). 그런데 경상도 지역은 直販場 45.2%, 都散賣市場 52.8%로서 직관장과 도산매시장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 요인은 생산자 판매조직인 產地共販場이 그런대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경상도에는 切花類 取扱共販場이 김해의 영남화훼공관장, 마산의 마산절화공관장 등이 개설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지공관장 체제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농협과 관련하여 作目班으로 활동하는 경우(서울의 천호화훼공관장, 경기의 신도농협화훼공관장)와 공관장의 판매대금을 농협창구를 이용토록 하여 부수적인 지원을 받는 형태(영남화훼공관장, 마산절화공관장) 및 미인가된 상태지만 특수조합의 형태를 빌어서 활동하는 형태(영남화훼조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둘째는 임의조합으로서 공관활동을 하는 마산화훼협회, 통일로 꽃장(서울)이 있다.

( 표 35 ) 切花類의 販賣處別 比重

지 역	관 매 처				계
	직 관 장	도산매시장 1)	소 매 상	수집·빈출·행상	
제 주 도	1.1	96.9	1.8	0.2	100.0
경 상 도	45.2	52.8	-	-	100.0
충 청 도	-	100.0	-	-	100.0
전 라 도	3.0	76.0	21.0	-	100.0
서 울	-	97.5	2.5	-	100.0
계	20.3	74.6	4.2	0	

주 : 1) 도산매시장은 도매상·위탁상을 칭함.  
 성배영외, 화훼류유통체계분석, 1984, p.48에서 인용.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부산, 김해, 마산 등의 切花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산지공 판을 우리는 크게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제주도에 있어서('85年 한해 동안) 出荷地域別 販賣構成比를 보면, 서울지역 60%, 대구지역 20%, 부산지역 15%, 제주지역내 5%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백합을 사례로 市場別 構成比를 보면 서울의 코벤트 69%, 서울의 대도 20%, 부산의 창선 5%, 대구의 칠성 1%, 기타 5%가 되고 있어 서울의 코벤트 시장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판매처 선택의 동기를 보면(표 36) 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가격동기가 제주도의 경우 38.6%, 과거부터 거래해 온 관행 또는 기존거래선과의 관계가 50.0%로 지배적인 데 비하여 경상도는 先貸資金 事情때문이 15.8%로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요인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市場選擇權이 그만큼 주어지고 있다.

( 표 36 ) 販賣處選擇의 動機

動機別 區分	보다 높은가격	가격변동의 위험부담	관행또는 기존거래선	소규모의 생산때문	시장과의 거리	선대자금 사정	계
제 주 도	38.6	11.4	50.0	-	-	-	100.0
경 상 도	44.3	15.8	22.6	-	1.5	15.8	100.0

자료: 성배영외, 화훼류 유통체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p.48에서 인용.

(8) 月間販賣實績

화훼농가의 月間販賣量은 각종 행사와 계절에 큰 영향을 받는데 절화의 경우 1年中 最高의 好況期라 할 수 있는 졸업시즌인 2월에 가장 많은 物量이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준비간이라 할 수 있는 여름철인 6~8월에는 판매가 부진하였다가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튜울립은 총출하량의 80%가 3~4월에 생산 출하되고 있고 가격은 11월의 단정기에 비하여 1단에 3,000원 상당의 차이가 난다. 카네이션은 2~5월에 가장 집중 출하되고 값도 가장 높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月別販賣指數를 보면(표 37) 地域別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中部圈인 서울과 충청도 지역은 5,6월에 각각 2.37, 2.22로 가장 높고, 겨울철인 12~2月사이에는 판매실적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南部圈인 전라도 지역은 3월 2.81, 4월 2.57로 3~4월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경상도 지역은 2월에 가장 높고 12월, 4월 順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1,2월에 각각 3.11, 2.71로 다른 계절보다 월등하게 높는데 이것은 溫暖性を 활용하여 주로 球根類의 切花를 1~5월까지 집중 생산 출하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물론 주생 산품인 백합, 프리지어, 글라디올러스, 안개초 등의 가격도 이때가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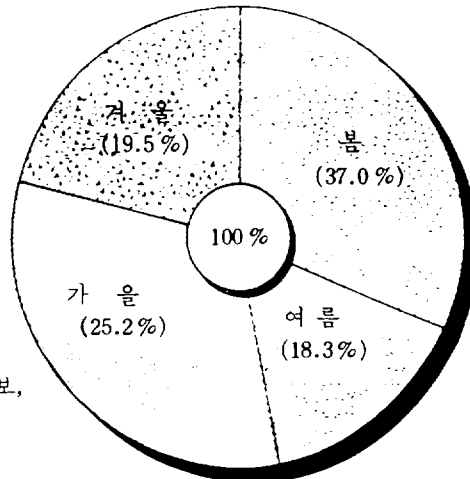
( 표 37 ) 切花類의 月別 販賣指數 (1983)

지 역	월 별 관 매 지 수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서 울	-	0.18	0.41	1.93	2.37	0.65	0.65	1.67	1.79	1.43	0.80	0.12	12.00
충 청 도	-	0.79	1.29	-	0.89	2.22	1.74	1.46	1.69	1.58	0.34	-	12.00
전 라 도	0.53	1.72	2.81	2.57	1.19	0.43	0.19	0.18	0.44	0.37	0.69	0.88	12.00
경 상 도	1.08	1.55	1.21	1.34	0.93	0.42	0.38	0.61	0.99	1.21	0.92	1.36	12.00
제 주 도	3.11	2.71	1.43	1.68	1.49	0.02	0.01	-	-	0.15	0.57	0.83	12.00

자료 : 성배영외, 상계서, p.46 에서 인용.

이상과 관련하여 消費者들의 切花季節別 購入傾向을 보면 (그림 17) 봄에 전체 소비량의 37.0%를 구입하며 다음으로 가을이 25.2%, 겨울이 19.5%, 여름이 18.3%를 구입하고 있다.<sup>31)</sup> 봄, 가을철에 주로 구입하는 이유로는 우수한 품질의 꽃이 주로 많이 생산 출하되고 각종 경축행사가 봄, 가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구입 경향을 보면 (표 38) 봄, 여름, 가을철에는 30~60만원의 소득계층의 구입율이 가장 높고 겨울철에는 60~90만원 소득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겨울철 꽃은 보다 고급품이 생산 출하되어야함을 알려주고 있다.

< 그림 17 > 季節別 購入比率



주 : 농개공, 유통조사월보, 1986.8, p.5.

31) 農開公 上揭書 pp.5~6.

( 표 38 ) 所得階層別 季節別 購入傾向

	봄	여름	가을	겨울
30 만원 미만	37.6	19.9	23.8	18.7
30 ~ 60 만원	38.3	19.4	25.5	16.8
60 ~ 90 만원	45.4	15.8	24.7	24.1
90 만원 이상	34.2	16.9	27.5	21.4

주 : 농개공, 유통조사월보, 1986.8, p.6.

(9) 流通마진

花卉類의 유통마진 분석은 그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데 그것은 花卉가 품종이 다양하고 상품 상태에 따라 하루 중에도 가격변동이 심하여 그 비용 및 가격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花卉類는 품종, 상태, 색깔, 출하량 등에 따라, 살아있는 生命體이기 때문에 시간변화에 따라, 같은 市場內에서도 價格差異는 크게 마련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全國平均 切花類 (委託商經路)의 마진을 살핀다음 제주-서울간 도매단계까지의 유통비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切花類의 全國平均 마진을 보면 ( 표 39 ) 委託商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총마진율이 58.3%로서 直賣場을 경유하는 것 (총마진율 50.1%로서 위탁상 경유보다 낮은 수준임)보다 마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32)</sup> 각 단계별 비용 및 상인수익의 구성을 보면 농가단계에서의 총비용은 17.2%로서 이중 減耗가 1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가 物件을 상인에게 위탁해서 판매할 경우 제고품에 대해 폐기처분되는 物量은 전적으로 생산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도매단계에서의 총마진율은 14.2%로서 비용은 약간의 포장비와 輸送·下車費 일부가 포함될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상인 수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상인수익 부분속에는 점포의 운영비와 시설투자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收益이 모두 純收益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小賣段階의 마진율은 26.9%로서 전체 마진율의 46.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총유통 마진율을 보면 카네이션이 64.5%로 가장 높고 안개초가 55.1%로 가장 낮다.

32) 成培永外 前掲書 pp.31~33.

( 표 39 ) 切花類의 流通費用 및 마진 ( 委託商經路 )

1984.4.26 ~ 5.5 ( 全國平均 )

單位 : %

區 分		平 均	국 화	카네이션	백 합	장 미	글라디올러스	안 개	
農 家 段 階	受 取 價 格	41.7	39.5	35.5	43.9	38.4	40.6	44.9	
	費 用	收 穫	2.2	3.2	3.8	1.7	2.3	1.2	2.8
		選 別 · 包 裝	0.8	0.9	0.8	0.9	0.7	1.0	1.2
		輸 送	2.1	1.6	1.6	2.1	1.6	3.0	2.1
		減 耗	11.4	13.2	11.3	13.1	8.9	9.8	10.3
		販 賣 手 數 料	-	-	-	-	-	-	-
		其 他	0.7	0.3	3.5	0.4	0.6	0.6	0.7
計	17.2	19.2	21.0	18.2	14.1	15.6	17.1		
販 賣 價 格		58.9	58.7	56.5	62.1	52.5	56.2	62.0	
都 賣 段 階	費 用	包 裝	0.5	0.5	0.4	0.5	0.5	0.5	1.0
		輸 送	0.7	0.5	1.0	0.4	0.6	0.5	0.9
		下 車	0.2	0.2	0.2	0.2	0.1	0.2	0.3
	計	1.4	1.2	1.6	1.1	1.2	1.2	2.2	
收 益		12.8	14.3	14.5	10.7	10.8	10.3	10.8	
販 賣 價 格		73.1	74.2	72.6	73.9	64.5	67.7	75.0	
小 賣 段 階	費 用	輸 送	1.5	1.4	1.5	1.4	2.0	1.8	1.4
		包 裝	0.4	0.4	0.4	0.4	0.5	0.5	0.4
		減 耗	3.6	3.5	3.7	3.5	4.8	4.3	3.4
	計	5.5	5.3	5.6	5.3	7.3	6.6	5.2	
	收 益		21.4	20.5	21.8	20.8	28.2	25.7	19.8
小 賣 價 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 成培永, 前掲書, p.34.

한편 제주産百合(외)에 대하여 農家段階(생산자 → 서울위탁상)의 유통비용을 보면 (표 40)과 같다. 1986.12月的 백합(외) 40단의 1 Box에 대한 경비를 조사한 것이다. 이때 서울의 都賣價格은 1 Box 당 130,000 원이었으므로 유통비용 39,400 원을 빼면 農家受取價格은 90,600 원이 되고 있다. 도매가격에 대한 마진율은 30%로서 감귤의 그것과 비슷하다.

( 표 40 ) 切花 ( 百合 ) 의 都賣段階 流通마진

구 분	내 용	금 액 ( 원 )	구성비 ( % )
농가단계의 유통비용	채 화 · 선 별 · 포장	3,000	7.6
	수 송	2,850	7.2
	제 제 료 ( Box 대 등 )	1,050	2.7
	수 수 료	19,500	49.5
	감 모	13,000	33.0
	계	39,400	100.0

주 : 1986.12, 백합 ( 외 ) 1 Box ( 40 단 ) 도매가격 130,000원 ( 서울 ), 본연구 조사결과

( 10 ) 流通助成機能

1) 流通情報

정확한 유통정보는 생산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하여 누구에게 판매하면 가장 유리한가를 알려주고 상인들에게는 효율적인 市場活動에 도움을 주며 商行爲上의 여러 위험을 분산시켜 줌으로써 적은 마진으로도 상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상품의 구입을 가능하게 한다. 즉 流通情報機能이 效率的으로 수행될 경우 각 유통주체는 가장 합리적으로 意思決定을 내릴 수 있으며 公正한 去來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花卉類의 유통정보활동을 보면 아직까지 政府 · 公共機關 및 농민단체에서 유통정보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 사단법인 ) 한국화훼협회에서 발행되는 月刊誌 「화훼협회보」와 기타 종묘회사에서 발행하는 몇몇 책자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유통정보가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정보의 배포가 회원에게만 제한되어 있을뿐 아니라 月刊誌이기 때문에 시사성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利用度가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농축수산 유통연구원이 발행하고 있는 주간지 「농축수산유통정보」에서 주요 화훼류의 가격동향 및 이에 대한 해설 등을 취급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생산농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통정보의 내용을 보면 ( 표 41 ) 都賣價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 47.1 % ) 그외에 前日의 價格, 市場搬入現況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서울, 경상도 지역은 植付面積 및 作況에 대한 관심이 각각 28.6 %, 38.8 %로 높게 나타나는데 비하여 제주도는 이에 대한 反應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다른 경쟁지역의 식부면적이거나 作況에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제주지역 화훼생산농가의 가격정보 취득방법을 보면 ( 표 42 ) 주로 상인 ( 50 % ) 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화훼협회 등 생산자조직이 되고 있다.

( 표 41 ) 流通情報의 重要內容 ( 切花 )

區 分	植付面積 및 작 況	小 賣 價 格	市 場 搬 入 現 況	前 日 價 格	日 氣 豫 報	技 術 情 報	都 賣 價 格	計
서 울	28.6	-	28.6	10.7	-	-	32.1	100.0
총 청	-	-	-	11.8	-	-	88.2	100.0
전 라	10.4	-	17.2	-	-	17.2	55.2	100.0
경 상	38.8	27.8	6.5	14.8	-	2.8	9.3	100.0
계 주	-	-	22.9	22.9	1.4	5.7	47.1	100.0
평 균	21.0	12.0	14.3	14.7	0.4	4.8	32.8	100.0

資料 : 成培永, 前掲書, p.84.

( 표 42 ) 流通情報 取得方法

구 分	상 인	이 웃	메 스 킴	화 회 협 회 등 생 산 자 조 직	계
비 중 %	50	10	10	30	10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2) 等級 및 包裝

포장과 등급은 상품을 취급하는데 편리하도록 一定單位로 하여주며 流通中 物量損失이나 손상도 막아준다. 또한 거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여 주며 상품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여 주어 상품성을 높여 보다 나은 가격을 받게 한다.

그런데 切花類의 등급과 포장에는 일정한 규격이 없고 生産地와 消費地의 등급이 다를수도 있다. 물론 시장거래상 등급을 구분하지만 정확한 기준설정이 어렵고 신선도, 개화정도, 꽃잎의 색깔, 개화상태에 따라 上中下로 상품간 상대적 구분을 하며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등급이 높았던 상품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선도가 떨어져 中下品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 표 43 )은 商人調査에서 밝혀진 切花의 等級과 規格에 대한 慣行을 나타낸 것인데 “질어”에서는 구분되지만 狀態面에서 꽃 고르고 깨끗등 그 기준이 모호해 화훼성질상 表만 보고서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럼으로써 가격설정은 委託商의 主觀的인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本道의 切花類는 모두가 골판지 상자를 이용하고 있는데 規格品 사용여부를 알아본 결과

90%가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選別時 등급기준은 생산자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구분을 75%가 하고 있고 나머지 25%는 시장(상인)측이 원하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등급기준은 생산자 나름의 주관과 상인 나름의 주관으로二元化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결과 생산자의 등급에 따른 수량과 판매자(상인)의 등급에 따른 수량간에는 20% 内外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부록 4에서 日本의 출하규격을 참고할 것)

( 표 43 ) 대표적인 切花 5種의 市場 慣行上 等級과 規格

등 급	튜울립 (판매단위: 10송이)			글라디올러스 (판매단위: 10대)			장미 (판매단위: 10송이)			카네이션 (판매단위: 20송이)			국화 (판매단위: 10송이)		
	규격		판매)가 가격 (원)	규격		판매)가 가격 (원)	규격		판매)가 가격 (원)	규격		판매)가 가격 (원)	규격		판매)가 가격 (원)
	길이	상태		길이	상태		길이	상태		길이	상태		길이	상태	
상	30cm 이상	꽃크고 병반 없음	4,000	100cm 이상	대꺾고 깨끗	8,000	60cm 이상	꽃크고 깨끗	3,000	50cm 이상	꽃크다	3,000	60cm 이상	꽃크고 단정	3,000
중	20~ 30cm	꽃크고 병반 없음	3,000	80~ 100cm	굵기중 정도 깨끗	6,000	40~ 60cm	꽃크고 깨끗	2,000	30~ 50cm	꽃中	2,000	40~ 60cm	꽃中 깨끗	2,000
하	10~ 20cm	대가늘 고 병 반없음	2,000	50~ 80cm	대가늘 고깨끗	4,000	20~ 40cm	대가늘 고깨끗	1,000	20~ 30cm	꽃小	1,000	30~ 40cm	꽃小 대가 늘다.	1,000
등 외	10cm 이하	병반 있음	1,000	50cm 이하	바이러 스병반	2,000	없음	농장 에서 파기		20cm 이하	꽃 빈약	500	30cm 이하	대가 늘고 휘어 짐 병반 있음	500

註 1) 판매가격은 1982년 12월 현재 점포도 上品도매가격임.

2) 단위, 규격, 등급기준은 상인조사와 농가조사에서 밝혀진 자료임.

資料: KREI 刊行, 農林經濟 (제 6 권 2 호). 1983.6, p.91.

### 3) 수송 및 저장

서울 花卉市場의 開場時間은 오전 5시이고, 폐장시간은 오후 5시로서 1日 12시간 영업하고 있으며 地方에서의 꽃 반입시간을 보면 제주와 김해지역에서 보내는 항공편의 것은 오후 6~8시경에 시장에 반입되어 저녁에 진열작업이 이루어지며 남부지방이라 하더라도 기차편(전라도 및 마산지방)으로 보내어지는 것은 밤이나 새벽에 도착하므로 중부지방 물량과 함께 開場直前에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다.



切花는 신선도가 중요하여 생산농가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3~8일 이내에 판매되어야 하고 수명연장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데 生産地나 販賣地(도매시장)에는 저장 내지 보관을 위한 냉장고 등의 시설이 공히 아직 없다. 다음(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장고에 보관할 경우 약 2배정도 수명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재 도매시장에서는 수명연장을 위한 방법으로 상인들은 새벽이나 밤늦게 물량이 도착하면 더운 물에 담그는 “물올리기”를 하고 있는 정도이다.

( 표 44 ) 切花의 適正貯藏溫度 및 期間

品 目	平 當 溫 度 保 管 期 間 <sup>2)</sup>	貯 藏 庫 <sup>1)</sup>	
		適 溫	貯 藏 期 間
국 화	7 ~ 8 일	2 C	14 일
카 네 이 션	3	5	7
장 미	2 ~ 3	2 ~ 5	7
튤 울 립	2 ~ 3	0 ~ 2	14
글 라 디 올 러 스	5	2	14
백 합	6	2	30
후 리 지 아	3	0 ~ 3	14
다 알 리 아	2 ~ 3	5	7 ~ 10
아 이 리 스	4	5	7 ~ 10
칼 라	4	5	10
금 잔 화	3	5	3 ~ 6
금 어 초	3	5	3 ~ 6
스 토 크	2	5	3 ~ 6
수 선	3	0 ~ 2	14
양 란 꽃	3 ~ 4	7 ~ 10	7
아 스 파 라 가 스	2 ~ 3	5 ~ 7	7 ~ 10

註 : 1) 關係溫度 80% 정도 유지

2) 平常溫度 保管期間은 商人調查值임.

資料 : 農漁村開發公社, 「花卉流通資料便覽」, 1983.1

(11) 商的 流通機能

1) 去來方法

앞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切花類의 商人들은 法的으로는 당국으로부터 小賣商 許可를 받은 小賣商들이나 현실적으로는 都賣行爲를 하고 있는 類似都賣商들이다. 이들의 市場運營은 公開 競爭的인 競賣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농가가 출하한 상품을 委任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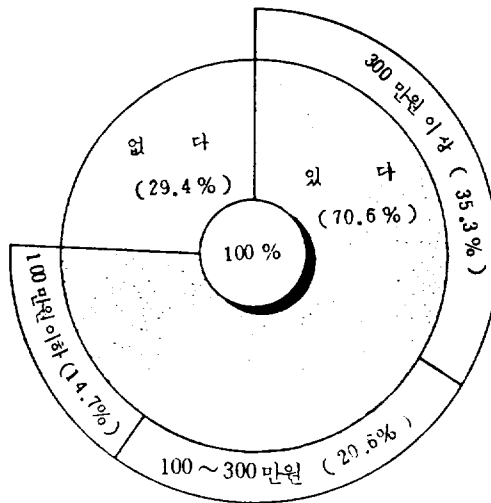
판매해 주는 위탁판매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생산물의 수집·증계·분산 기능이 未分化되어 있어 不公正 價格이 形成될 소지가 많다. 더욱이 이들은 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여 小賣行爲도 하고 있어 정해진 수수료 뿐 아니라 小賣行爲에 따른 差益收入도 올리고 있다.

또한 판매수수료는 청과물 도매시장의 수수료인 7~8% 보다 두배가 높은 15~20%가 되고 있지만 수송비, 폐기물 및 감모분까지 일체의 비용 및 위험부담은 생산농가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상인(例, 남대문의 대도상가, 강남의 터미널 상가 및 코베트 상가)들은 물량확보, 거래방법의 안정화 수단으로 한 商人이 농민 5~8명에게 영농자금 형식으로 先貸해 주고 있으며 농가는 자금을 제공한 상인에게 全量 委託販賣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행수수료 15%에 5%를 더 加算하여 20%씩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농가들의 都賣商 先渡資金 利用實態(農開公調査)를 보면(그림 18) 생산농가의 70.6%가 先渡資金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보면 300만원 이상 이용하고 있는 농가는 35.3%나 되고 있다.

〈그림 18〉 都賣商人의 先渡資金 利用實態



註：農開公, 유통조사월보, 1986.8, p.12.

판매대금의 결제는 精算書와 함께 생산농가에 전달되는데 성수기에는 평균 5-6일이나 비절기에는 거의 1주-10일 간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제주도 생산농가들의 실제 판매대금 회수기간을 조사해 보았더니(표 45) 3주내가 45%로서 가장 많고 4주 이상도 40%나 나타나고 있어 상인쪽에서 이야기하는 정산기간과 실제 정산기간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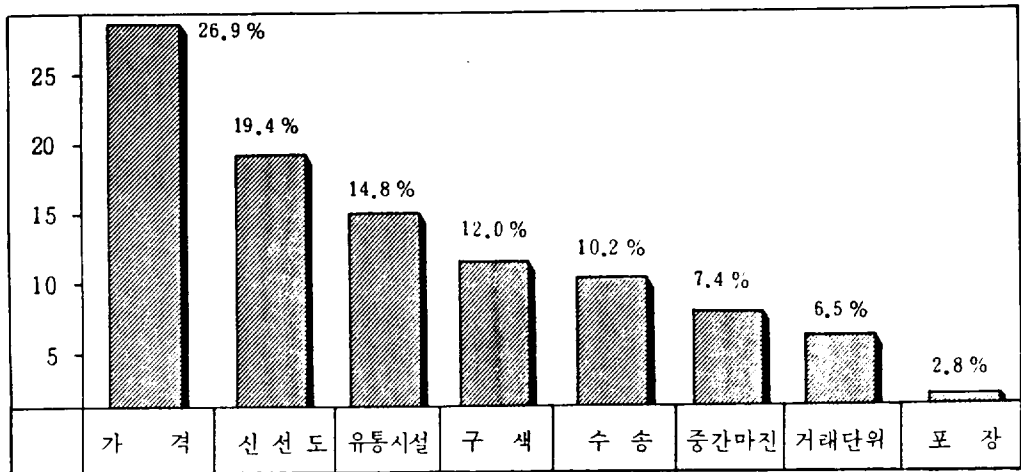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으로써 생산농가와 도매상간의 不信으로 신용있는 유통 환경이 못되고 있다. 즉 생산자, 상인 그리고 소비자가 공인할 수 있는 거래체계가 못되고 있다. 어떠한 생산농가는 상인이 보낸 精算書를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고 상인의 등급 및 가격조작으로 생산자와 상인간에 시비가 자주 일고 있다. 더우기 상인들은 이전 거래에서 등급 및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번 거래에서는 높게 정하고 또 생산농가가 販賣現場에 있을 때는 가격과 등급을 본래보다 낮게 판매하여 생산농가에 가격과 등급 파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렇게 생산자와의 불신문제 뿐만 아니라 都賣商과 小賣商間의 문제점도 다음 <그림 19>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sup>33)</sup> 즉 전체응답자 중 26.9%가 위탁상인들의 가격조작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선도 유지가 19.4%, 유통시설 근대화 14.8% 順으로 나타났다.

( 표 45 ) 판매계산서 송달 및 대금정산기간

구 분	1 주 내	2 주 내	3 주 내	4 주 이상	계
비 중 %	5	10	45	40	100.0

주 : 본연구 조사결과

<그림 19> 小賣商이 보는 花卉流通의 問題點



註 : 農開公, 유통조사월보, 1986.8, p.12.

33) 農開公; 前掲書 p.10.

2) 價格決定

切花價格은 品目에 따라 千차만별이고 같은 品目이더라도 등급·개화정도 또는 상태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파악이 대단히 어렵다. 그렇지만 例컨대 서울 코베트 시장의 상인들은 5 - 10 年の 經驗을 가지고 있어 그날의 物量과 需給狀態를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당일의 需給原理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상인들은 구매자가 소매상과 일반소비자이냐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결정한다. 그러면 시장구조적인 측면에서 가격형성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切花都賣市場構造를 볼 때 小數의 商人과 多數의 구매자로 특징지워지지만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34)</sup>

- ① 서울지역 切花都賣市場價格이 전국 절화시장가격을 선도하고 있으며,
  - ② 서울 지역에서도 남대문 대도시장과 강남 꽃상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고 나머지 시장들은 위 두 시장에서 공급을 받거나 가격 精算時 두 시장에 준하고 있다.
  - ③ 위 두 시장은 지리적으로도 버스로 10分 内外의 거리에 있으며 상인들은 원래 대도시장 상인이었던 것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성격면에서도 동일하다.
  - ④ 상인들은 그들의 主去來 花種이 있고 나머지 花種에 대해서는 구색을 갖추는 정도이다.
  - ⑤ 각 花種間에는 商品的 差異는 있지만 그 代替性이 매우 높고,
  - ⑥ 同一花種을 취급하는 상인은 多數이지만 암묵적인 가격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 ⑦ 他花種 商人들 사이에도 어느정도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 성격을 지닌 단체가 구성되고 있다.
  - ⑧ 각 상인은 농가 先貸資金 대여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상인의 진입은 어렵지만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니다.
  - ⑨ 시장유통정보는 정확히 제공하는 곳이 없으므로 각기 그들의 경험에 의존한다.
  - ⑩ 이들 상인들은 委託商이므로 위탁수수료를 그 주수입으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위탁수수료는 15%이지만 전도금을 사용한 농가의 경우는 이자율을 加算한 20%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폐기·감모율 등을 계산하고 또한 小賣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取得마진은 30% 이상 되고 있다.

34) 韓政奎：花卉需要 및 市場構造 分析 (서울大 大學院), 1986, pp.55 ~ 56.

## V. 花卉類의 輸出入動向

### 1. 輸出入概況

#### (1) 輸 出

주지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農産物輸出은 生絲輸出에 의해서 主導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양송이 통조림을 중심으로 한 農産物 통조림과 畜産物의 수출이 늘어남으로써 수출상품은 다소 다양해지고 있다. 그 내용을 극히 개략적으로 살펴보면(1985年을 중심으로) 調製食料品 23.8%, 畜産物 15.2%, 生絲類 12.2% 등으로 구성되고 있어 한때(1975) 57.8%를 차지했던 生絲類는 계속 감소 추세이고 1975年 5.1%에 불과했던 調製食料品이 급성장을 보이고 있고 또한 果實類도 1.5%에서 3.7%로 뚜렷한 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85年 현재 농산물 수출액은 164百萬\$로서 總輸出額의 0.5%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78年의 281.2百萬\$을 頂點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sup>35)</sup>

한편 花卉類의 輸出動向을 보면(1985) 2,620千\$로서 1977年에 비해 약 2.5배의 증가를 가져왔다(표46). 이를 종류별로 보면 1985年 현재 切枝切葉이 89.2%로 대부분이며 그의 苗木類(3.9%), 種子(6.5%) 등이 차지하고 있다. 1977年이래 증가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種子類이고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苗木類가 되고 있다.

( 표 46 ) 農産物 및 花卉類 輸出實績 (1975-85)

	總輸出	農産物	構成比	花 卉 類				
				球根類	苗木類	切花類	切枝切葉	種 子
	百萬\$	百萬\$						
1975	5,003	208.8 (100.0)	4.2	-	-	-	-	-
1976	7,715	176.1 (100.0)	2.3	-	-	-	-	-
1977	10,046	275.3 (100.0)	2.7	1,062(100.0) (0.4)	7 (0.6)	123 (11.5)	11 (1.0)	913 (85.9)
1978	12,711	281.2 (100.0)	2.2	3,246(100.0) (1.2)	-	251 (7.7)	32 (1.0)	2,945 (90.7)
1979	15,065	266.0 (100.0)	1.8	2,152(100.0) (0.8)	-	173 (8.0)	22 (1.0)	1,946 (90.4)
1980	17,505	225.0 (100.0)	1.3	2,836(100.0) (1.3)	-	191 (6.7)	28 (1.0)	2,594 (91.4)

35) 우리나라의 主要 輸出品目은 主市場이 日本과 美國등에 편중되어 왔고 한편에서는 즉 中共, 홍콩, 自由中國등의 강력한 수출경쟁국들이 싼 가격으로 物量爲主의 수출을 강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總輸出	農產物	構成比	花 卉 類					
				球根類	苗木類	切花類	切枝切葉	種 子	
1981	20,993	182.0 (100.0)	0.9	2,649(100.0) (1.4)	-	55 (2.1)	25 (0.9)	2,524 (95.2)	45 (1.7)
1982	21,616	154.8 (100.0)	0.7	2,131(100.0) (1.4)	-	95 (4.4)	4 (0.2)	2,001 (93.9)	31 (1.4)
1983	24,223	154.6 (100.0)	0.6	2,369(100.0) (1.5)	-	53 (2.2)	12 (0.5)	2,278 (96.1)	26 (1.1)
1984	29,245	216.8 (100.0)	0.7	2,955(100.0) (1.4)	-	59 (2.0)	103 (3.5)	2,681 (90.7)	112 (3.8)
1985	30,283	164.0 (100.0)	0.5	2,620(100.0) (1.6)	-	103 (3.9)	11 (0.4)	2,336 (89.2)	170 (6.5)

註：( )는 構成比

資料：輸出統計年報 ( 商工部 )，農水產部：農政主要指標，1986.

② 輸 入

한편 수입에 있어서는 ( 표 4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수입액이 1975 年의 7,274 百萬 \$ 에서 1985 年에는 31,136 百萬 \$ 로 328.0 %가 증가함으로써 農產物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전체 수입액의 5.8 %로 낮아졌다.

( 表 47 ) 農產物 및 花卉類 輸入實績 ( 1975 - 85 )

	總輸入	農產物	構成比	花 卉 類					
				球根類	苗木類	切花類	切枝切葉	種 子	
1975	百萬 \$ 7,274	1,021 (100.0)	14.0	-	-	-	-	-	
1977	81	-	-	千 \$ 10 (12.3)	千 \$ 28 (34.6)	千 \$ 2 (2.5)	千 \$ 9 (11.1)	千 \$ 32 (39.5)	
1978	143	-	-	9 (6.3)	25 (17.5)	4 (2.8)	11 (7.7)	94 (65.7)	
1979	685	-	-	千 \$ 143 (20.9)	150 (21.9)	20 (2.9)	197 (28.7)	175 (25.5)	
1980	22,292	2,233 (100.0)	10.0	1,123(100.0) (0.05)	597 (53.2)	148 (13.2)	100 (8.9)	24 (2.1)	254 (22.6)
1981	26,131	1,165 (100.0)	4.5	2,120(100.0) (0.2)	508 (24.0)	1,237 (58.3)	64 (3.0)	33 (1.6)	278 (13.1)
1982	24,251	1,918 (100.0)	7.9	3,146(100.0) (0.2)	611 (19.4)	2,002 (63.6)	21 (0.7)	64 (2.0)	448 (14.2)
1983	26,192	2,138 (100.0)	8.2	3,932(100.0) (0.2)	860 (21.9)	2,358 (60.0)	38 (1.0)	99 (2.5)	577 (14.6)
1984	30,631	2,098 (100.0)	6.8	3,542(100.0) (0.2)	842 (23.8)	1,698 (47.9)	47 (1.3)	138 (3.9)	817 (23.0)
1985	31,136	1,814 (100.0)	5.8	3,697(100.0) (0.2)	1,237 (33.4)	1,396 (37.8)	3 (0.1)	147 (4.0)	914 (24.7)

註：( )는 構成比

資料：農水產部，農政主要指標，1986. 關稅廳，貿易統計年報.

花卉類의 輸入은 1980年 以前만 하더라도 극히 저조한 실적이었으나 (77年 81千\$, 78年 143千\$, 79年 685千\$) 1980年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1981년에는 2,120千\$로서 1977년에 비해 무려 26.2배나 증가하였다. 그럼으로써 1982年 이후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1985年 현재 輸入品目構成을 보면 苗木類 37.8%, 球根類 33.4%, 種子 24.7%로서 그 主從을 이루고 있다. 특히 苗木類 및 球根類의 수입증대가 뚜렷하다.

## 2. 國別·品目別 輸出入 實績

### (1) 國別·品目別 輸出

우리나라는 1985年 현재 花卉類 輸出額은 2,620千\$이나 輸入額은 3,697千\$로서 1,077千\$의 赤字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선 主要 花卉 貿易對象國家와 그 品目を 보면 (표 48 및 표 49) 다음과 같다.

( 표 48 ) 國別 輸出實績 (1985)

單位 : 千\$

國別	品目別	計	球根類	苗木類	切花類	切枝切葉	種子
計		2,620(100.0) (100.0)	—	103 (3.9)	11 (0.4)	2,336(89.2)	170 (6.5)
日 本		2,369(100.0) (90.4)	—	29 (1.2)	3 (0.1)	2,167(91.5)	170 (7.2)
화 란		65(100.0) (2.5)	—	65(100.0)	—	—	—
미 國		121(100.0) (4.6)	—	—	6 (5.0)	115(95.0)	—
기 타		65(100.0) (2.5)	—	9( 13.8)	2 (3.1)	54(83.1)	—

註 : ( )는 構成比

資料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農水産部

( 丑 49 ) 主要品目別, 國別 輸出實績

	'83	'84	'85	國 別
合 計	\$ 2,369,037(100.0)	\$ 2,955,739(100.0)	\$ 2,619,324(100.0)	
球 根 類	-	-	-	
苗 木 類	53,006(2.2) (100.0)	59,572(2.0) (100.0)	103,071(3.9) (100.0)	
선 인 장	50,250 (94.8)	54,240 (91.0)	50,282 (48.8)	화란
목 단 묘	2,631 (5.0)	5,332 (9.0)	5,282 (5.1)	일본
대 나 무	-	-	21,189 (20.6)	화란, 일본, 불란서
회 양 목	-	-	8,333 (8.1)	일본
기 타	125 (0.2)		18,235 (17.7)	
切 花 類	12,918(0.5) (100.0)	103,464(3.5) (100.0)	10,812(0.4) (100.0)	
카 네 이 션	3,076 (23.8)	50,106 (48.4)	800 (7.4)	미국, 일본, 싱가포르
국 화	3,500 (27.1)	8,808 (8.5)	2,197 (20.3)	일본, 미국
작약, 장미	4,902 (37.9)	44,550 (43.1)	3,156 (29.2)	미국, 대만
백 합	-	-	2,167 (20.0)	미국
기 타	1,440 (11.1)	-	2,492 (23.0)	이스라엘
切 枝 切 葉	2,272,586(96.0) (100.0)	2,681,567(90.7) (100.0)	2,335,447(89.2) (100.0)	
소 재 류	2,041,839 (89.8)	2,549,560 (95.0)	2,220,475 (95.1)	일본, 대만, 미국
스 테 비 아	168,881 (7.4)	35,325 (1.3)	-	일본, 인도네시아
기 타	56,366 (2.5)	96,682 (3.6)	114,972 (5.1)	일본, 대만, 미국
花 草 種 子	30,527(1.3) (100.0)	111,136(3.8) (100.0)	169,994(6.5) (100.0)	
코 스 모 스	1,716 (5.6)	12,011 (10.8)	5,196 (3.1)	일본
제 비 꽃	19,233 (63.0)	22,685 (20.4)	60,088 (35.3)	일본
페 튜 니 아	-	-	8,266 (4.9)	일본
달 맛 이 꽃	-	-	20,388 (12.0)	일본
패 랭 이	-	-	6,154 (3.6)	일본
기 타	9,578 (31.4)	76,440 (68.8)	7,902 (4.6)	일본

註: ( )는 構成比  
資料: 農水産部



全體輸出額의 90.4%를 차지하는 나라가 日本으로서 그 主要品目은 切枝切葉(91.5%)인데 주로 소재류가 되고 있으며 그외 주요 品目으로는 種子類(7.2%)가 되고 있다(주요 種子는 제비꽃, 달맞이꽃, 페튜니아 등이다). 다음은 美國으로서(4.6%) 주요 品目은 日本과 마찬가지로 切枝切葉(95.0%)의 소재류이다. 그리고 花란에는 총수출액의 2.5%이나 주요 品目은 苗木類(100%)로서 선인장(48.8%), 대나무(20.6%) 등이다.

(2) 國別·品目別 輸入

우리나라는 1985年 現在 日本(45.1%), 花란(34.1%), 대만(6.5%), 인도네시아(4.0%), 미국(3.8%) 등이 主要 輸入對象國이 되고 있으며 그외 국가로는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이 되고 있다(표 50).

(표 50) 國別 輸入實績(1985)

單位:千\$

品目別 國別	計	球根類	苗木類	切花類	切枝切葉	種子
計	3,697(100.0) (100.0)	1,237(34.5)	1,396(37.8)	3(0.1)	147(4.0)	914(24.7)
일 본	1,666(100.0) (45.1)	222(13.3)	795(47.7)	-	29(1.7)	620(37.2)
대 만	241(100.0) (6.5)	43(17.8)	178(73.6)	-	8(3.3)	12(5.0)
화 란	1,260(100.0) (34.1)	971(77.1)	168(13.3)	-	-	121(9.6)
미 국	139(100.0) (3.8)	1(0.7)	5(3.6)	-	2(1.4)	131(94.2)
태 국	5(100.0) (0.1)	-	3(60)	-	-	2(40)
필 리 핀	48(100.0) (1.3)	-	43(89.6)	-	5(10.4)	-
인도네시아	147(100.0) (4.0)	-	130(88.4)	-	13(8.8)	4(2.7)
호 주	19(100.0) (0.5)	-	1(5.3)	-	-	18(94.7)
뉴질랜드	7(100.0) (0.2)	-	-	-	7(100.0)	-
기 타	165(100.0) (4.5)	-	73(44.2)	3(1.8)	83(50.3)	6(3.6)

註:( )는 構成比

資料:關稅廳, 貿易統計年報, 農水産部

또한 수입되는 品目을 우선 類別로 보면 苗木類(37.8%), 球根類(34.5%), 種子(24.7%), 切枝切葉(4.0%), 切花類(0.1%) 順이 되고 있다. 이를 品目別로 살펴보면 다음(표 51)과 같다.

球根類는 튜울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아이리스 등이 花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 丑 51 ) 主要品目別 · 國別 輸入實績

	'83	'84	'85	國 別
合 計	3,932,989(100.0)	3,542,007(100.0)	3,696,618(100.0)	
球 根 類	860,001(21.9) (100.0)	841,802(23.8) (100.0)	1,237,335(34.5) (100.0)	
튜 울 립	243,383 (28.3)	233,025 (27.7)	314,475 (25.4)	화란, 일본
글라디올러스	190,994 (22.2)	399,767 (47.5)	298,226 (24.1)	화란, 일본
백 합	19,305 (2.2)	29,168 (3.5)	187,226 (15.1)	화란, 일본
아 이 리 스	-	-	194,313 (15.7)	화란, 일본
하 아 신 스	-	-	39,283 (3.2)	화란, 일본
수 선	-	-	22,275 (1.8)	화란, 일본
난 초 류	-	-	21,468 (1.3)	일본, 대만
칸 나	-	-	12,155 (1.0)	일본, 화란
기 타	406,319 (47.2)	179,842 (21.4)	147,494 (11.9)	일본, 화란
苗 木 類	2,401,951(61.1) (100.0)	1,697,550(47.9) (100.0)	1,395,544(37.8) (100.0)	
소 철	763,301 (31.8)	454,638 (26.8)	123,725 (8.9)	일본, 대만
행 운 목	77,385 (3.2)	570,629 (33.6)	126,136 (9.0)	인도네시아
관 음 죽	206,956 (8.6)	57,980 (3.4)	31,752 (2.3)	일본
카 네 이 셴	-	-	169,387 (12.1)	화란, 일본, 불란서, 이태리
난 초 류	-	-	165,875 (11.9)	일본, 대만
구르마니아	-	-	79,423 (5.7)	화란, 일본
안 개 초	-	-	84,877 (6.0)	일본
기 타	1,354,309 (56.4)	614,308 (36.2)	614,369 (44.0)	일본, 불란서, 필리핀
切 花 類	38,109(1.0) (100.0)	46,904(1.3) (100.0)	3,027(0.1) (100.0)	
양 란	13,611 (35.7)	13,990 (29.8)	-	태국, 미국
기 타	24,498 (64.3)	32,914 (70.2)	3,027 (100.0)	브라질, 대만, 미국
切 枝 切 葉	56,065(1.4) (100.0)	138,136(3.9) (100.0)	146,683(4.0) (100.0)	
분재 잡목	7,757 (13.8)	3,565 (2.6)	-	일본
이끼류	-	-	22,858 (15.6)	뉴질랜드, 필리핀

	'83	'84	'85	國 別
스테비아	-	-	74,154 (50.1)	중공
관음죽	-	-	4,045 (2.8)	인도네시아
기 타	48,308 (86.2)	134,571 (97.4)	45,626 (31.1)	일본, 사우디, 필리핀
種 子 類	576,863(14.7) (100.0)	817,565(23.1) (100.0)	914,029(24.7) (100.0)	
페튜니아	-	-	106,101 (11.6)	미국, 일본
군자란	11,587 (100.0)	44,728 (100.0)	61,454 (6.7)	화란, 일본
제비꽃	-	-	83,054 (9.1)	일본
금잔화	-	-	77,907 (8.5)	일본, 미국
시클라멘	-	-	35,725 (3.9)	화란
스토크	-	-	25,925 (2.8)	일본
금어초	-	-	23,537 (2.6)	일본, 화란
과꽃	-	-	19,780 (2.2)	일본
살비아	-	-	15,960 (1.7)	화란, 일본
봉선화	-	-	13,390 (1.5)	일본
기 타	-	-	451,196 (49.4)	대만, 미국

註 : ( )는 構成比  
資料 : 農水産部

苗木類는 소철 (일본, 대만), 행운목 (인도네시아), 카네이션 (화란, 일본, 불란서, 이태리), 난초류 (일본, 대만), 기타이고,

切枝切葉은 스테비아 (중공), 이끼류 (뉴질랜드, 필리핀), 관음죽 (인도네시아), 기타순이 되고 있다. 그런데 스테비아는 '83, '84년까지만 해도 일본, 인도네시아에 수출되던 품목이 이제는 수입품목이 되고 있음에 주목된다.

種子類는 주로 日本, 화란, 미국, 대만으로부터 페튜니아, 제비꽃, 금잔화, 봉선화 등이 수입되고 있다. 특히 화란과의 花卉類 貿易動向을 보면 (1985) 수출액은 65千\$에 지나지 않으나 수입액은 1,260千\$에 달하고 있어 逆調現象이 뚜렷한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인장, 대나무 등 少量 수출에 불과하나 球根類를 주로 수입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은 主要 輸出入 對象國 특히 日本을 中心으로 하여 花卉類의 生産·輸出入 動向을 살펴보기로 한다.

## VI. 關係國의 花卉事情

### 1. 日本

#### (1) 序

農林水産省 果樹花卉課 調査에 의하면 花卉生産額은 1975 年의 1,400 억엔에서 1984 年에는 4,000 억엔으로 증가되었으며 농업총생산액 11 兆円의 3.5 %를 차지하여 이는 果實生産額의 2 분의 1, 野菜生産額의 5 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sup>36)</sup>

花卉의 流通은 日本 全國에 花卉市場이 中央都賣市場, 地方都賣市場 등을 모두 합하여 361 市場이 있어 切花의 90 %, 盆花의 30 % 정도가 이 화훼시장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고 기타의 화훼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都小賣商 또는 大量需要者와 直去來되고 있다.

일본의 花卉輸出入狀況을 보면 수출은 1970 年代初 이후 계속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1973 年 이후 急伸長하고 있다. 특히 切花의 경우로 1971 年에 비하여 1984 年에는 數量面에서 78 배, 금액면에서 67 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sup>37)</sup>

花卉의 主要 輸入對象國으로는 대만 (切花 1,412 t, 切枝切葉 등 2,208 t, 총수입 11 억엔), 태국 (切花 990 t, 총수입액 18 억엔), 미국 (切花 297 t, 切枝切葉 145 t, 총수입 9 억엔), 싱가포르(切花 110 t, 총수입 4 억엔), 호주 (切花 36 t, 총수입 1 억엔) 등이고 主要輸出對象國으로는 미국 (切枝切葉 등 30 t, 切花 1 t, 수출액 7 千만엔), 호주 (切枝切葉 등 8 t, 수출액 3 千만엔), 싱가포르 (切花 5 t, 수출액 2 千만엔), 香港 (切花 4 t, 수출액 14 萬엔) 등이다.

특히 日本은 한국에 대하여 1983 年 切花 1,205 kg (349 萬엔), 1984 年 切花 1,399 kg (330 萬엔)을 수출한 바 있다.

그러면 日本의 花卉事情 (생산, 유통, 수출입) 등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수출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sup>38)</sup>

36) 우리나라의 花卉生産額은 1985 年 현재 농업생산액의 0.9 % 수준이다.

37) 日本은 都市化의 進展, 住宅의 現代化 등에서 오는 정신적 安息要求의 증대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가계비중에서의 文化生活費 支出增加와 결부되어 일상생활에서의 花卉需要가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잦은 會議·宴會 등의 개최로 業務用 需要도 급증을 보이고 있어 花卉農業은 가장 유망한 산업의 하나가 되고 있다.

切花 購入狀況을 보면 1 世帯當 年間 切花購入額은 1965 年의 1,206 圓에서 1983 年에는 7,383 圓으로 되어 6 배로 증가하였다.

38) 日本에서 花卉라 하면 切花, 盆花, 盆栽, 花壇用 苗木, 花木, 球根, 잔디 및 기타 地被植物을 총칭한다. 또한 花卉統計는 切·盆花類 (切花, 盆花, 盆栽, 花壇用 苗木 包含)가 1960 年부터, 球根類는 1963 年부터, 花木類는 1970 年부터, 잔디類는 1971 年부터, 기타 地被植物은 1983 年부터 調査値가 발표되고 있다.

(2) 生産動向

日本の 花卉生産農家は 1975年 16萬戸에 달하였으나 2次에 걸친 石油波動(1973 및 1978), 세계적인 경기후퇴와 일본경제의 成長低速化에 따라 1976年 이후는 감소하였으며 1980年 代에 들어와서는 14萬戸 水準에서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다(표 52)

(표 52) 일본의 花卉生産現況(總括)

單位: ha, 戸, 억엔

年度別 區分	1960	1965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最多面積 및農家數
재배면적	6,286	8,690	20,583	36,410	32,746	34,364	34,843	34,911	35,386	37,184 (1974年)
생산농가	56,913	81,979	123,661	161,564	138,773	143,718	141,128	141,629	143,818	161,564 (1975年)
생산액	-	-	-	1,379	3,012	3,181	3,496	-	3,870	-

資料: 農林水産省, 花卉統計

또한 재배면적을 보면 1969년까지는 切·盆花類와 球根類 통계뿐이어서 이에 따르면 화훼 재배면적은 1960년의 6千ha에서 1969년에는 1萬1千ha로 倍增되었다(우리나라는 75年 1,070 ha에서 80年 2,000 ha가 됨으로써 倍增된바 있다). 1970年 이후는 花木類, 잔디類가 追加되었으며 재배면적은 1970年 2萬ha에서 1974년에는 37,000 ha로 급증을 보였으나 그후 감소하여 3萬3千ha 水準에서 推移되다가 1985年 현재 3萬5千ha를 넘어서고 있다.<sup>39)</sup> '84年의 品目別 栽培面積 比率를 보면 切·盆花類 41%, 花木類 42%, 球根類 4%, 잔디 및 地被植物類 13%이다. 또 切·盆花類中 主要品目內容을 보면(切·盆花類 計 100%로 할 때) 국화 37.0%, 카네이션 3.2%, 용담 3.2%, 장미 2.6%, 백합 2.4%, 글라디올러스 2.4%, 스토크 2.4%, 안개草 1.9%, 금잔화 1.1%, 水仙 0.9%, 프리지어 0.7%, 油菜花 0.7%, 아이리스 0.5%, 튜울립 0.4%, 기타 球根切花 1.4%, 枝物 20.8%, 葉物 2.9%, 기타 切花切葉類 15.6%로 되어 있다.<sup>40)</sup>

39) 日本은 쌀의 과잉생산 때문에 作付制限施策에 따라 논밭을 다른 作目 栽培로 轉換하고 있는데 이러한 動向이 花卉栽培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花卉栽培面積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보면 1980年 切花 露地栽培面積은 7,738 ha인데 이중 水田 轉換面積은 1,253 ha나 되고 있다.

40) 우리나라의 切花類 栽培面積 構成比率를 보면(1985) 국화 45.3%, 카네이션 13.0%, 장미 10.8%, 백합 4.4%, 글라디올러스 3.5%, 스토크 0.1%, 안개草 5.2%, 금잔화-水仙-프리지어 1.2%, 油菜花-아이리스 1.6%, 튜울립 2.5%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부 花種(국화, 카네이션, 장미등)에 集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油菜花도 중요 花種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때 제주도 特有의 油菜花에 대한 상품적 가치를 재평가해 볼만하다.

한편 재배면적 및 생산액 통계는 1960년부터 정비돼 있으나 생산량 통계는 1975년부터 정비되어 있다. 재배면적과 생산액과의 관계를 보면 1960年對比 1984年의 재배면적은 3배弱 정도 증가한데 비하여 생산액은 같은 기간중 28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액의 伸長은 物價高에서 오는 요인도 있으나 대중의 기호가 在來花에서 高級花로 바뀌어 감에 따라 꽃의 생산 cost가 상승하는데 기인되는 것이다.<sup>41)</sup>

참고로 花卉生産園地를 보면 전국적으로 약 6,000園地가 있고 규모별로는 1ha미만이 3,600園地(60%), 1~5ha 규모가 1,500園地(25%)이며 5ha 이상의 단지는 933단지(15%) 정도이다. 총 화훼단지 6,000 중에서 切·盆花園地는 약 4,000園地이며 규모별 내용을 보면 다음(표 53)과 같다.

(표 53) 規模別 切·盆花園地數(市町對數)

區 分	切 花		盆 花	計
	露 地	施 設		
1 ha 以下	808園地	962園地	1,024園地	2,794園地
1 ~ 5 ha	403	241	127	771
5 ha 以上	246	99	28	373
計	1,457	1,302	1,179	3,938

資料：農林水産省, 花卉統計, 農林統計協會, 1982年度版

### (3) 花卉의 流通

#### ① 去來形態

日本の 花卉類 流通을 보면 都賣市場經由率은 1981年 현재 78.6%가 되고 있으며 市場總取扱額은 2,557억엔이고 이중 中央都賣市場 6.6%, 地方都賣市場 84.1%, 기타시장 9.3%의 취급 share를 보이고 있어 地方都賣市場 經由가 지배적이다.

또한 去來形態를 보면 中央都賣市場인 경우 生産者 個人出荷 45.8%, 生産者任意組合 16.5%, 出荷團體 28.9%, 産地出荷業者 2.6%, 기타 6.2%가 되고 있으며 99.9%가 委託되어 99.6%가 競賣去來되고 있다(地方都賣市場의 去來形態를 보면 이상과 비슷하지만 生産者 個人出荷 66.5%, 商人 또는 商社 4.3%, 任意組合 4.5%, 協同組合 및 聯合會 20.5%, 轉送 2.6%, 기타 1.6%가 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出荷形態를 보면 任意組合

41) 생산 cost 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切花類의 카네이션 97%, 장미 97%, 안개草 93%, 프리지어 92%, 튜울립 88%, 아이리스 80%, 국화 34%, 水仙 10% 등이 施設栽培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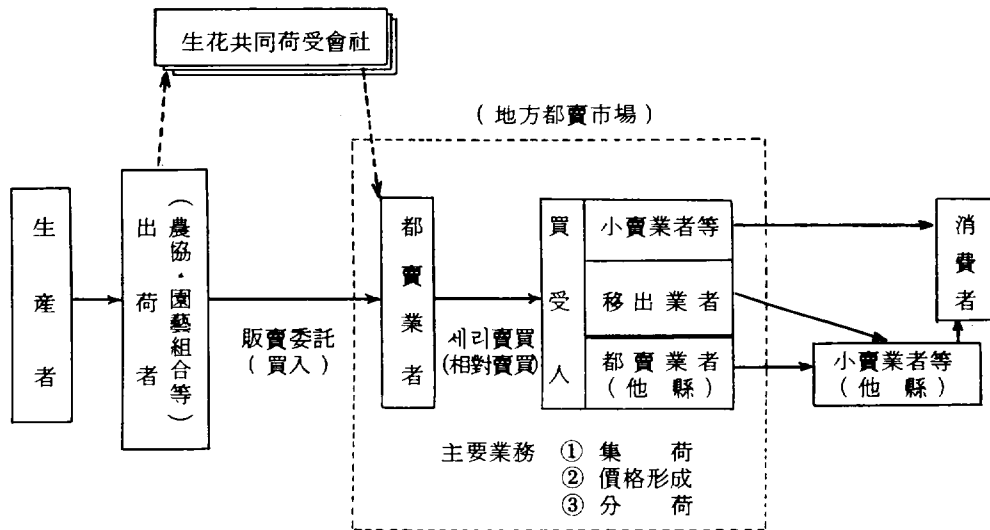
및 生産者團體 (園藝協同組合 등)의 出荷가 地方都賣市場 45.4%, 中央都賣市場 25% 수준이다.

한편 花卉生産農家は 수확한 花卉를 園藝協同組合으로 出荷하며 (花卉生産園地農家) 園協은 農林水産省이 示達한 장려규격<sup>42)</sup>에 따라 花卉를 선별 구분하고 단 보-루 상자에 100株~200株씩 넣어 포장한 후 트럭으로 화훼시장까지 운반하여 都賣業者에게 引渡한다.

포장용기는 切花의 경우 全量 段 보-루 箱子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개의 切花는 10株 또는 20株를 다발로 묶고 단 보-루 상자에 10 다발씩 넣어 포장한다 (盆花의 경우는 專用 단 보-루 상자, 數回使用이 가능한 후라워 콘테나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花卉의 流通經路를 보면 다음 <그림 20> 과 같다.

<그림 20> 切花의 流通經路



註：東京의 경우는 出荷者와 都賣業者 사이에 生花共同荷受會社가 들어감.  
資料：農林水産省, 前掲書, p.152.

42) 農林水産廳은 社團法人 日本 花卉生産協會가 정한 “카베이션의 표준규격”과 “장미의 표준규격” 및 “一般 切花의 出荷規格”의 전국적인 履行을 장려하기로 하고 1984年 4月에 카베이션의 표준규격, 장미의 표준규격 및 一般 切花의 出荷規格例를 각각 시달하였다. 이에 따르면 表示 方法은 青果物의 例에 따라 等級 (品質)을 秀, 優, 良으로 표시하고 階級 (草丈)을 2L, L, M, S (장미는 2S도可)로 표시한다. 포장방법은 段보-루 상자를 사용하며 표면에 ①品目名 ②品種名 ③色 ④規格 ⑤數量 ⑥産地名 ⑦生産者番號 또는 생산자 이름 ⑧出荷市場名을 기록하고 있다. 出荷規格에 대해서는 <附錄 2>를 참조할 것

② 價格動向

(※가격동향은 우리나라에서 수출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들 花種-국화는 대만에서 99.5%, 카네이션은 미국본토 41.4%, 이스라엘 약 30%, 장미는 이스라엘에서 약 70%를 수입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수출입향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品目別, 年次別, 月別 도매가격동향은 ※부록 5를 참조할 것).

1) 菊花

大·中輪菊의 年間取扱數量은 785 百萬株이고 취급액은 357 억엔이며, 小菊의 年間취급수량은 321 百萬株이고, 취급액은 71 억엔이다. 月別 出荷比率을 보면 <그림 21> 8-10월(3個月間에 33% 出荷)이 最盛出荷期이고 1-4월(4개월간에 25%)이 最少出荷期이다(한국은 8-10월, 3개월간에 43% 出荷되며 1-4월, 4個月間에 15% 출하하여 日本과 마찬가지로 最盛出荷期 및 最少出荷期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月別로 볼 때는 일본이 8월, 12월이 peak를 이루고 한국은 10월이 되고 있어 月別로는 차이를 보이며 특히 일본은 12월의 출하량이 8월과 같은데 이것은 日本家庭에서 新正에 국화로 실내장식하는 관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8월도 省墓에 많이 사용). 한국은 12월 出荷량이 4%이며 가격도 낮은 수준인데 1983년의 12월 가격을 보면 10송이 = 820원 ÷ 10송이 = 1송이 = 82원 ÷ 4 = 21円으로서 日本의 이때 가격은 53円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격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보여주나 문제는 品質水準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上品이 日本에서는 中·下品이 될 수 있다는 質的 水準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月別 出荷량의 변동에 따라 가격도 등락하며 1-4월의 가격이 8-9월 가격에 비하여 2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가격변동 추세는 II장의 (표 15) 및 <그림 8>을 참조하여 日本과 비교해 보면 가격변동 추세가 비슷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카네이션

年間取扱數量은 324 百萬株이고 年間取扱額は 122 억엔이다. 출하량은 입학·졸업시즌 및 어버이날 시즌인 3-5월(3個月間에 35% 출하)에 가장 많고 盛夏期인 8-9월(2個月間에 12%)과 嚴冬期인 1-2월(2個月間에 11.5%)이 가장 적다. 가격은 역시 盛需期와 減産期가 겹치는 2-3월이 가장 비싸며 6-8월이 저렴한 시기이다 <그림 21 참조>.

한국은 日本과 卒業시즌이 달라 2월에 30%를, 그리고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 30%가 출하되어 盛需期를 이루고 가격도 가장 비싸다. 日本의 2-5월 株當 平均價格 56円과 한국의 이때 平均價格 10송이 1,000원 = 1송이 160원 ÷ 4 = 40円과 비교해 보면 우선 가격면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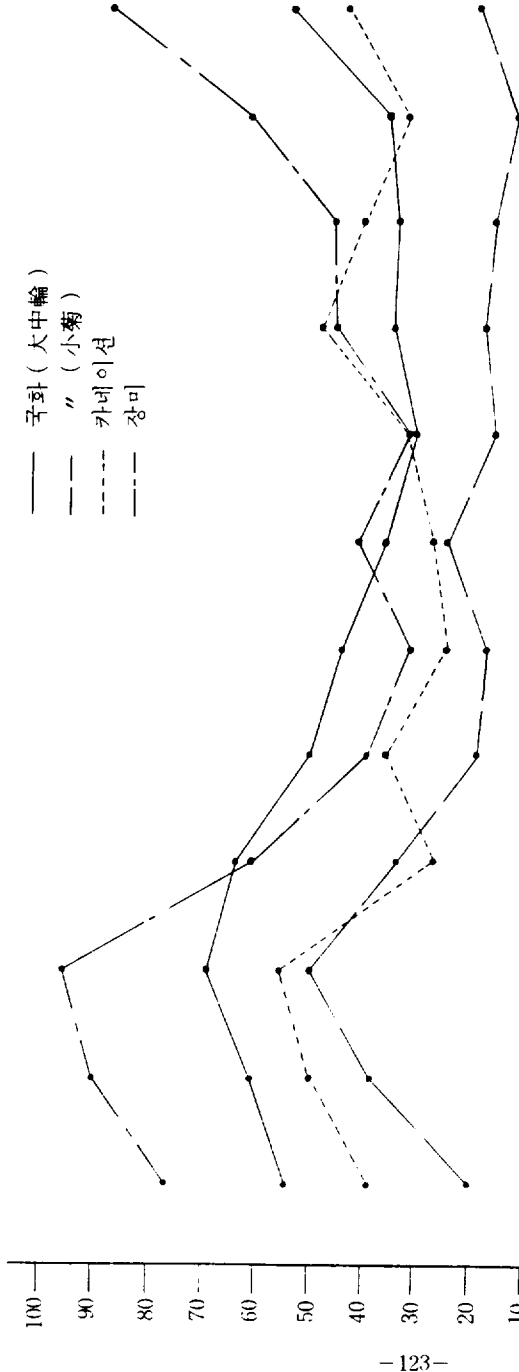
3) 장미

年間取扱數量은 204 百萬株, 年間取扱額は 111 억엔이고 월별 출하량은 5-6월과 10월



〈그림 21〉 主要切花類의 季節別 價格變動 및 出荷量 (1984)

(單位: 出荷量: %, 價格: 1 株當 円)



月別 花種別	1 月		2 月		3 月		4 月		5 月		6 月		7 月		8 月		9 月		10 月		11 月		12 月		한국의 평균가격 (1983)	10.송이 1,182 + 4	
	출하 량	가격	출하 량	가격	출하 량	가격	출하 량	가격	출하 량	가격	출하 량	가격	출하 량	가격	출하 량	가격	출하 량	가격	출하 량	가격	출하 량	가격	출하 량	가격			
大輪菊	5.4	54	5.4	61	7.7	69	6.2	63	7.1	50	7.2	43	8.7	41	12.1	30	11.0	34	10.0	33	7.7	35	11.5	53	100.0	45	30
小 菊	6.6	20	5.1	38	8.7	50	5.1	33	7.9	18	6.5	17	7.5	24	12.5	15	11.5	17	7.9	15	7.9	12	12.8	18	100.0	22	22
카네이션	5.6	38	5.9	50	9.8	56	11.5	27	13.9	36	8.3	24	7.4	27	5.8	31	6.1	48	8.3	40	9.1	32	8.3	43	100.0	37	33
장 미	4.8	77	4.6	90	6.0	96	8.7	61	11.3	39	12.2	31	8.1	36	7.0	31	8.8	45	12.0	46	9.1	62	7.4	87	100.0	87	34

資料: 日本 花卉都賣市場協會, 1984 年度 花卉生産, 流通調査, 1985. 에서 作成

(3個月 合計 35%)이 가장 많고 1-3月(3個月間에 15%)이 가장 적다.

가격은 출하량이 적은 12-3월이 가장 비싸며 6-8월의 3배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5-8월에 가격이 가장 낮고 단경기인 11-2월까지의 冬節期에 가장 높다. 출하량도 5-8월(4個月間에 50%)에 가장 많다.

그러면 일본의 12-3월의 평균가격 株當 86円과 한국의 이때 평균가격 10송이당 2,200원 1송이 220원 ÷ 4 = 55원을 비교해 보면 가격면에서는 경쟁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4) 球根類(切花)

##### ①百合

鐵砲百合의 年間 取扱數量은 36百萬株, 取扱金額은 31억엔이며 기타 백합류는 연간취급량 39百萬株, 금액 22억엔이다. 最多出荷時期는 鐵砲百合은 7-8月(2個月間에 32%), 12月(13%)이고, 기타 백합류는 4-7月(4個月間에 65%)이다. 백합의 출하가 극히 적은 時期는 1-2월의 엄동기와 9-11월의 가을이며 가격은 鐵砲百合이 기타 백합에 비하여 50% 이상 비싸며 最少出荷期인 1-2월 가격은 最盛出荷期인 7월價格에 비하여 3배 이상 비싸게 거래된다(그림 22).

##### ② 튜울립

튜울립의 年間 取扱數量은 27百萬株, 15억엔이며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出荷되고 6-10月中에는 출하량이 전혀 없다. 특히 3월에는 年間 出荷量의 3분의 1이 한달 동안에 출하된다. 가격은 출하초기인 11월부터 高價維持되며 盛需期까지 유지되나 盛需期 이후(5월 이후)는 急落한다(그림 22).

##### ③ 프리지어

年間取扱數量은 66百萬株 18억엔이며 10월경에 출하가 시작되어 12-4월에 집중 출하되었다가 5월에는 출하가 끝난다.

##### ④ 글라디올러스

年間取扱數量은 42百萬株 18억엔이며 年中出荷되고 있으나 最盛出荷期는 7-8월(2個月間에 35%出荷)이고 최소 출하기는 12-2월(3個月間에 10%출하)이다. 가격은 최성 출하기(7-8월) 가격이 株當 30엔인데 대하여 최소출하기인 1-3월의 가격은 64~76엔으로 2배 이상 비싸게 거래된다. 이때 수입량도 89.3% 집중된다(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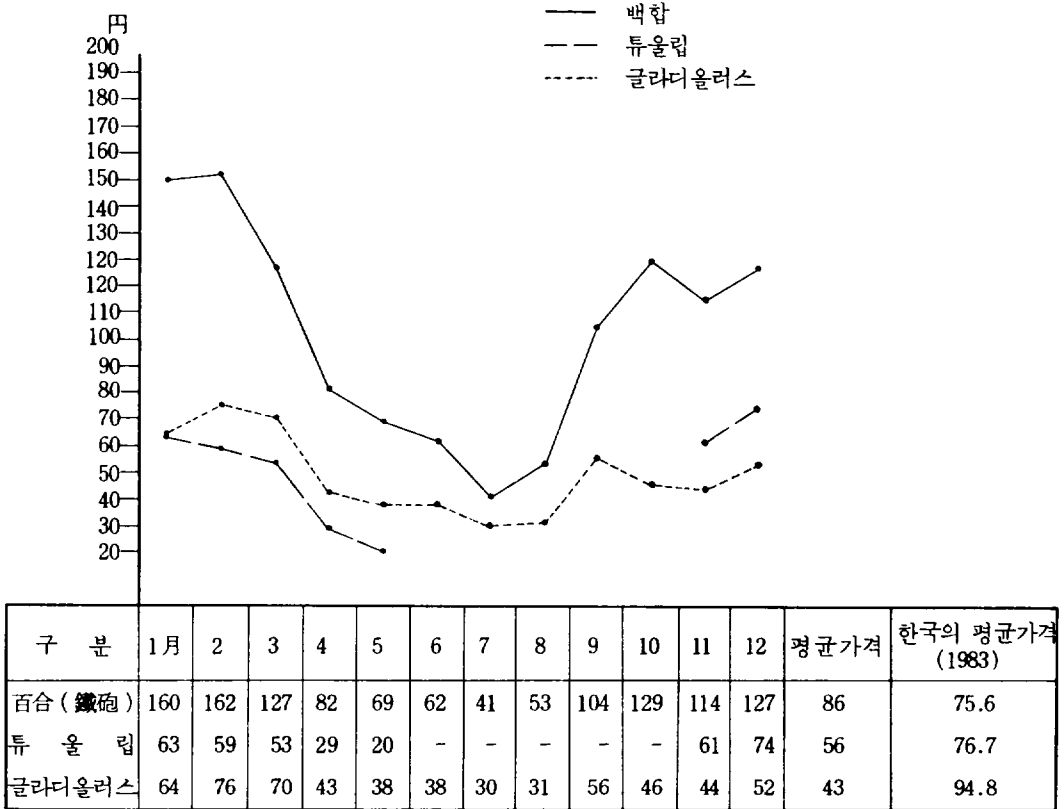
##### ⑤ 아이리스

연간취급수량은 40百萬株 14억엔이며 7-9월에는 出荷量이 全無하며 12월 16%, 3월 30%, 4월 18% 등으로 年末年始 및 卒入學 시즌에 最多出荷된다.

이상 球根類의 價格動向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글라디올러스의 가격과 한국의 가격을 비교할 때 우선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가질수가 없다. 즉 대만으로부터 집중

〈그림 22〉 球根類의 季節別 價格變動 (1984)

(單位 : 株當 円)



資料 : 上同

수입되어 공급되는 1-3月的 가격 1株當 64~76円(1984) 과 한국의 이때 평균가격은 1株當 693.3 원 + 4 = 173 円으로서 (1983) 現단계에서 볼 때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된다.

(4) 輸出入 動向

① 輸出

經濟安定과 生活潤澤化로 화훼수요의 증가가 계속됨에 따라 화훼의 수출입은 수입이 급증 경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수출은 감소 내지 停滯狀態를 보이고 있다. 1984年 화훼의 수출입액은 수출 22억엔에 대하여 수입이 76억엔으로 수입이 수출의 3.5배이다 (표 54,55,56).

이를 主要輸出入 對象國別로 보면 수출에 있어서는 花란 6억 6천만엔, 미국 4억엔, 한국 2억엔, 서독 1억 9천만엔, 대만 6천만엔 등이고, 수입에 있어서는 태국 20억엔, 대만 13억엔, 미국 13억엔, 花란 9억엔, 싱가포르 4억엔, 뉴질랜드 3억엔, 호주 1억엔 등이며 한

국은 6백만엔이다.

그런데 日本의 球根類 輸出動向을 보면 구근류 중 백합은 1965年 8백만 球에서 1972년에는 23백만 球까지 증가하였으나 그후 감소하여 1984년에는 8백만 球 수출로 돌아갔고 튜올립은 1965年 2천만 球 수준에서 1984년에는 6백만 球 수준으로 글라디올러스는 1965年 2억 3천만 球에서 8백만 球로 줄어들었다. 그럼으로써 球根類는 505백만엔에서 1984年 648백만엔에 그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일본으로부터 球根類 輸入을 보면 글라디올러스가 1970年 38,000 球 (298천엔)에서 83年 2,749,000 球 (12,379천엔)가 수입된 바 있는데 이는 80年代에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튜올립은 1984年 1,233,100 球, 85年 1,475,000 球 (富山産)를 수입한 바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제주도에서 切花栽培用으로 사용되었다.

( 표 54 ) 1984年度 花卉 輸出入狀況

區 分	輸 出		輸 入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切 花	15 噸	52,142 千円	3,079 噸	4,476,283 千円
植物의 葉·枝等部分	57 噸	138,473	2,463 噸	467,739
球 根 類	21 百萬球	648,104	73 百萬球	775,319
樹 木 等	10 百萬株	1,325,571	18 百萬株	1,894,721
計		2,164,290		7,614,062

資料 : 한국물산주식회사, 日本의 花卉現況, 1986.

( 표 55 ) 花卉의 輸出推移

( 單位 : 千円 )

區 分	切 花	植物의 葉·枝等部分	球 根 類	樹 木 等	計
1965	24,583	16,312	505,097	82,840	628,832
1970	60,380	139,430	580,369	288,279	1,068,458
1975	20,207	263,600	809,449	1,054,759	2,148,015
1980	91,517	154,231	957,122	1,422,940	2,625,810
1984	52,142	138,473	648,104	1,325,571	2,164,290

資料 : 上同

( 표 56 ) 1984 年 品目別 主要輸出 對象國別 輸出金額

( 單位 : 千円 )

區 分	切 花	植物의 葉·枝等部分	球 根 類	樹 木 類	計
和 蘭	-	-	302,509	355,823	658,332
美 國	3,166	63,811	118,442	219,838	405,257
韓 國	3,305	-	-	201,103	204,408
西 獨	-	4,551	-	182,484	187,035
臺 灣	-	-	5,875	52,834	58,709
캐 나 다	-	3,243	7,682	27,280	38,205
핀 랜 드	-	-	35,986	-	35,986
濠 洲	-	28,900	-	-	28,900
싱 가 폴	17,638	-	-	-	17,638
香 港	12,292	-	-	-	12,292
伊 太 利	-	7,412	-	-	7,412

資料 : 上同

그리고 1984 年 切花類는 21,400 本 수입되었는데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葉란(20,100 本) 이 되고 있으며 樹木類는 1984 年 852,000 本이 수입되었는데 그 주요 품목을 보면 소철 142,800 本, 철쭉류 5,570 本, 야자 112,840 本, 벗나무 5,940 本 등이다.

② 輸 入

1984 年의 花卉輸入量 및 輸入金額은 切花 3,079 톤 ( 약 1 億本 ) 45 억엔, 切枝·切葉 등 2,463 톤 4 억 7 천만엔, 球根類 7 千萬球 7 억 8 천만엔, 樹木 ( 苗木類를 포함한 산식물 ) 등 1,779 萬株 19 억엔 등 76 억엔에 달하고 있다. 이것을 1965 年의 수입량 및 수입금액 즉 切花 1 톤 4 백만엔, 切枝·切葉 등 225 톤 7 백만엔, 球根類 13 백만球 1 억 3 천만엔, 樹木 등 41 萬株 9 천만엔 등 2 억 3 천만엔과 비교하여 보면 切花의 수입량은 물경 3 천배, 切枝·切葉 11 배, 球根類 5 배, 樹木은 43 배의 증가이다 ( 금액으로는 무려 32 배의 증가임 ).

( 표 57 ).

( 표 57 ) 花卉의 輸入推移

區 分	切 花		植物의 葉·枝等部分		球 根 類		樹 木 等		合 計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金 額
1965	1 噸	千円 3,733	225 噸	千円 7,038	13 千円	千円 129,874	0.4 百萬株	千円 94,106	千円 234,711
1970	39	57,802	1,644	53,911	10	143,539	9	157,061	412,313
1975	355	545,533	589	103,059	41	262,318	5	629,579	1,540,489
1980	2,959	3,978,386	1,486	333,074	74	575,084	8	801,521	5,688,065
1984	3,079	4,476,283	2,463	467,739	73	775,319	18	1,894,721	7,614,062

資料 : 上同

切花輸入의 年度別 추이를 보면 切枝·切葉이 '75~'76 年에 急減한 바 있으나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樹木 등을 제외하면 '78~'79 年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球根類수입은 '79 年의 75 百萬球에서 '83 年에는 62 百萬球까지 줄어들었다가 '84 年에는 73 百萬球로 회복되었다.

한국은 切枝·切葉, 樹木 등에서 5,749,000 엔을 수출한 바 있다(표 58).

(표 58) 品目別 1984 年 主要輸入對象國

(單位:千円)

區分	切花	植物의 葉·枝等部分	球根類	樹木等	計
泰國	1,764,972	-	-	265,442	2,030,414
臺灣	909,050	192,048	55,128	158,847	1,315,073
美國	719,451	194,032	78,709	292,853	1,285,045
和蘭	-	-	562,287	297,708	859,995
싱가폴	418,999	-	-	-	418,999
뉴질랜드	-	-	-	343,671	343,671
濠洲	114,694	-	-	-	114,694
블란서	-	-	-	43,506	43,506
西獨	-	-	-	35,850	35,850
브라질	32,370	-	-	-	32,370
伊太利	-	25,900	-	-	25,900
韓國	-	1,030	-	4,719	5,749

資料: 上同

1) 切花

1974 年의 切花輸入量은 양란 134 萬本, 菊花 71 萬本, 羊齒類(日名, 시다) 11 萬本, 안스름 59 萬本, 카네이션 27 萬本, 글라디올러스 66 萬本, 大谷渡 7 萬本, 장미 9 萬本, 도라세나 1 萬本, 기타 29 萬本, 合計 414 萬本이었던 것이 1984 年에는 양란 4,912 萬本(36 배),菊花 2,326 萬本(33 배), 羊齒類(시다) 1,200 萬本(106 배), 안스름 494 萬本(8 배), 카네이션 290 萬本(11 배), 글라디올러스 45 萬本(32 %減), 大谷渡 44 萬本(6 배), 장미 17 萬本(약 2 배), 도라세나 11 萬本(9 배), 기타 575 萬本(20 배), 合計 9,916 萬本(24 배)로 되어 글라디올러스만은 감소하였으나 기타품종은 모두 증가되었고 특히 양란, 국화, 양치류(시다)의 증가율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표 59).

한편 주요 수입대상국별, 종류별을 보면(표 60,61) 다음과 같다.

( 표 59 ) 切花의 品種別 輸入量 推移

( 單位 : 千株 )

	洋 蘭	菊 花	안스름	羊齒類	카네이션	장미	大谷渡	도라세나	글라디올러스	其 他	計
1973	884	656	898	114	182	111	351	-	579	328	4,102
1974	1,343	705	587	113	265	94	67	12	659	291	4,137
1975	2,462	2,578	1,112	731	343	34	733	48	870	662	9,572
1976	4,007	4,294	1,412	412	365	7	633	64	1,724	390	13,307
1977	8,879	7,953	1,238	1,045	1,225	17	1,733	40	1,333	646	24,109
1978	19,715	15,047	2,108	1,265	2,140	13	1,073	157	1,610	809	43,936
1979	23,869	21,358	3,302	2,733	2,393	36	1,788	141	2,180	835	58,646
1980	36,085	30,306	4,385	2,293	1,917	280	1,278	171	2,218	3,482	82,416
1981	37,032	21,008	5,897	5,973	2,546	399	719	179	1,220	3,940	78,913
1982	44,160	20,618	4,902	3,532	1,270	404	315	181	57	2,491	77,930
1983	40,493	23,265	4,989	7,479	2,189	63	582	136	5	2,988	82,189
1984	49,124	23,264	4,944	12,001	2,904	174	436	113	446	5,752	99,159

資料 : 上同

( 표 60 ) 主要輸入對象國의 1984 年 輸入切花의 種類別 比率

國 別	總 輸 入 量	種 類 別 比 率 ( 總 輸 入 量 을 100 % 로 할 때 )
泰 國	3,960 萬株	洋蘭 99.2 %, 羊齒類 0.2 %
臺 灣	2,557	菊花 90.5 %, 大谷渡 1.7 %, 글라디올러스 1.6 %
美國本土	1,286	羊齒類 87.2 %, 카네이션 9.4 %
하와이	627	안스름 78.9 %, 羊齒類 10.4 %, 洋蘭 3.7 %, 카네이션 1.9 %
싱가폴	948	洋蘭 96.9 %
濠洲	25	洋蘭 31.9 %
其 他	513	카네이션 30.3 %, 洋蘭 6.8 %, 장미 3.3 %
計	9,916	洋蘭 49.5 %, 菊花 23.5 %, 羊齒類 12.1 %, 안스름 5 %

資料 : 上同

( 표 61 ) 1984 年 切花의 品種別 輸入對象國의 比重

品 種 別	總 輸 入 量	輸 入 對 象 國 別 比 重 ( 總 輸 入 量 = 100 % )
洋 蘭	4,912 萬株	泰國 79 %, 싱가포르 18.7 %
菊 花	2,326	臺灣 99.5 %
羊 齒 類	1,200	美國本土 93.4 %, 하와이 5.4 %
안 스 림	494	하와이 100 %
카 네 이 션	290	美國本土 41.4 %, 이스라엘 約 3 割, 하와이 4.0 %
글라디올러스	45	臺灣 94.7 %
大 谷 渡	44	臺灣 100 %
장 미	17	이스라엘 約 7 割
도 라 세 나	11	臺灣 89.8 %, 하와이 9.9 %
其 他	575	臺灣 25.4 %, 美國 + 하와이 13.1 % 싱가폴 5.0 %
計	9,916	泰國 39.9 %, 臺灣 25.8 %, 美國 + 하와이 19.3 %, 싱가포르 9.6 %

註 : 이스라엘로부터의 輸入比重은 1981 年基準임.  
資料 : 上同

- 양란 : 태국 (79 %)
- 국화 : 대만 (99.5 %)
- 양치류 : 미국 본토 (93.4 %)
- 안스림 : 하와이 (100 %)
- 카네이션 : 미국 본토 (41.4 %), 이스라엘 (30 %)
- 글라디올러스 : 대만 (94.7 %)
- 大谷渡 : 대만 (100 %)
- 장미 : 이스라엘 (70 %)
- 도라세나 : 대만 (89.8 %)
- 기타 : 대만 (25.4 %), 미국 + 하와이 (13.1 %)

※ 主要輸入切花의 月別 輸入比率은 < ※부록 6 >을 참조할 것.

2) 球根類

球根類의 수입량 및 수입금액을 보면 1969 년에는 튜울립 136 萬球 (1,900 만엔), 기타 구근 716 萬球 (8,800 만엔), 計 852 萬球 (1 억 700 만엔)이었으나 1984 년에는 튜울립 474 萬



球 (1억엔), 기타 구근 6,843萬球 (6억 7,500만엔), 計 7,317萬球 (7억 7,500만엔) 가 수입되어 數量面에서 8배, 金額面에서 7배의 증가를 나타냈다 (표 62,63).

( 표 62 ) 球根類의 輸入推移

單位：數量：千球  
金額：千円

區分	튜 올 립		其 他		計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965	6,444	92,793	6,280	37,081	12,724	129,874
1969	1,355	18,873	7,161	88,683	8,516	109,556
1971	4,308	69,011	11,586	147,953	15,894	216,964
1974	707	19,307	31,458	256,793	32,165	276,100
1978	4,463	105,632	61,933	298,638	66,396	404,270
1980	3,057	103,558	71,630	471,526	74,687	575,084
1981	1,762	40,462	58,236	434,407	59,998	474,869
1982	2,510	63,910	67,206	563,159	69,716	627,069
1983	2,438	53,964	59,641	622,398	62,079	676,362
1984	4,738	99,932	68,434	675,387	73,172	775,319

資料：上同

( 표 63 ) 輸入對象國別 球根類 輸入狀況

單位：數量：千球  
金額：千円

區分	튜 올 립		其 他 球 根 類									
	和 蘭		臺 灣		和 蘭		美 國		其 他		計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1970	3,178	45,821	41	1,011	6,516	91,889	479	2,824	78	1,994	7,114	97,718
1975	550	12,487	31,904	20,380	8,755	218,620	19	6,792	61	4,039	40,739	249,831
1980	3,057	103,558	56,980	43,040	13,113	413,861	1,418	5,690	119	8,935	71,630	471,526
1982	2,510	63,910	48,802	49,536	17,454	428,306	90	43,733	860	41,584	67,206	563,159
1983	2,438	53,964	31,959	71,047	19,611	446,875	180	46,822	7,891	57,654	59,641	622,398
1984	4,738	99,932	44,988	44,988	20,680	462,355	2,075	78,709	691	79,195	68,434	675,387

資料：上同

그런데 튜올립 (全量 화란에서 수입)의 수입량은 周期的 波狀을 보이고 있다. '65~'66, '71年, '78~'79年, '84年에는 각각 年間 400만점 이상 수입됨으로써 수입량 추이곡선의 봉우리를 형성하였고 '68年, '74~'75年, '81年은 年間 100만球 수준이 수입됨으로써 同

曲線의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다.

기타 구근은 1981年 이후 5,800萬球~6,800萬球 수준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組織培養等 生命工學을 利用한 增殖栽培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球根需要는 금후에도 정체 내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樹木

切花 및 球根類의 수입이 정체 또는 增加率 鈍化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樹木의 수입증가율은 최근에 와서 그 템포가 더욱 빨라졌다고 할 수 있다. 樹木類에는 살아있는 나무, 灌木, 根, 插穗, 接穗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965年의 수입량 및 수입금액은 41萬株, 9,410만엔이었으나 1984년에는 1,779萬株 18억 8,470만엔으로 증가하였다(표 64).

(표 64) 樹木等の 輸入推移

區分	單位	1965	1970	1971	1973	1975	1978	1980	1981	1982	1983	1984
數量	百萬株	411	8,619	2,613	8,608	4,924	4,754	8,245	8,638	11,956	14,579	17,792
金額	百萬	94	157	161	799	630	468	802	936	1,699	1,938	1,895

資料：上同

1984年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보아 주요 수입대상국은 뉴질랜드(3억4천만엔), 화란(3억엔), 미국(2억9천만엔), 태국(2억6천만엔), 대만(1억6천만엔)의 順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72만엔이었다(표 65).

(표 65) 輸入對象國別 樹木等 輸入狀況

單位：數量：千株  
金額：千円

區分	1970		1975		1980		1983		1984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和 蘭	58	6,992	433	122,697	1,163	107,575	5,664	381,766	5,504	297,708
美 國	80	47,041	1,151	183,161	1,143	1,187,031	1,313	407,687	1,675	292,853
뉴-질랜드	12	7,304	54	25,393	295	174,106	676	357,308	714	343,671
臺 灣	215	2,684	350	37,327	2,661	86,712	2,272	191,746	2,899	158,847
泰 國	57	4,206	145	61,100	162	27,239	604	157,571	882	265,442
西 獨	11	7,107	34	14,307	562	27,708	1,894	47,192	1,387	35,850
佛 蘭 西	22	11,358	71	9,132	174	16,200	492	36,582	1,104	43,506
韓 國	5,713	15,340	2,538	75,141	563	16,534	6	1,267	66	4,719
其 他	2,451	75,029	149	101,261	1,523	158,396	1,659	357,271	3,562	452,125
計	8,619	157,061	4,924	629,519	8,245	801,521	14,579	1,938,390	17,792	1,894,721

資料：上同

한편 경쟁국 진출동향을 보면 球根의 對日本 主要輸出國은 荷蘭, 미국, 대만, 中공이고 (표 66), 묘목은 뉴질랜드, 荷蘭, 미국, 대만 등이며, 切花는 태국, 대만, 미국 등으로 (표 67) 이들은 최근 수년간 안정된 시장을 균점해왔다.

( 표 66 ) 球根類 對日本 主要輸出國 比重

( 단위 : 천엔 )

국 명	1982	1983	1984	수입비중
네덜란드	428,306	446,875	462,355	68.4
미국	43,733	46,822	78,709	11.6
대만	49,536	71,047	55,128	8.1
중공	4,673	8,812	18,924	2.8
한국	-	4,874	-	-

資料 : 한국화훼협회, 화훼협회보, 1986.1.

( 표 67 ) 切花類 對日本 主要輸出國 比重

( 단위 : 천엔 )

국 명	1982	1983	1984	수입비중
대만	682,371	922,627	909,050	20.3
태국	1,612,132	1,574,021	1,764,972	39.4
싱가폴	491,358	382,829	418,999	9.3
네덜란드	44,785	65,232	185,565	4.1
미국	520,264	671,568	719,451	16.1
한국	273	320	8,939	0.1
수입합계	3,665,306	3,956,746	4,476,283	-

資料 : 上同

##### (5) 輸入檢査

花卉의 수입은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통상 공항 (air cargo only) 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花卉에 대하여는 각 공항에서 수입검사를 받게 된다. 1983 年의 植物檢疫 受檢實績은 20 年前에 비하여 靑果物, 種子는 5 배, 生植物 · 球根類는 18 배로 증대되었고 植物檢疫을 받은 품종수는 3,000 種, 수입대상국은 155 개국에 이르고 있다.

수입화훼의 검역은 수입화훼의 50 % 이상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荷蘭에 대하여는 同國의 요청에 따라 1984 年 9 月부터 同國에 일본식물방역관을 현지 파견

하여 수출국지역에서 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국내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檢査證明書 및 附記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지 파견 검역을 거치지 아니한 花卉가 수입되었을 때에는 수입화회의 50% 이상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수입화회의 신선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타 내용을 보면 포장은 carton box 에 스티로폼을 넣어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여 절화를 포장하고 있으며 수출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워싱턴조약(Washington Treaty) 내용에 의거 수출입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묘목·구근의 경우 토양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2. 자유중국

### (1) 생산동향

대만의 切花生産面積은 1982年 457.84 ha로서 品目別 生産面積 現況을 보면 (표 68) 과 같다.

(표 68) 臺灣의 切花 生産面積 (1982)

(單位: ha)

區 分	臺北示縣	臺 中	彰化縣	嘉義縣	高 雄	南投縣	計
국 화	1.40	1.89	233.46	31.39	9.86	4.41	282.41
글라디올러스	3.45	97.40	31.55	-	-	-	132.40
카 네 이 션	-	-	0.15	-	-	-	0.15
장 미	3.90	-	16.05	-	-	2.13	22.08
극 락 조 화	0.90	-	-	-	-	-	0.90
과 꽃	-	-	0.84	-	-	-	0.84
다 알 리 아	-	-	1.40	-	-	-	1.40
만 수 국	-	-	0.06	-	-	-	0.06
나 리 류	-	-	1.05	-	-	-	1.05
은 유	-	-	1.10	-	-	-	1.10
도 란	-	-	0.20	-	-	-	1.20
안 개 초	-	-	-	-	-	3.41	3.41
만 년 청	-	-	-	-	-	3.25	3.25
야 래 향	-	-	-	8.59	-	-	8.59
計	9.65	99.29	285.86	39.98	9.86	13.20	457.84

資料: 자유중국통계보

대표적 품목으로는 국화가 60% 이상 주품목이며 글라디올러스, 장미, 아래향이 각각 약 30%, 5%, 2%를 차지하여 전체재배면적의 97%가 이들 4가지 품목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수출품목이 되고 있다.<sup>43)</sup>

한편 화훼류 재배의 수익성을 보면 벼농사에 비해 약 10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령 국화를 1ha에서 每期當(1期는 4個月) 75,000(중국원)(USDI=NTD40) 상당의 판매액을 올릴 수 있어 1ha의 국화밭을 2回轉하면(국화는 벼 또는 기타 농작물과 윤작하여야 함) 총판매액은 150만원(중국원)에 달하여 약 90만원(중국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행정원, 농업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농민청, 대만화훼발전협회 및 지방 유관기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이고 있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화훼류는 75% 정도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25% 정도가 일본, 홍콩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1984年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된 화훼류는 3,062.4천(美\$)에 달하고 있음).

(2) 수출동향

花卉類別 輸出入 實績을 보면(표 69) 총수출액은 총수입액보다 3.5배나 많은 210,186천(대만원)이 되고 있어 球根類를 제외하면 全品目的 수출액이 많아 화훼수출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69) 대만의 화훼류 수출입동향

단위 : 1,000 (대만원)

C C C N	1982		1983		1984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총 계					210,186	59,823
0601 0100	122	22	160	12	711	619
0601 9900	2,578	4,658	5,244	12,647	2,694	23,538
0602 0100	21,567	6,460	32,529	8,458	39,210	18,048
0602 9900	5,766	1,503	7,693	2,537	15,088	2,680
0603 0000	83,351	1,539	105,764	4,137	119,587	7,688
1203 0200	975	43,224	9,776	3,022	6,027	3,167
1203 0500	16,617	2,230	12,236	3,102	26,869	4,083

註 : 0601 : 球根類, 0602 : 산식물, 묘목류, 0603 : 切花類, 1203 : 花草種子  
 資料 : 한국화훼협회, 화훼협회보, 1985.11. 에서 인용

43) 농이촌개발공사 : 화훼산업육성방안조사연구, p.213.

주요 花種을 보면 국화, 장미, 카네이션, 튜올립, 난초 등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선호되고 있으며 일본과 홍콩의 경우는 국화가 가장 많고 다음이 장미, 창포류 순으로 되고 있다. 태국, 말레이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 수출되는 화훼류도 비슷하며 겨울철의 최저기온이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1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가 주요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 수출도 대부분 이루어진다.

日本은 대만으로부터 국화, 글라디올러스, 大谷渡, 도라세나 등을 전체수입량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들 切花의 月別輸入實績을 보면 上記 期間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화 12월~4월 수입량 全體의 98.7% ('82~'84년 평균), 글라디올러스 12월~3월 96.8%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對日本 국화수출을 전망할 때 대만과의 경쟁은 우선 재배환경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정부의 지원시책

자유중국 정부는 60년초부터 농업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화훼류 생산단지의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현재 전국 10여개 지역에 화훼단지가 조성되어 花卉類-切花, 苗木, 盆栽 및 기타 원예 관상식물까지도 재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행정원, 농업발전위원회, 농민청, 화훼발전협회와 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화훼산업에 대해 品種改良, 포장개선 등 기술적인 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화훼류 수출에 대해서도 일반 상품과 동일한 수출금융을 지원해 주고 있다.

기술개발 관계를 보면 등급분류, 절단, 잎사귀 제거, 다발로 묶는 작업 등을 기계로 처리하도록 대규모 포장기계화 공장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출용의 鮮度維持를 위해서 새로운 포장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즉 꽃송이를 플라스틱 주머니로 싸워 가지 10개를 하나로 묶은 다음 에틸렌 선도보호액을 적신 솜으로 꽃가지를 감싸고 다시 은박지로 포장하여 상자에 담아 냉장창고에 넣어 가냉동 상태로 하여 상자속에 특수제작된 살충제 한알씩을 끼워 넣고 있다. 약제는 상자안에서 서서히 기화하여 꽃송이에 붙은 해충이나 해충의 알을 죽이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포장상태에서도 10일 이상 신선도를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등 동남아시아 정도는 선박으로 수송해도 꽃의 신선도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뿐 아니라 선박수송에 따른 운송비의 절감(항공비의 3분의 1)으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화훼류 수출업체는 10일 이상 선도유지가 가능한 새로운 포장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 화훼류 수출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뿐 아니라 歐美 및 中東地域으로까지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sup>44)</sup>

그리고 화훼류 수출은 종전까지 특별한 수출절차 없이 행해져 왔으나 82년부터 수출물량을 사전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생산과잉시기에는 수출업자간에 출혈경

44) 한국화훼협회; 화훼협회보 1985.11, pp.16~20.

쟁이 발생하는 등 시장질서가 문란해짐에 따라 82년부터 “對日 및 東南亞 花卉輸出調整要綱”을 수정하여 수출추진중 발급업무를 국제무역국에서 해당조합으로 이관하고 여기서 추천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였다.

'84年 한국의 대만 화훼류 수출은 CCN 0603-6000 197천(중국원) 뿐으로 중국시장 진출이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생산량만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은 외국산 화훼류를 선호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한국산 화훼류의 시장진출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대만에서의 외국산 화훼류로는 화란産이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는 화란정부가 화훼류 수출에 대하여 수송비의 3분의 2를 보전해줌으로써 다른 수입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 3. 泰 國

#### (1) 生産動向

周年을 통하여 평균기온이 28℃라는 태국은 마치 自然의 유리溫室과도 같다. 韓國의 溫室栽培 切花에 비하면 연료비나 노임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렴하여 뛰어난 우위성을 지니고 있다.

年間을 통하여 高溫이기 때문에 季節區分은 降雨量에 따라 5-10月の 雨期와 11-4月の 乾期로 나눌 수 있다. 태국의 代表的인 花卉는 洋蘭이며(표 70) 5月の 雨期에 들어서면서 농업의 播種作業이 시작되어 6-7月에는 양란의 切花가 出荷된다. 이렇게 생산되는 切花도 총생산에서 72% 수준이 수출되며 주요수출국은 서독, 일본 등이 되고 있다.

(표 70) 泰國의 地域別 主要花卉 栽培面積 (1981)

(單位: 라이 = 0.6 ha)

	合 計	北 部	東 北 部	中 央 部	東 部	西 部	南 部
切花 (洋蘭)	7,328	51	2	3,234	662	3,864	16
자 스 민	3,218	154	223	1,861	52	786	142
giant milkweed	1,576	130	194	1,038	13	38	165
장 미	1,531	279	292	351	44	434	131
거 베 라	1,443	162	211	862	12	37	160

資料: 泰國 農業協同組合省 農業普及局 花卉觀葉植物課

5백여戶가 참여하고 있는 한 농업협동조합의 예를 보면 苗의 配布-集荷-輸出業務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농가의 수확 후 24時間 以内に 집하하여 그 후 24시간 이내에 수출되고 있다. 앞으로 태국의 切花生産은 보다 고급 품종으로 갱신되면서 새로운 投資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리한 기상조건을 살려서 더욱 성장될 전망이다. 또한 品種改良, 施肥, 輸送改善 등 農家, 大學, 政府가 一體가 되어 전력투구하고 있어 기술적으로도 더욱 비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현재(1980年)年間 切花輸出額이 2千萬 弗이나 되어 훌륭한 輸出産業으로 급속히 확대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2) 輸出動向

태국의 洋蘭 재배역사는 20年 정도이나 수출시장은 (표 71)과 같이 西獨(1983年: 20%), 日本(1983年: 78%), 네덜란드, 이태리, 스위스, 스웨덴 등 압도적으로 西歐가 되고 있어 태국의 切花輸出은 유럽을 상대로 하여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花卉栽培는 西獨의 例(표 72)를 보는 바와 같이 국화, 장미, 카네이션, 튜울립 등을 재배하고 있어 洋蘭에 있어서도 고급 품종의 것은 交流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의 저렴한 洋蘭이 그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표 71) 泰國의 切花(洋蘭) 輸出量

(單位: %)

		1980	1981	1982	1983
일	본	980	1,179	1,266	1,403
서	독	1,630	1,435	1,509	1,568
이	태 리	299	533	711	1,154
네	덜 란 드	557	764	917	1,121
스	웨 덴	115	143	167	223
스	위 스	218	225	220	303
합	계	4,483	5,312	6,332	7,913

資料: 泰國通關統計

(표 72) 西獨의 切花 栽培面積

(單位: ha)

		1975	1978	1981
국	화	796	761	602
장	미	512	471	431
카	네 이 션	242	195	140
튜	울 립	223	168	176
프	리 지 어	77	61	45
洋	蘭	22	27	35
기	타	1,846	1,893	1,700
합	계	3,718	3,576	3,129

資料: AIPH(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Producers)



한편 日本의 切花輸入動向을 보면 (표 66 참조) 총수입액은 1984年 현재 45억엔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輸入切花의 약 40%는 태국産이며 그다음 대만産이 20% (주요花種 국화)이다. 洋蘭은 태국産이 79%로서 압도적이고 그다음은 싱가포르가 19%이다.

방콕 - 東京間은 비행기로 약 6시간 要하여 수송비가 문제되고 있으나 최근 (1984年 7月) 항공화물요금 특별할인제가 인가되어 실질 9%나 down된 바 있다. 그리고 日本에서 수출 절화는 消毒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보르 兩側面에 구멍을 내어 消毒劑를 삽입시키고 있다.

다음 (표 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국의 輸出切花價格의 저렴성을 엿볼 수 있다.

(표 73) 泰國의 切花類別 輸出價格動向 (FOB)

(單位 : 바 - 스)

	1981	1982	1983
農家販賣價格			
Madame : MD	1.75 ~ 3.50	1.00 ~ 3.00	0.55 ~ 3.00
SMD	1.10 ~ 2.25	0.75 ~ 2.00	0.35 ~ 2.00
SSMD	0.75 ~ 1.25	0.40 ~ 1.50	0.30 ~ 1.40
Pure White: PW	2.00 ~ 3.25	1.50 ~ 2.50	0.80 ~ 2.25
SPW	1.30 ~ 1.80	0.90 ~ 1.50	0.40 ~ 1.35
SSPW	1.10 ~ 1.25	0.50 ~ 1.25	0.35 ~ 1.05
輸出價格			
Madame : MD	3.00 ~ 5.27	2.75 ~ 5.25	1.60 ~ 4.85
SMD	2.30 ~ 3.70	1.60 ~ 3.00	1.35 ~ 3.45
SSMD	1.35 ~ 2.30	1.15 ~ 3.00	1.15 ~ 2.15
Pure White: PW	3.70 ~ 4.80	3.40 ~ 4.40	1.85 ~ 3.65
SPW	3.00 ~ 3.20	2.50 ~ 3.20	1.35 ~ 2.70
SSPW	1.80	2.00 ~ 2.50	1.15 ~ 2.25

註 : 1 바 - 스 = 10円

- SL Dendrobium Madame Pompadour "long stem" 18 flowers
- MD Dendrobium Madame Pompadour "medium stem" 15 flowers
- SMD Dendrobium Madame Pompadour "short stem" 12 flowers
- SSMD Dendrobium Madame Pompadour "shortest stem" 8 flowers
- WH Dendrobium Ceacar "White Pink" 15 flowers
- PW Dendrobium Pure White "Long stem" 18 flowers
- SPW Dendrobium Pure White "short stem" 12 flowers
- BPW Dendrobium Big Pure White "Long stem" 15 flowers
- SBPW Dendrobium Big Pure White "short stem" 10 flowers

資料 : 日本花き生産協會, 花き情報, 1984, 463.

### 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50 만의 도시국가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 美 \$ 6,000 을 육박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발렌타인데이 ( 2월 14 일 ), 구정, 어버이날, 회교정초, 인도힌두교정초, 크리스마스 등에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주로 47 개의 난초생산단지에서 생산하여 일본, 서독,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 표 74 ) 난초를 제외한 국화, 카네이션, 장미들은 주로 말레이아, 네덜란드, 자유중국, 스리랑카,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우선 1980 年까지의 수출실적을 보면 ( 표 74 ) 와 같지만 그 이후를 보면 1982 年 : 美 \$ 14,876 천, 1983 年 : 美 \$ 13,528 천, 1984 年 : 美 \$ 14,842 천을 ( 표 74 ) 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입은 1982 年 : 美 \$ 9,412 천, 1983 年 : 美 \$ 10,223 천, 1984 年 : 美 \$ 11,694 천을 수입하고 있어 輸出國이 되고 있다.

( 표 74 ) 싱가포르 切花輸出實績

( 單位 : 천길더, % )

國別	1973		1976		1980	
	年度					
서독	1,828	62	4,206	53	5,303	33
일본	86	3	159	2	2,389	15
네덜란드	366	12	1,601	20	1,975	13
오스트레일리아	66	2	363	5	1,147	7
스위스	177	6	554	7	971	6
이태리	50	2	55	1	621	4
스웨덴	41	1	155	2	462	3
홍콩	160	5	284	4	414	3
뉴질랜드	19	1	66	1	318	2
오스트리아	30	1	142	2	207	1
영국	15	0	60	0	159	1
기타	110	4	227	3	1,958	12
계	2,948	100	7,872	100	15,924	100

자료 : 농어촌개발공사, 화훼산업육성방안조사, 1984.

그러나 싱가포르는 1982 年 이후 계속 수입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1인당 순국민 총생산액이 美 \$ 6,000 을 육박하는 생활수준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카네이션, 장미, 국화 등을 수입하고 있는데 1984 年 국가별 수입동향을 보면 말레이

아가 싱 \$ 7,136 천 (62%) 으로 단연 수위이고, 2위는 네덜란드 싱 \$ 1,878 천 (16%), 3위 자유중국 싱 \$ 1,072 천 (9%), 4위 스리랑카 등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 싱 \$ 32 천 상당의 카네이션을 어머니날에 수출한바 있다.

對 싱가포르 花卉類 主要輸出國인 말레이아는 중부 말레이아 고원지대에서 난초 및 국화 등을 재배하여 야간에 트럭을 이용 직수출하고 있으며, 카네이션은 네덜란드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고, 한편 네덜란드의 카네이션은 값도 경제적이며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가 높다.

한편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주의 국가로서 화훼류에 대한 수출입은 자유로이 이루어지며 관세도 없다.

그런데 네덜란드產 카네이션과 한국產 카네이션을 비교할 때 한국산은 한줄기에 봉오리가 하나이나 네덜란드產은 보통 4~5개나 되고 꽃 색깔, 꽃의 아름다움이 한국산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또 네덜란드는 1個月 동안 외상거래를 해주고 있으며 항공로도 싱가포르-네덜란드間 1kg당 싱 \$ 3이나 한국-싱가포르間 1kg당 美 \$ 4.50, 약 싱 \$ 10 으로 수송가격면에서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화훼류에 대한 특별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VII. 産地形成의 方法 ( 結語 )

### 1. 農作物 輸入과의 비교

花卉類의 單位收益性を 검토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국화 단일품목의 예를 보더라도 品種이 다양하고 品種에 따라서 生育條件이 일정치 않으므로 생산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品種일지라도 상품의 가치와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高度의 施設과 技術集約으로 생산하는 경우와 露地에서 粗放生産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생산비 및 수익성은 일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화훼류의 생산액이 화훼농가의 受取價格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것과 일반농가의 戶當 農業粗收入과 대략적인 比較를 하여 봄으로써 花卉農家の 收入變動을 推定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1983년부터 花卉農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으며 1984年度中에는 花卉農業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비닐하우스·온풍난방기 시설 등에 2,140 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花卉生産額은 1980年の 214 억원에서 746 억원 (1985)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그 결과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하여 화훼류의 輸出入 赤字幅은 83年

의 1,563千\$에서 84年 587千\$, 85年 1,077千\$로 크게 줄고 있다. 뿐만 아니라 專業農家率, 施設率(house率), 戶當栽培面積 등도 크게 증가되어 재배여건이 개선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런데 (표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家戶當 農作物 收入增加率과 花卉農家當生産額 增加率을 비교해 보면 農作物 收入增加率을 훨씬 밀돌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83年 이후 정책적 지원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花卉農家の 實質의인 收入面에서는 후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81年을 기준으로 할 때 거의 절반수준의 生産額을 실현함으로써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花卉價値實現의 不安定性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75) 農業粗收入과 花卉類 生産額 比較 (戶當)

구 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농업조수입 (천원)	2,342	3,269	3,998	4,702	5,277	5,477
지 수	100.0	139.6	170.7	200.8	225.3	233.6
농작물수입 (천원)	1,934	2,461	2,927	3,220	3,845	4,231
지 수	100.0	127.2	131.3	166.5	198.8	218.8
花卉類生産額 (원)	7,182,294	6,469,447	8,544,874	13,365,022	14,242,198	13,904,753
지 수	100.0	82.8	109.4	171.1	182.3	178.0
제주지역 화훼류 생산액 (원)	-	-	-	32,695,487	22,858,706	16,754,111
지 수	-	-	-	599.5 (100.0)	419.1 (69.9)	307.2 (51.3)

## 2. 特化品目

(표 7)에서 본 바와 같이 切花類에 있어서 生産額 比重面에서 全體의 백합 95.9%, 프리지어 84.5%, 극락조화 82.2%, 거베라 74.8%, 글라디올러스 52.7%, 튜울립 31.8%, 스토크 29.7%, 아이리스 26.9%, 단개초 4.1%의 比重을 보임으로써 이들 9개 花種이 特化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주로 球根類에 特化되고 있는데 이들의 坪當生産額은 地域別로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다음(표 76)과 같다.

切花類의 전국 평균 坪當生産額은 12,335원이며 地域別로 보면(표 76) 부산 19,191원,

제주 19,156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전남 16,502 원, 경남 12,994 원, 전북 11,797 원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地域은 인천의 2,363 원이다.

( 표 76 ) 切花類의 地域別 坪當生産額 (1985)

( 단위 : 원 )

지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
국 화	5,389	12,751	5,548	2,349	8,482	1,424	1,861	6,132	22,648	15,353	7,189	8,700	24,726	9,040
카네이션	-	32,737	1,200	-	16,175	-	-	8,000	2,087	26,704	3,333	17,517	25,857	19,943
장 미	2,010	24,733	-	2,124	11,089	167	11,833	7,475	4,067	18,264	1,833	24,926	-	14,540
백 합	-	-	-	-	10,000	-	-	11,100	4,389	-	4,824	-	16,080	15,402
글 라 디 올 러 스	417	14,444	6,667	2,373	9,819	2,000	-	13,952	4,182	-	1,995	22,600	20,242	12,709
안 개 초	-	-	-	-	4,715	-	-	6,494	23,333	10,918	3,318	19,179	7,599	14,468
튤 율 립	-	6,333	-	2,582	9,401	-	-	5,661	6,760	5,050	-	-	45,750	8,910
프 리 지 아	-	-	-	2,372	4,867	-	-	-	-	-	-	26,500	12,602	9,400
아 이 리 스	5,349	11,500	-	-	52,102	-	-	-	3,000	34,167	-	48,167	-	33,206
극 락 조 화	-	-	-	2,367	-	-	-	-	40,000	-	-	-	21,697	17,088
스 토 크	-	-	-	-	-	-	-	-	-	-	-	17,457	11,083	14,907
거 베 라	-	-	-	-	-	-	-	8,033	-	-	-	-	87,500	25,062
기 타	9,524	11,880	4,000	2,457	7,295	8,004	11,792	6,575	5,344	22,345	4,181	11,483	12,733	9,881
평 균	5,060	19,191	5,495	2,363	10,239	4,004	5,794	7,640	11,797	16,502	5,604	12,994	19,156	12,335

한편, 坪當 生産額을 종류별로 비교해 보면 아이리스가 33,206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거베라 25,062 원, 카네이션 19,943 원, 극락조화 17,088 원, 백합 15,402 원 등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것은 튤립의 8,910 원이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경우를 보면 전국 평균치의 배를 넘는 것이 국화, 거베라이고 전국평균치를 웃도는 것이 카네이션,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아이리스, 극락조화로서 그런대로 球根類 切花의 產地形成 可能性을 보여 주고 있다. 전국평균치를 밑도는 것은 안개초 (약 절반 수준임), 스톡 등이 되고 있다.

그리고 球根類의 종류별 생산액을 보면 전국 평균 坪當 生産額은 18,130 원인데 ( 표 77 )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 37,516 원이며 다음이 제주 25,052 원, 경남 15,109 원, 경기 15,830 원 順이다. 가장 낮은 地域은 경북 1,667 원이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83 年 球根類 坪當 生産額은 3,481 원이었는데 85 년에는 25,050 원으로서 급격한 증대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이

다. 참고로 83 年の 경우를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이 부산 67,945 원, 전남 22,421 원, 충남 18,709 원 順이었는데 85 年에는 그 順位가 바뀌어 전남 37,516 원, 제주 25,050 원, 경기 15,830 원으로 되고 있다.

또한 종류별로 비교해 보면 백합이 23,533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글라디올러스 22,811 원, 아마릴리스 20,238 원, 아이리스 17,541 원 順이며 가장 낮은 것은 칸나 3,333 원이다.

제주지역은 백합, 아이리스, 아마릴리스 등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지역은 이미 球根類에 特化하면서 産地形成이 進行되고 있으므로 戰略品目으로 球根類를 設定하여 이들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당면과제라 생각된다. 46)

( 표 77 ) 球根類의 地域別 坪當生産額 (1985)

( 단위 : 원 )

지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
백합	16,667	13,971	-	12,500	19,707	-	7,367	2,667	11,076	34,305	1,667	17,933	24,694	23,533
글라디올러스	2,283	13,600	-	12,500	2,941	1,100	5,758	6,708	11,778	54,642	-	22,963	22,000	22,811
튜울립	2,085	-	-	11,002	10,480	-	-	5,358	16,383	10,833	-	16,200	-	8,998
아이리스	1,667	36,000	-	-	15,656	-	-	1,917	2,200	-	-	13,067	36,458	17,541
수선	-	-	-	-	-	-	-	-	-	9,333	-	-	-	9,333
프리지어	-	-	-	15,496	-	-	-	-	133	17,333	-	-	-	13,564
아마릴리스	-	-	-	-	-	-	-	-	8,333	13,333	-	-	24,000	20,238
다알리아	-	8,333	-	-	-	-	-	-	-	-	-	-	-	8,333
칸나	-	-	-	-	-	-	-	-	3,333	-	-	-	-	3,333
기타	8,333	4,754	-	-	25,571	27,205	13,333	881	4,000	43,913	-	6,426	14,967	9,845
평균	3,961	11,302	-	12,500	15,830	2,498	7,289	3,347	9,270	37,516	1,667	15,109	25,050	18,130

以上 球根類外에 국화, 카네이션, 제주한란 등 난류, 제주수선, 제주향토수목, 自生植物, 유채꽃, 切花用양란, 선인장 등이 追加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中山間 利用 極大化 및 겨울의 온란성과 관련하여 꽃꽂이 소재류 재배확대가 바람직하다. 꽃꽂이 소재류는 아직 개발의 여

46) 가든상사에서는 1984 年 화란왕실에서 운영하는 토양검사소에 의뢰, 분석한 결과 제주도는 백합재 배의 최적지로 판명된 바 있다; 한국화훼협회; 화훼협회보 1985.5. p.10.

지가 많을 뿐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물량의 태반이 自然採取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代替가 재배素材로 바뀔 경우 그 物量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밝은 전망이다. 素材用 가지 (枝物) 花木의 재배는 草花재배와 달리 토지를 선택하지 않아 山林原野에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도의 中山間 利用문제와 결부하여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히 본도는 겨울의 온난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이용한 促成재배가 성립될 수 있는 利點도 지니고 있다 (강경선 : 제주도내 특수 수종의 자원화 방안, 제대 사회 발전연구소, 1986 참조요).

그 가능 품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木本性 素材 : 조팝나무, 벗나무, 산수유, 진달래, 철쭉, 동백, 측백, 삼나무, 백정화, 유카리 등

② 草本性 素材 : 소철, 연란, 신서란, 관음죽, 꽃양배추 등

현재 素材類 재배 전문 농장은 아직 없는 형편이고 자연보호에 따라 자연 소재 채취는 더욱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 제주지역은 郷土樹木 재배 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소재류 재배단지를 중산간에 조성하여 이들의 주요 생산공급지로 본도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로 花木類의 地域別 坪當 生産額을 보면 (표 78) 서울 28,350 원으로 제일 높고 (83년은 제주가 22,907 원으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이 전남 13,325 원, 부산 12,973 원, 제주 12,775 원 順으로 되고 있어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러한 花木類를 素材用 枝物로 상품화할 때 수송의 간편성 등으로 수송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표 78 ) 花木類의 地域別 坪當生産額 (1985)

( 단위 : 원 )

지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
철쭉	-	5,000	-	-	2,516	-	-15,930	-	-10,591	-	-	-20,851	-	9,769
진달래	22,831	21,667	800	-	4,211	-	-15,545	7,872	10,917	5,942	-	-19,082	-	-11,849
목련	3,867	8,242	4,111	2,642	12,118	9,333	5,496	10,245	9,793	18,094	-	4,890	-	9,471
무궁화	-	-	-	-	800	-	1,165	7,829	5,833	16,071	4,578	10,000	889	5,256
연산홍	-	-	-	-	15,625	-	-	8,957	7,858	7,000	-	-	-24,000	9,770
동백	-	6,000	-	-	-	700	-	-205,533	11,400	23,677	-	-	-12,047	20,287
개나리	-	-	-	-	-	-	-	-	2,433	-	-	784	-	1,341
목백일홍	-	-	-	-	-	-	-	-	9,044	6,030	-	-	-	8,039
벗꽃	-	-	-	-	-	-	-	-	-	9,111	-	-	-	9,111
장미	-	-	-	3,792	-	21,167	-	-	-32,500	-	-	-	-	9,545
천리향	-	-	-	-	-	-	-	-	8,000	-	-	-	-	8,000
기타	39,713	50,000	193	-	8,436	11,583	2,444	4,827	3,556	73,248	4,021	459	21,485	8,304
평 균	28,350	12,903	2,354	3,217	7,975	10,696	4,759	9,739	9,862	13,325	4,077	3,030	12,775	10,533

### 3. 花卉類 需要의 豫測

花卉類 全體에 관한 생산액과 소득관계를 보면 80年度 不變價格으로 총생산액은 14年 동안 (71~84) 5.4 배 가량 증가한 반면에 소득은 1.7 배 밖에 증가하지 않아 花卉의 需要가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所得彈力性은 2,000 (韓汶奎: 花卉需要 및 市場構造分析)을 넘고 있어 앞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花卉農業은 밝은 전망이 기대된다(日本の 切花類 所得彈力性은 1,1954 로 나타나고 있다. : 首都圏 流通問題研究會編, 農産物 流通の 現代的課題). 이에 따라 소득은 1990年까지는 매년 5.6%씩 증가하고 그후 2000年까지는 매년 5.1%씩 증가하며 여타조건(자재가격 및 타재화 가격)은 불변으로 할 때(이정환의: 韓國農産物 需要分析, KREI 연구보고) 장기 수요예측을 해 보면(표 79) 2000년에 가서는 切花의 경우 지금의 약 13.8 배 가량 증가하고, 분화의 경우 약 15.4 배, 花木의 경우 5.4 배, 觀賞樹의 경우 약 5.3 배 가량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45)</sup> 참고로 염도의: 원예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업화학 협회 및 김준기: 화훼산업 육성방안 조사연구, 농어촌개발공사 등의 수요예측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함께 밝힌다.

(표 79) 花卉類 需要豫測量

	切花 需要量 (백만本)			盆花 需要量 (千本)			花木 需要量 (千株)			觀賞樹 需要量 (千株)		
	韓汶奎	염도의	김준기	韓汶奎	염도의		韓汶奎	염도의		韓汶奎	염도의	
1984	125.00*		101.979	26899*	1		19514*			62528*		
85	148.62		110.029	32198			21817			69843		
86	171.70	250.10	124.637	38541	17220		24391	102500		78051	66420	
87	210.09		124.615	46134			27269			87143		
88	249.80		130.78	55222			30486			97339		
89	297.02		137.25	66100			34084			108727		
90	353.15		144.05	79122			38106			121448		
91	413.89	397.32	151.18	93364	27920		42183	136840		134322	108240	
92	485.08		158.67	110170			46697			148560		
93	568.52		166.54	130000			51693			164308		
94	666.30		174.80	153400			57225			181724		
95	780.90		183.47	181010			63348			200987		
96	915.22	571.99	192.58	213600	51700		70126	191760		222292	129720	
97	1072.26		202.14	252040			77630			245855		
98	1257.87		212.18	297410			85936			271915		
99	1473.30		222.72	350950			95132			300738		
2000	1726.71	755.00	233.79	414120	65000		105310	255500		332617	14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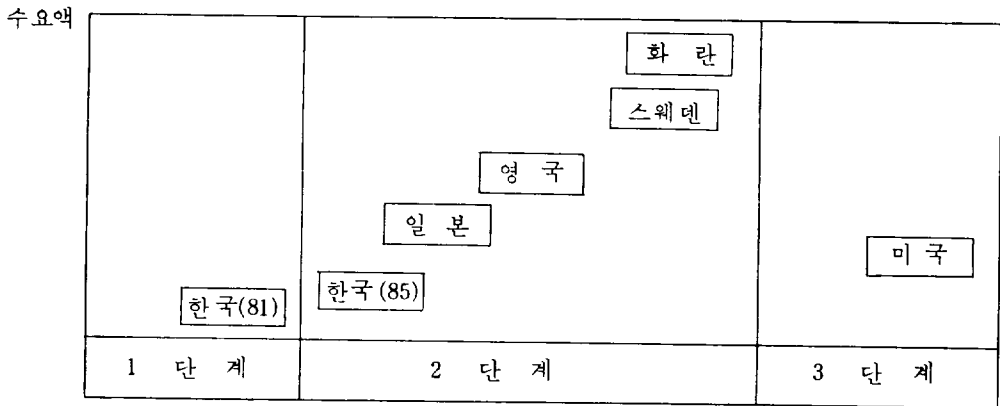
\*는 실제치

45) 韓汶奎; 前掲書 p.30.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所得과 需要量과의 관계에서 볼 때 3 단계의 모형 (그림 5,6 참조 및 그림 23) 중 제 2 단계에 進入하고 있어 이 단계에는 점진적인 단계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단계로서 화훼소비 증가는 소득의 증가속도를 훨씬 앞지르게 된다. 어떻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 高級切花 즉 球根類 切花인 튜올립, 수선, 글라디올러스, 백합, 난류, 관상수 소비가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趨勢를 감안하여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生産調整 내지 대응체계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 그림 23 〉 各國의 花卉발전단계



#### 4. 生産體制 整備對策

##### (1) 生産團地의 造成

제주지역의 花卉農家は 85年 현재 314戶 (專業 107戶, 副業 207호, 비닐 house率 41.9%, 露地 56.4%)이나 이들 農家は 대부분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하여 個別農家 單位로 分散된「點의 生産」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面의 生産」즉 生産團地化의 方向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施設園藝는 生産物의 수요증가와 비닐, 石油 등 資本財의 供給增加 등에 대응하여 급속히 발전해 온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技術革新이 전제되며 資本集約的 資本型 經營이 追求되게 마련이다. 기술혁신은 Schumpeter에 따르면 新結合을 의미하며, ① 新生産物의 結合, ② 新生産方法의 導入, ③ 新販路의 개척, ④ 新資本의 획득, ⑤ 新組織의 達成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②는 생산과정에 관한 것으로 적어도 최초에는 個別農家の 企業活動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③은 産地形成後 農家集團의 조직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⑤의 新組織의 달성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施設園藝의 生産方法 革新의 展開를 보면, ① 노동사용·자본절약적 生産방법에서 노동절약·자본사용적 生産방법에의 변화로, ② 土地使用·資本節約의 生産方法에서 土地節約·資本使用的 生産方法에의 변화로, ③ 土地機能活用的 生産方法에서 管理機能活用的 生産方法에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效率인 경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生産團地 造成이라는 方法이 도입되고 있는데 施設園藝團地란 종래의 個別 施設園藝經營農家 單位の 단순한 主產地 形成이 아니라 生産물의 계획생산에서 계획판매까지를 system化할 수 있는 生産組織(協業組織)에 의한 대규모 生産단위를 뜻한다. 그럼으로써 工業과 마찬가지로 대량생산의 merit를 團地施設의 적정한 설치운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生産단지에서는 生産물 품질의 통일, 生産·판매 cost의 低減, 生産의 計劃化, 적정한 販賣調整, 技術의 보급·향상이 가능케 된다. 구체적으로는 例컨대 백합생산은 施肥, 관수, 防除, 除草 등 재배관리와 採花에 관한 溫室內 作業은 個個의 構成員에 의해 수행되고 選花, 포장작업 등은 공동의 選花施設에서 처리된다. 그러므로 生産단지에서는 分業과 協業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作業종류를 단순화하여 作業량을 줄이면서 적정 生産규모를 유지하여 專作化의 merit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生産團地에는 團地施設로서 生産단계의 표준화, 규격화를 높이고 노력을 輕減하는 共同育苗施設, 選花, 포장의 노력을 경감하고 상품에 규격성, 표준성을 확립케 하며 시장에서의 판매를 유리하게 하는 共同選花 包裝施設, 鮮度 保持向上을 위한 冷蔵貯藏施設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諸施設을 有效 利用할 수 있는 1團地當 規模는 3~5 ha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花卉類 栽培面積 98.3 ha를 점진적으로 一定 地域에의 集積을 유도하면서 마을을 單位로 하는 團地造成技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團地設定은 切花類 需要推定(표 79)을 감안할 때 88년에 84년의 약 2배 수준으로 되고 있으므로 98.3 ha의 2배인 200 ha 규모 40個 團地로 하는 方向設定이 가능할 것이다.

## (2) 花卉作目班의 組織

花卉生産의 基本方針은 需要에 적합한 상품의 소비와 生産의 균형을 有效適切하게 調整할 수 있는 生産과 流通體制를 확립하여 가격의 적정 안정화를 실현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3가지의 중요한 産地의 要件을 지적해 주고 있다. 즉 첫째는 수요에 적합한 生産으로 生産을 소비측면에서 생각하는(팔릴 수 있는 상품의 生産) marketing 視點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적정한 가격과 안정의 실현이고, 셋째는 소비와 生産의 조정이다. 그것은 生産·流通體制 즉 産地組織의 構築으로서 산지조직의 중요한 기능을 生産과 出하의 조정에 두고 있는 것이다. 産地組織(例컨대 作目班 組織 또는 共同出荷班 組織, 더욱 나아가서는 作目班間 協議組織 등)은 生産物의 量과 分荷의 調整뿐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에 적합한 生産

의 조정기능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과 같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基本組織으로서 花卉作目班을 조직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제주지역의 花卉生産은 點의 生産이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一定의 작목반을 조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 감귤 등의 작목반 조직과 같은 類型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廣域體系의 作目班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例컨대 北濟州의 花卉農家(觀賞樹 재배농가까지를 포함하여)는 分散되어 있어 적정규모의 農家集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조직방법으로는 첫째, 화훼농가가 소속하고 있는 農協單位別로 각 화훼작목반을 소규모이나마 조직케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廣域組織化-濟州市, 北郡 作目班間 協議體를 構成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고 애월단협과 한림단협, 제주시단협과 조천단협의 協同組合間 聯合에 의한 화훼작목반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화훼생산단지 조성과 화훼작목반 구성은 상호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제주지역의 화훼농업을 발전시키려면 생산단지조성 ↔ 화훼작목반 조직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강조된다.

### (3) 生産體制 整備

販賣指向의 視點에서 수요에 적합한 계획생산을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團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다음 諸事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① 全國的 視野에서 調整, 計劃, 生産을 指導한다.
- ② 品目別로 産地의 造成·育成을 기한다.
- ③ 基幹作目과 補助作目과의 조합으로 周年栽培體系를 확립한다.
- ④ 作目の 種類와 品種을 정리 통일한다.
- ⑤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생산시설의 대형화, 기계화, 공동화를 촉진하고 省力栽培 體系를 확립한다.
- ⑥ 생산기술의 개선·향상과 표준화
- ⑦ 생산조직(작목반)을 조직 체계화한다.

여기서는 消費者 志向의 計劃生産뿐 아니라 他産地와의 경쟁을 고려에 넣은 全體計劃과 道內産地를 育成하는 방향, 바꾸어 말하면 産地形成, 基幹作目, 品種, 周年栽培와 省力技術體系, 생산성 향상과 표준화, 산지조직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産地主體에 공통된 製品計劃(product planning)의 기본이라 말할 수 있다.

## 5. 販賣對策

현재 우리나라의 花卉類 流通의 중심체계는 생산자 → 산지 직·공판장이라는 생산자들에

의한 공동출자, 공동판매의 형태를 보이는 바 없지않으나 生産者對 中間商人으로서 都賣商人團 (委託商)의 막강한 세력으로 유통의 전단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法定都賣市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중앙단위에서는 法定都賣市場을 開設하여 花卉類 流通의 近代化를 기하는 것이 우선 요구되고 있다. 현단계의 화훼류 시장구조는 買者과점적 현상을 보이고 있고 (Ⅲ장참조) 판매과정에서는 都賣뿐 아니라 대소비자 전역을 그들의 小賣商團으로 포섭-폐쇄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生産者의 市場對應-市場行動 (販賣戰略)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를 地域單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農協에 의한 共販의 展開

현재 한국화훼협회 제주도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輸送共同으로 생산자들에게 수송비 절감 등 기여되는 바 없지 않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면 農協이 花卉農業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그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여기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지적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① 70年代 末期부터 所得水準의 향상에 따라 화훼류에 대한 국내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국화, 카네이션, 장미 등의 切花는 종래의 소비계층과 특수단체에만 국한되었던 소비수준이 대중소비화로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신흥산지가 조성되고 기존산지는 재배농가의 새로운 진입과 규모확대로 화훼생산의 量的 成長을 도모하는 한편 소비시장을 둘러싼 產地間 競爭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② 그러나 한편에서는 즉 流通側面은 前近代的인 買者과점-폐쇄체계가 支配的이다.

③ 產地形成段階가 篤農家的 段階에서 大衆普及段階 (→主產地形成段階)으로 移行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進展은 農家間의 機能的 組織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共販體制의 확립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어 生産體系 ↔ 團地造成, 販賣體系 ↔ 共同販賣 등을 生産者組織 ↔ 農協의 leadership에 의해 강력히 추진할 단계에 서있는 것이다.

共同販賣는 경제의 발전에 따라 생산농가나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그 原理的目的을 보면, ① 중간 상업자본의 배제, 대채와 중간경비, 유통경비의 절감, 절약된 유통비 부문을 생산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는 점, ② 大量集積에 의한 去來力 = 價格形成力의 강화와 小農生産物의 유리한 가치실현, ③ 大量集積에 의한 販賣調整 (流通調整)으로 가격의 平準化, 安定化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所得形成力 低下와 관련하여 더욱 강조되며, 제주지역의 화훼생산 농가는 販賣代金 回收期間이 3주대가 45%로 가장 많고 4주 이상도 40%나 나타나고 있어 共同販賣라는 次元에서 組織的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sup>47)</sup>

47) 강경선; 청과물유통의 제문제와 그 개선방향, 제대 새마을연구소 1984에서 共同販賣에 대한 것을 참조할 것

그리고 현판매방법에 대해서 70%가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고 공동판매를 대부분 바라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만한 產地組織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生産·集出荷·販賣를 연결하는 產地組織과 共同販賣는 추진되어야 할 분야이다.

## (2) marketing 戰略

產地間 競爭을 전제로 할 때 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기로서는 花卉類의 品質向上(均質化를 포함해서), cost 節約 등 生産面에서의 近代化에 대하여 marketing 戰略의 展開라는 流通面에 있어서의 近代化가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marketing 戰略이란 個別marketing 機能을 統合 내지 mix 한 system 으로서의 marketing 기능을 의미한다.

사실 농산물은 有機的 生産物이라는 점에서 ① 腐敗性(또는 非貯藏性), ② 季節的 生産物, ③ 重量性(增高性)으로 인하여 輸送比價가 높고, ④ 品質, 形狀의 格差(個體差)가 크고 규격화, 표준화의 곤란성 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花卉類는 이상의 특징이 더 강조되며 必需的 性格이 약하고 市場에서는 거의 完全競爭에 一致한다. 그러므로 零細多數의 生産者가 個別的으로 販賣活動을 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며 주어진 市場條件(市場構造)下에서 共同販賣活動이라는 市場行動이 요청된다. 그렇기 때문에 市場志向(market oriented)인 販賣管理가 重視되어 生産者 側에서는 ① 어떠한 需要가 있는지의 市場調査(market research), ② 市場調査에서 드러난 需要의 內容을 製品에 體化하는 製品化 計劃(product planning) 및 생산된 製品의 販賣를 촉진하는 販賣促進(sales promotion)이 요구된다.<sup>48)</sup>

이와 같이 marketing mix 라는 次元에서 市場調査에 입각하여 消費者의 意向과 요구를 製品(生産)計劃에 반영시켜 그것을 新製品의 性能, design, model 등에 具象化하고 또한 品質, 性能 등 既存製品과의 差別化를 통하여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개발 창조해 나간다고 하는 일련의 생산판매 一體化·管理으로 機能이 綜合化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生産管理가 販賣管理의 構成要素로 변화하는 管理體系의 逆轉 變化를 뜻한다.

이상의 marketing 戰略의 推進 主體는 生産團地+作目班+農協이 구성하는 생산 또는 出荷組織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며 行政體가 支援役割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48) 企業의 marketing 論에 있어서 市場行動에 相應하는 論理 즉 4p(product, place, promotion, price)를 보면 다음과 같다; E. Jeremo McCarthy ; ① 製品 ( product ) ; 製品의 決定, 新製品의 開發·導入, 既存製品의 改良·新用途의 개척, 製品의 混成 등 제품 그 자체에 관한 것은 물론 包裝, 商標에 관한 것에 이르기까지 製品에 관계되는 일체의 계획, 행동을 포함하는 영역, ② 場所 ( place ) ; 販賣 經路의 選定, 販賣業者의 管理 등 經路에 관한 것 외에 운송, 보관 등 이른바 物的 流通까지를 포함하여 製品을 어디에, 누구에 의해 판매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체의 계획과 행동을 포함하는 영역, ③ 販賣促進 ( promotion ) ; 광고, salesmanship 을 중심으로 特賣, 陳列, 展示, 진람회 등 소비자의 욕망 자극, 구매 심득에 관한 모든 계획, 행동을 포함하는 영역, ④ 價格 ( price ) ; 가격의 결정, 가격의 유지, 差別價格의 設定 등 가격에 관한 일체의 계획과 행동을 포괄하는 영역.

(3) 組織的 管理的 領域

여기서는 花卉販賣 主體로서의 出荷組織의 販賣管理領域을 主體(組織)의 側面에서 약간 검토코자 한다.

出荷面에서의 組織化를 통하여 marketing 機能이 物的 流通과 商去來 兩面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低 cost로 수행할 수 있는 system을 형성하는 것이 첫째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system의 형성에는 생산단계의 기술구조와 경영조건, 교통수송과 시장·유통기구, 혹은 소비의 지역적 동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出荷組織의 marketing 기능은 생산물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情報活動, ② 選花包裝, ③ 販賣管理, ④ 需給調整 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情報活動은 市況의 入手傳達, 他産地의 動向把握, 販賣促進活動 등이 포함된다. 이들 활동은 個別 小農經營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분야들이다. 그러므로 이들 활동은 적어도 産地全體, 구체적으로는 道單位의 組織이 分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분야는 화훼협회 제주도지부가 市況의 入手傳達 등은 그런대로 하고 있으나 他産地의 動向把握, 販賣促進活動 등에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選花包裝關聯業務는 有機的 生産인 농업에 있어서 그 생산물을 상품으로 다듬는 과정에 불가결한 업무의 하나이다. 특히 개별경영으로서는 생산량이 영세하며 그러면서도 分散되어 있고 각각 토양조건이나 기타 입지조건이 다르다. 이들 포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규격화하는 업무가 選花包裝인 것이다. 이것은 集團活動으로서의 共同販賣의 기본업무로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 또한 여기에는 商品差別化 問題까지도 포함되며, 集荷, 選花方法, 檢査, 精算 등 일련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個別選花, 包裝에 의존하고 있으며 選花時 等級基準은 생산자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는 것이 지배적이고 상인은 또한 상인대로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형성 등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그런데 包裝資材는 골판지 상자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지역은 商品差別化 問題와 관련하여 選花基準에 따른 共同選花, 包裝으로 제주지역 나름의 質的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부록2 日本의 出荷規格 참조요).

앞에서 지적된 共同販賣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현단계 : 個別 選花-包裝·共同輸送(항공-서울)·個別 販賣
- ② 발전체계 : 共同選花-包裝·共同輸送·共同販賣 : 共同出役으로 공동선별, 포장작업을 하고 個人別 計算, 共同商標 - 例컨대 작목반별 농협商號 -를 中心으로 출하조직(농협 등)에 의한 共同販賣(초기에는 단순판매 앞선)를 설정해 볼 수 있다.

화훼생산 농가는 대부분 경매에 의한 판매방법과 또한 공동판매를 대부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판매방법에 대하여 대부분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어 그 개선책이 바라지고 있는 실정이다(표 34 및 그림 14 참조).

세째, 販賣管理는 협의의 marketing 活動 全體를 포함하는데 구체적으로는 市場選擇, 出荷調整, 기타 販賣業務의 一切를 포괄한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가격형성을 유리하게 하며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花卉生産農家의 市場選擇은 주로 委託商 및 都賣商에게 거의 모든 물량을 출하하고 있으며 판매처 동기를 보면(표 36) 기존거래선과의 관계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출하지역별 판매구성비를 보면 서울지역 60%, 대구지역 20%, 부산지역 15%로서 대도시 집중형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합리적인 시장선택과 市場의 細分化 및 出荷調整이 있어야 될 것이다.

出荷調整은 調整販賣(orderly marketing)로서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개선책의 하나이다. 販賣도 有機的, 組織的인 管理下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販賣政策으로서 택해지는 販賣를 특히 調整販賣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① 收穫期 價格豫測에 따라 언제(時期調整), 어디에(場所調整), 무엇을(形質調整), 얼마만큼(數量調整) 販賣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 諸調整策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數量調整이다. 그 대책으로서는 ① 時期的 調整, ② 地理的 調整, ③ 用途別 調整, ④ 製品差別化와 差別價格에 의한 收益極大化, ⑤ 市場總供給量 制限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는 作付體系調整에서 가능할 것이다.

네째, 需給調整機能은 단순한 생산물의 販賣調整뿐 아니라 다른 產地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복잡한 내용이 포함된다.

앞으로 花卉類는 品目에 따라 과잉현상이 없지 않을 것이며 지역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需給調整이 불가피할 것이다. 여기에서의 需給調整機能이란 특정작목을 대상으로 할 때 농협이 주체가 되어(국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그 수단으로는 공급조정과 수요창조를 상정하기로 한다.<sup>49)</sup> 공급조정에는 생산조정과 출하조정 및 調整保管이 포함되고 판매촉진, 새로운 유통경로의 개척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 marketing 전략과 거의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농산물은 대부분 수확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부패성이 강하다는 특징과 결부되어 수확을 끝마친 후에는 수급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그러므로 출하조정만으로는 한정적임) 生産-作付面積調整에서부터 조정이 불가피하다. 바로 이것은 수요에

49) W. W. Cochrane; Some Further Reflection Supply Control, Journal of Farm Economics, 41-4 Nov., p.697; 供給調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급조정이란 상품별로 每年 책임있는 기관에 의해 公正하게 결정된 市場價格을 실현하기 위해 수요에 대하여 공급을 의식적으로 조정 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알맞는 생산으로 생산을 소비측면에서 보는 marketing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서 生産-販賣管理가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sup>50)</sup> 즉 調整販賣에서 供給調整이라는 차원으로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地域間 調整協議 즉 산지간 협력이 제주지역이 主體가 되어 球根類 生産地域인 경기, 전남 등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6. 企業家的 經營의 確立

花卉經營의 특색의 하나는 經營主의 花卉生産에 대한 行動力으로서 花卉에 대한 熱意와 經營技術에의 확신이 핵심이 된다. 그러므로 行動科學的 農業經營의 典型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技術的 師弟關係 經營的인 協業·共同關係가 강조되는 것도 특색이다.

또한 商品生産의 展開過程에 있어서 家族經營의 發展은 勞動型 經營에서 準資本型 經營(脫勞動型 經營), 나아가서는 資本型 經營(企業的 經營)으로 分化 發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花卉經營은 아직 資本·經營者 能力은 미성숙단계에 있지만 經營者의 意識은 企業的 採算性을 追求하여 資本效率의 最大化를 第1義로 삼게 된다. 왜냐하면 시설원예는 土地利用의 高度化로 자연조건인 人工的 制御를 하기 위해 시설 등의 자본장비가 크고 노동이 多投되어 고도로 자본집약적, 노동집약적 경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經營의 成長·發展은 計劃 → 實踐 → 分析·管理에 관계되는 經營行動의 cycle에 의해 실현되므로 能動的이고 主體的인 經營行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技術革新-① 새로운 생산물의 개발, ②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③ 새로운 販路의 개척, ④ 新資源의 획득, ⑤ 새로운 組織의 실현이 경영내외에서 부단히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現代科學 技術의 進歩는 花卉生産의 기술혁신에 공헌하여 밝은 전망이 주어지고 있다. 첫째는 Biotechnology의 발전이다. Biotechnology는 시설원예 분야에서는 난류를 비롯하여 花卉의 生長點 組織培養으로 實用化되어 種苗價格의 低下와 品質向上에 획기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들 기술혁신은 「農業의 工業化」라 하여 自然機能을 資本으로 代替하는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 있다. 둘째는 環境制御技術의 진보이다. 셋째는 情報system의 확립이다.

이상과 같은 施設園藝의 3가지 기술혁신을 主體的으로 어떻게 受容해 나갈 것인가는 個別 生産農家뿐 아니라 제주지역의 시설원예의 지속적 발전과도 관계되는 문제이다.

50) 강경선; 前掲書 p.33에서 수급조정에 대해서는 참조할 것.



## 7. 몇 가지 助成措置

### (1) 地力形成

제주지역의 花卉生産農家は 事例調査에서 퇴비 등 유기물 부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대부분 지적하고 있어 광의의 地力維持문제로 파악하여 약간의 검토가 요구된다. 즉 地力形成의 기본은 「地力利用의 原理」와 「地力利用의 原理」의 두 가지가 있는데 前者는 作付體系(輪作)의 문제이고, 後者의 문제는 대표적인 것으로 有機質 資材의 投入이다. 그러므로 地力維持의 기본적인 기술은 輪作과 퇴비施用으로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有畜農業이 理想的이다. 현실적으로 花卉農家 대부분은 無畜의 專業性을 띠고 있다. 花卉農業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地力再生産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로서 地域複合 등을 통하여 畜産農家와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다.

### (2) 技術의 高度化와 研修活動

施設園藝의 技術的, 經濟的 特質을 들어보면, ① 시설원예의 기술적 특질은 作物의 成育條件 특히 溫度條件, 日照條件을 人工的으로 制御함으로써 促成 혹은 抑制 재배를 하는 것이다. ② 각 作物의 成育時期를 제어하여 時間的 組合를 함으로써 特定作物의 周年栽培와 複數作物의 윤작으로 周年栽培가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농업생산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왔던 생산의 同時化 내지 連續性이 가능하다. ③ 온도 조절용의 석유, 비료, 농약 등 補助에너지 多消費型 생산이다. ④ 土地利用 高度化와 自然條件의 人工的 制御를 하기 위해 시설 등의 자본장비가 크고 노동이 많이 투입되어 고도의 자본집약적, 노동집약적 경영이다. ⑤ 露地栽培作物의 不時期에 출하하여 高價格의 실현, 高附加價値의 실현을 기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花卉生産은 高度의 技術과 資本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런데 事例調査農家의 대부분은 생산성, 품질, 기술부족 또는 기술정보 수집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므로 技術革新과 관련하여 花卉에 대한 技術의 教育·研修機會를 확대하여 技術의 高度化·平準化를 기함은 물론 個別生産農家의 人材革新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研究·開發施設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제주지역의 花卉生産은 導入初부터 상품생산을 基調로 하여 先驅的인 個別農家의 企業活動에 의존하고 있다. 즉 花卉生産技術은 보통 기술과 마찬가지로 革新者가 革新을 수행하고 그것을 少數의 追從者가 각각 경영조건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더욱이 그것을 多數의 추종자가 전면적으로 모방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보급된다. 이러한 革新技術의 창조 및 보급은 주로 개별농가 - 이른바 독농가에 의해 담당되어 왔다. 그런데 花卉의 導入期에는 독농가 중심체계로 가능하나 產地形成期 → 產地發展期에는 보다 보편적인 생산기술 습득방법이 개발되어 기술혁신을 밀받침 할 수 있어야만 한다.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은 技

術源을 주로 書籍, 자기경험, 독농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營農資金의 擴大

위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花卉經營은 고도의 자본집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資金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실태(사계조사)를 보면 영농자금 조달을 제도금융에 19.7%, 私債에 19.1% 의존하고 있다. 또한 切花 生産費目中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種苗費(52.5%)이다. 이것은 제주지역은 구근류에 특화하고 있어 수입종구를 사용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자금수요량과 그 시기를 조사해 본 결과 戶當 平均 자금수요량은 561만원이었으며 시기는 7-9월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시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 (4) 輸出基盤의 助成

VI에서 日本,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의 花卉事情을 요약한 바 있지만 한국-제주지역이 花卉輸出을 보다 적극화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花卉수출국들의 支援施策을 중심으로 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① 航空料 負擔 등 輕減

花卉輸出國들은 대부분 항공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즉 화란은 特別 取扱品目으로 分類하여 大幅割引혜택을 주는 제도가 채택되고 있다(S.C.R). 그러한 결과 한 예를 보면 싱가포르 ↔ 네덜란드간의 운송료는 kg當 싱 \$ 3이나 한국 ↔ 싱가포르간 가격이 kg當 美 \$ 4.50, 약 싱 \$ 10으로 항공운송면에서 가격경쟁이 불가능하다.

또한 콜롬비아는 國營航空을 專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花卉專用 輸送機가 매일 미국의 마이아미까지 약 3시간이면 수송되고 있다. 그러한 결과 1978年 미국시장에서 콜롬비아産 카네이션이 차지하던 비율은 약 2~3%에 불과하였으나 1982年 미국의 카네이션 소비량은 약 4억本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콜롬비아는 62%의 비중으로 급증하였다.

태국은 주로 洋蘭을 수출하고 있는데(洋蘭 재배역사는 약 20년이 되고 있다), 방콕 ↔ 東京間은 비행기로 약 6시간이 요하고 그 수송비가 문제되어 왔는데 최근 항공화물요금 특별할인제도가 인가되어 실질 9%가 하락됨으로써 日本市場에의 切花수출은 보다 유리해졌다.

물론 이상과 같은 항공수송료의 할인혜택뿐 아니라 콜롬비아 등은 다른 수출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장려금 제도와 低利 融資制度를 통하여 花卉類를 수출산업으로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花卉類를 수출산업화 하려면 적어도 경쟁국들이 취하고 있는 항공수송비 경감문제, 수출금융지원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② 포장기술 등의 개발

대부분 花卉는 팔판지 carton box에 스티로폼을 넣어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여 포장하

고 있다. 대만은 이러한 포장의 경우 대다수의 화훼류 포장공장이 아직 가내수공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포장기계화 공장설립을 기하고 있다. 또한 선박수송도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포장방법이 개발되었다. 즉 꽃송이를 플라스틱 주머니로 싸워 10송이를 하나로 묶은 다음 에틸렌 선도보호액을 적신 솜으로 꽃가지를 감싸고 다시 은박지로 포장하여 상자에 담아 냉장창고에 넣어 가냉동상태로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10일 이상 선도유지가 가능하여 일본 등 동남아시아 지역 정도는 배로 운반해도 가능하게 되고 있다 (항공수송료의 3분의 1 수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選花, 包裝 등에 대한 기술적인 혁신이 있어야 될 것이다.

### ③ 생산-수출의 체계화 정비

海外市場調査 → 製品(生産)計劃 → 輸出이라는 일련의 체계가 세워져야 한다. 태국의 한 예를 보면 flower center (생산농가 약 500戶가 出資者로 되어 있음)가 苗의 配布-生産-集荷-輸出業務를 수행한다. 여기에서는 農家가 수확한 후 24時間 以内に 集荷하여 그 후 24시간 이내에 수출되고 있다.

우리로서도 어떤 品目이 수출가능하다고 할 때 적정규격의 생산-집하-수출할 수 있는 生産團地가 設定되어야 한다.

또한 花卉類 輸出體系를 花蘭, 이스라엘, 대만, 콜롬비아 등과 같이 수출창구의 일원화 즉 公營化하여 promotion 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④ 外國의 展示會 등 參與

우리나라의 花卉類 輸出可能國家들은 대부분 年中 품목별로 각종 전시회 또는 화수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화수회에는 생산업자, 관계상, 관련단체, 일반기호가 등이 대거 참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시회에 한국-제주지역에서도 출품, 선전함과 동시에 관련업자와의 상담·정보교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남아의 국제적인 것으로는 유일하게 아시아 난초 전시회(Asean Orchid Congress)가 2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13개국 2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동전시회는 76년 태국, 78년 인도네시아, 80년 말레시아, 82년 바술빈, 84년 싱가포르, 86년 브르나이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러한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여 한국산을 선전함은 물론 정보교환 등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 ⑤ 可能品目

自生植物과 노동집약적인 品目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겨냥할 때는 冬季 節花作目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에서 가능한 品目으로는 제주한란을 중심으로 한 난류 등 自生植物, 철쭉류, 백합, 수선, 프리지어, 글라디올러스, 카네이션, 튜울립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제주지역이라는 自然과 여기에 따른 技術開發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主體形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추진주체는 行政+企業(또는 農協)+정보전달자(해외사정 등의 조사)+生産團體가 참여하는 범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도는 백합재배의 최적지로 조사된 바 있지만(화란 왕실에서 운영하는 토양검사에서 분석결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조사와 함께 기술혁신-人材革新-市場開拓 등을 검토할만 하다.

#### (5) 產地共販場의 開設

제주지역의 小賣들은 서울 상인으로부터 30.2%, 부산 상인으로부터 24.2%, 마산 상인으로부터 0.6%를 구입하고 있으며 地域內 購入은 45.0%로 절반 이하가 되고 있어 제주지역내 소비촉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品目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道外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겠지만 대부분의 花卉類는 제주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하므로 地域內 消費를 目標로 하는 多品目 小量生産 體系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생산자의 협동에 의한 전시판매장 또는 공판장이 개설되어(제주시, 서귀포시) 소비촉진은 물론 하나의 flower center로서 정보교환, 기술교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화훼 축제와 品評會를 개최하여 기술혁신 등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6) 球根·種子 등 生産要素購入의 體系化

제주지역의 切花生産費(300坪當)는 全國平均 4,606千원인데 비하여 5,639千원으로서 22.4%가 더 높다. 높은 요인은 생산비목 중 種苗費가 2,961千원(52.5%)으로서 가장 높기 때문이며 이렇게 높은 요인은 또한 球根類들이 대부분 外國에서 수입되어 오는 관계로 種球값이 비싸고 時期의 선택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지역은 보다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種球를 합리적으로 구입하는 일은 球根類의 지속적인 발전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튤립의 경우 球當 150원일 때 坪當 30,000원으로 300坪當 9백만원의 種球代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주로 가을에 심어야 하는 튤립, 아이리스, 백합 등의 구근류는 일정 기간 저온처리한 후 식재해야 하기 때문에 저온처리 냉장고가 필요하는 등 追加費用을 불가피하게 한다.

또한 화란등지에서 수입되는 경우 8월에 적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배안의 컨테이너가 저온의 것이 아니면 수송과정에서 모두 고온장해를 받아 브라인드가 될 위험이 있다. 秋植 球의 브라인드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 화훼업계에서 농가와 종묘사간의 심각한 마찰관계를 조성하는 요인으로 1年이면 한두 건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구 매입때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지역에 特化하고 있는 球根類 生産은 種球 購入이 關鍵을 잡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구입은 대부분 種묘회사를 통하여 개별 구입(65%)을 하고 있다. 물론, 비료, 농약, 비닐온실 자재 등도 대부분(80~65%) 市場 個別 購入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種球 購入時期 7-9월에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은 농가당 500여 만원이 최소 소요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農家에 따라서는 外上購入이 불가피한데 이때 種묘회사는 서울 등의 委託商이 保證을 설 때 外上去來 해 주는 형식을 택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先貸資金을 받게 되고(외상보증 형식으로) 수확 출하시는 보증 선 委託商에 팔아야 하는 모순까지도 야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생산자 조직에 의한 대응(작목반 등의 형성 ↔ 농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低溫處理를 위한 共同의 냉장시설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產學協同體系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있어야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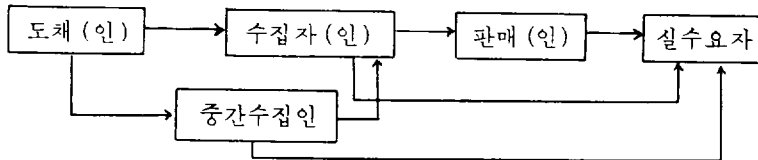
(7) 濟州寒蘭의 保全과 商品化

① 한라산 자생 한란의 保護 (=保存, protect, preservation)

한라산에 自生하고 있는 한란은 保護 즉 防禦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濟州民들이 保有하고 있는 한란을 상품화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防禦體系가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언제나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도채행위의 근절인데 그리 쉽지 않는 분야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保護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至上課題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현재의 한라산 자생한란의 流通經路는 이중석교수가 지적한 바 있듯이 다음(표80)과 같다. 이러한 組織은 點組織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복합적인 根絶策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도채자만 다스려 왔으나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집자-판매자-수요자까지를 system으로 추적하여 공개적으로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표 80 )



② 保有寒蘭의 保全 ( conservation )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란은 등록의무화를 통하여 總體的인 數量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등록된 한란에서 分化-生産되는 한란에 대해서는 적절한 상품화의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保全(conservation)이란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人工栽培를 통하여 갱신시켜 나갈뿐 아니라 한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욕망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간접적이면서도 적극적

인 보호의 방법론이 내포된다. 保全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公共的인 제주한란원(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한란에 대한 연구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한란원의 설치에 제주도의 郷土樹種 樹木園 造成과도 관련되며 관광체계와도 관계되는 多目的的이라 생각된다.

③ 일반적 명칭의 통일화

한라산 자생 한란과 기타 한란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1) (한라산) 自生蘭: 방어되어야 할 한란으로서 한라산 자연 그대로의 한란

2) (保有) 栽培蘭: 현재 道民들이 保有하고 있으면서 등록되어 있는 蘭으로 여기서 번식되는 난은 상품화가 가능한 한란

3) 導入蘭: 일본, 대만 등지에서 수입된 外國 蘭

4) (組織) 培養蘭: 人工的으로 조직 배양된 蘭

④ 商品化 方法

우선은 (組織) 培養蘭(容器附着製品)을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이나 (保有) 栽培蘭은 제주한란원이 조성됨은 물론 한라산 自生蘭에 대한 보호대책(예컨대 主要自生地의 철책화 등)이 확립될 때까지는 도외반출을 계속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제주한란 축제기간을 이용하여 출품 전시된 것을 경매형식으로 한정된 판매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이 가능할 때 등이다. 그러나 앞으로 상품화가 가능하더라도 그 流通型式은 일반 농산물과 같이 대량판매 형식이 아니라 제주지역내에서 실수요자(관광객으로서의 來訪者)에게 매년 적정수량을 제한하여 경매하는 형식 즉 한란 경매장을 본도에 개설하여 판매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물론 成長段階別도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제주한란 경매장을 개설할 단계에는 제주한란원과 관련하여 경매 system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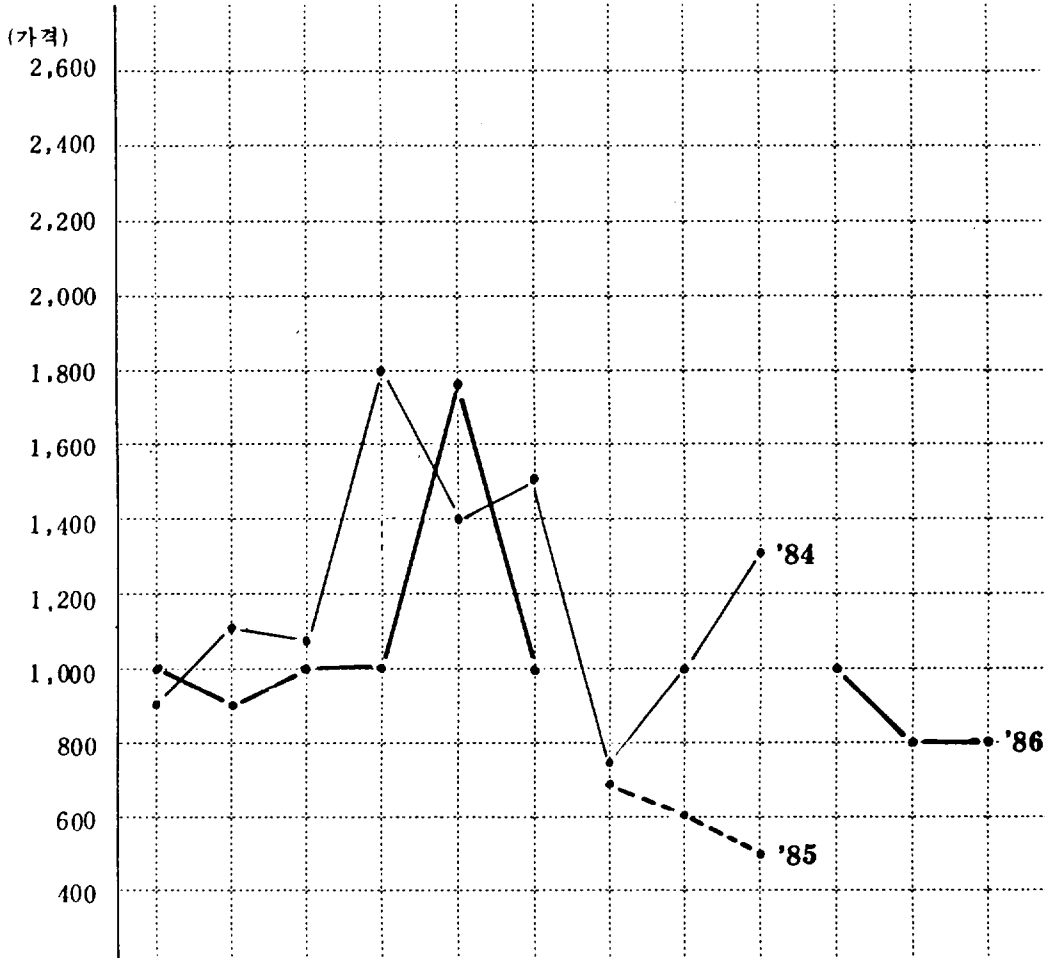
(8) 環境素材産業의 育成

제주지역은 여러가지 地域資源을 保有하고 있는데 그중 뛰어난 자원의 環境素材가 될 수 있는 郷土樹木, 自生植物(草本), 自生한란, 기후적 특성에서 산지형성이 진행되고 있는 화쇄류- 특히 구근류,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꽃꽂이 素材類(切枝·切葉 등), 盆花(양란등), 盆栽 石類 등 다양한 품목들이 自生 또는 保有하고 있어 이른바 이들을 環境(形成) 素材産業으로 일괄 표현하여 이들을 地域 特化 所得作目으로 育成하는 體系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環境素材類는 관광자원의 조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市場의 來訪”(관광객)에 대한 地域資源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강조된다. 단순한 觀光地의 제공이 아니라 앞으로는 市場의 來訪을 活用-所得化하는 方策이 촉구되어진다.

〈 부 록 1 〉 절화류 가격동향

(1) 프리지어 (노랑)

(단위 : 원 / 1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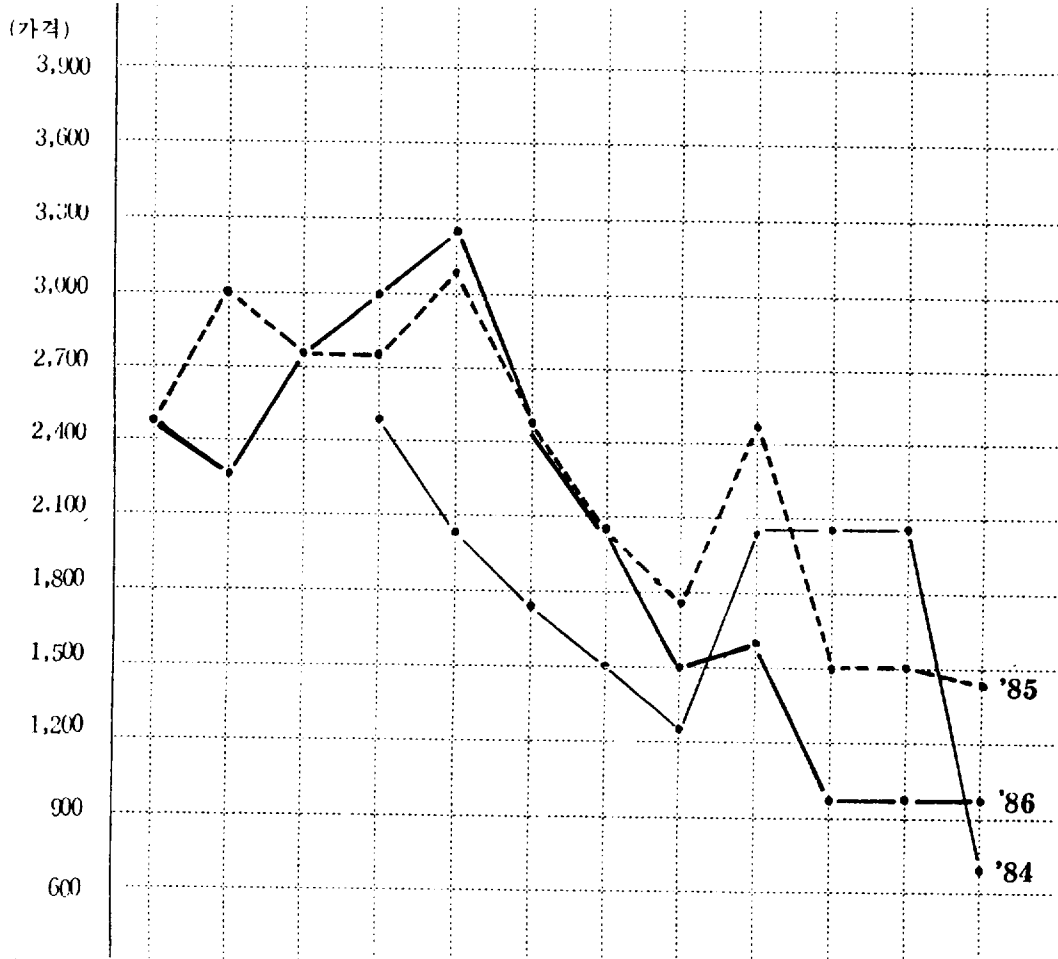


연도	월별 등급	1			2			3			4			평균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84		900	1,100	1,080	1,800	1,400	1,500	750	1,000	1,300				
'85								700	600	500				
'86		1,000	900	1,000	1,000	1,750	1,000				1,000	800	800	

출처 : 한국농축수산유통연구원

(2) 튜올립 (메리위로우)

(단위 : 원/10 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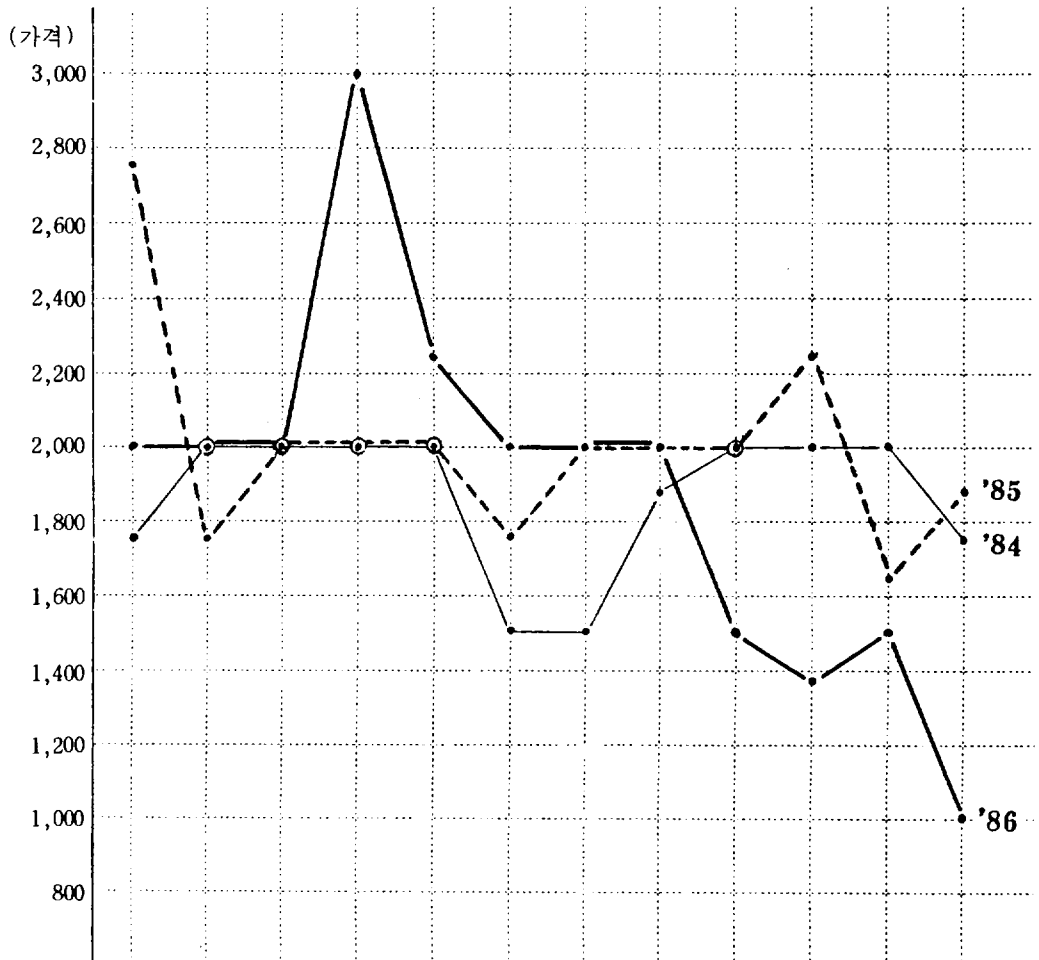
연도	월별 등급	1			2			3			4			평균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84					2,500	2,000	1,700	1,500	1,250	2,000	2,000	2,000	700	1,740
'85		2,500	3,000	2,750	2,750	3,130	2,500	2,000	1,750	2,500	1,500	1,500	1,400	2,270
'86		2,500	2,250	2,750	3,000	3,250	2,500	2,000	1,500	1,630	1,000	1,000	1,000	2,030

출처 : 상동



(3) 스톡크 (겹)

(단위: 원/1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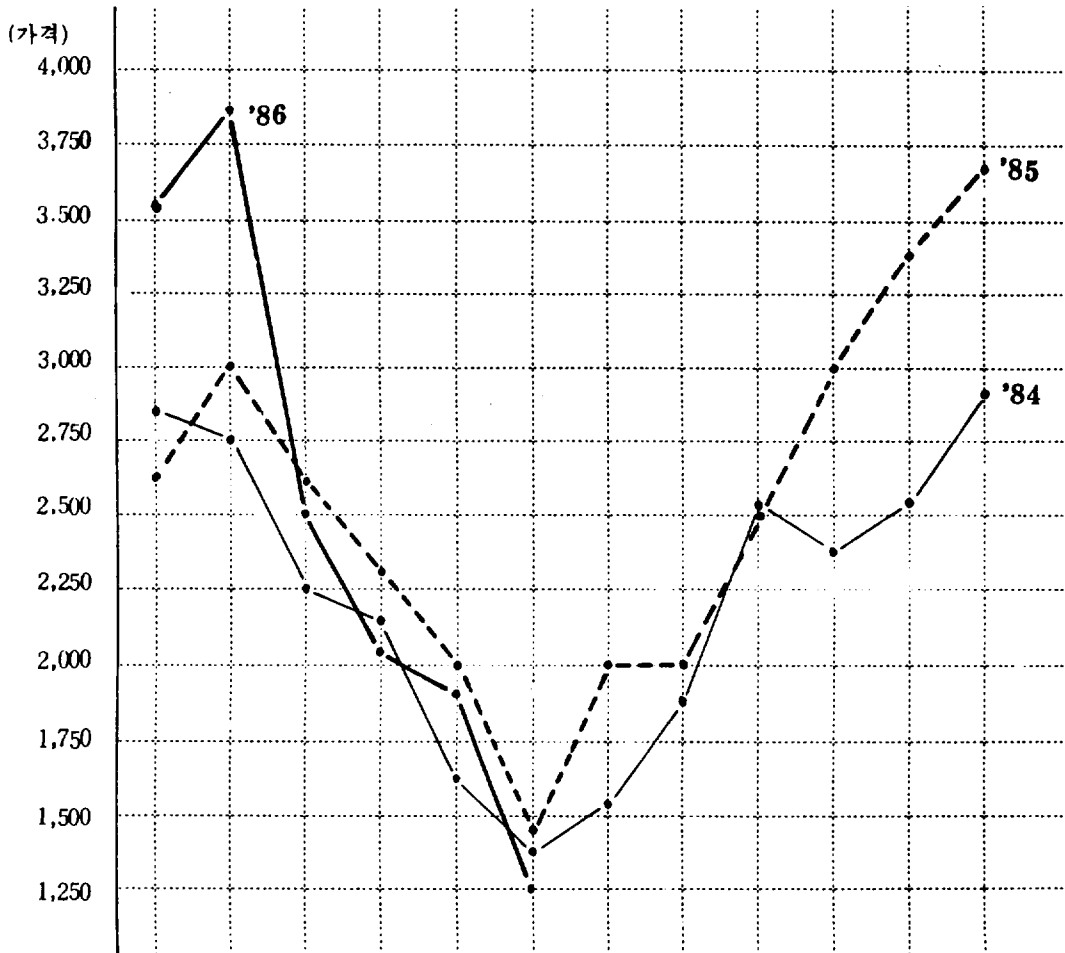


연도	등급	1			2			3			4			평균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84		1,750	2,000	2,000	2,000	2,000	1,500	1,500	1,880	2,000	2,000	2,000	1,750	1,870
'85		2,750	1,750	2,000	2,000	2,000	1,750	2,000	2,000	2,000	2,250	1,650	1,880	2,000
'86		2,000	2,000	2,000	3,000	2,250	2,000	2,000	2,000	1,500	1,380	1,500	1,000	1,890

출처: 상동

(4) 거 베 라

(단위 : 원/10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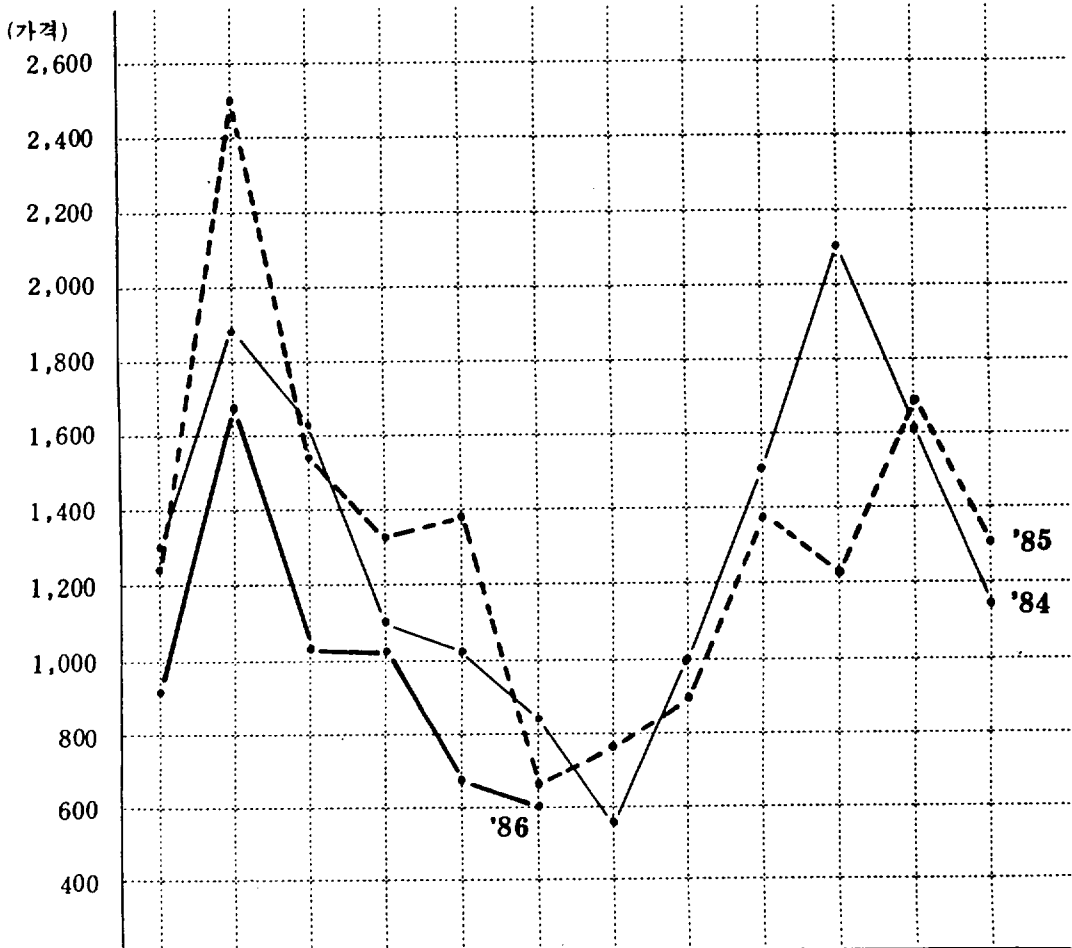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84	2,810	2,750	2,250	2,150	1,630	1,330	1,550	1,880	2,570	2,380	2,560	2,900	2,230
'85	2,670	3,000	2,630	2,300	2,000	1,440	2,000	2,000	2,500	3,000	3,380	3,650	2,550
'86	3,560	3,810	2,500	2,060	1,900	1,250							

출처 : 상동

(5) 안 개 초

(단위 : 원 / 1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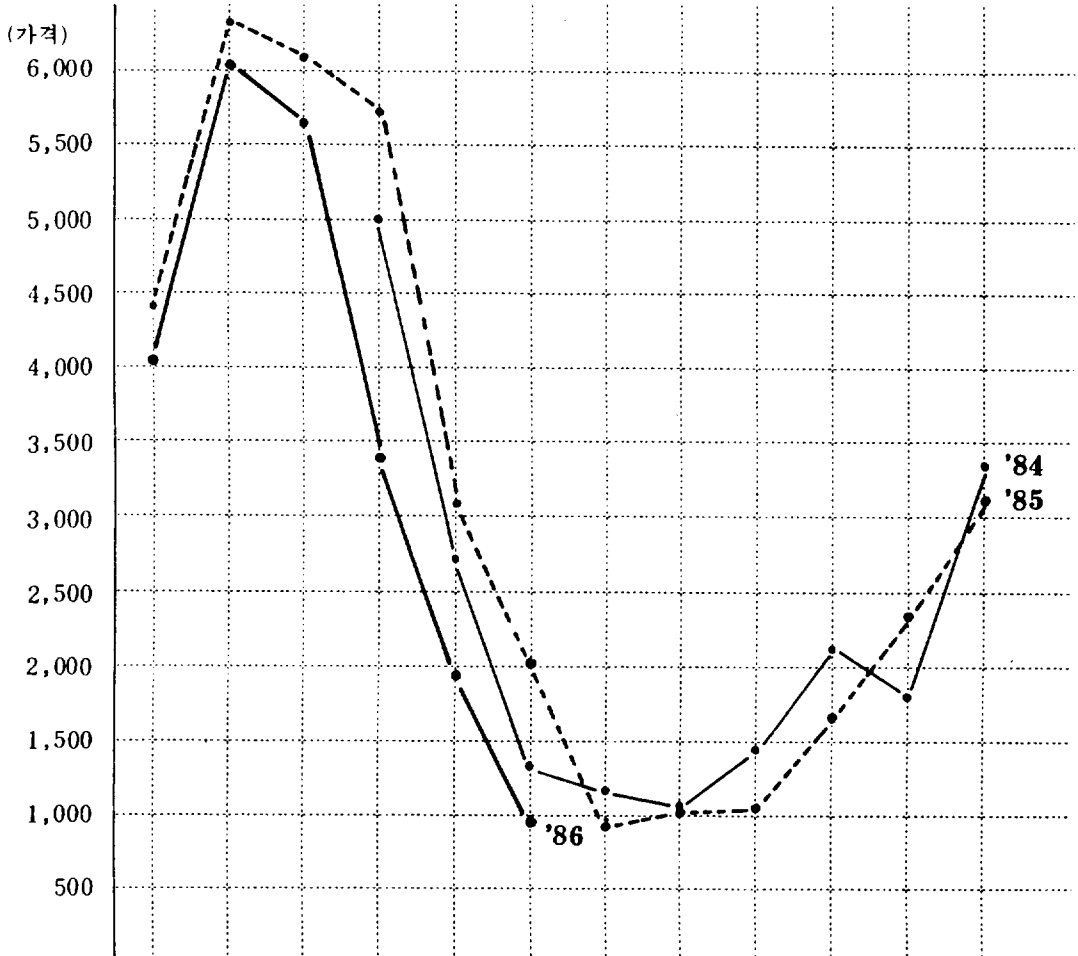


연도	월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84	1,300	1,880	1,630	1,100	1,050	850	550	1,000	1,500	2,100	1,620	1,140	1,310
'85	1,250	2,500	1,560	1,330	1,380	660	750	900	1,380	1,230	1,690	1,300	1,330
'86	930	1,690	1,050	1,030	670	600							

출처 : 상동

(6) 글라디올러스 ( 스피크 앤드 스팩 )

( 단위 : 원 / 10 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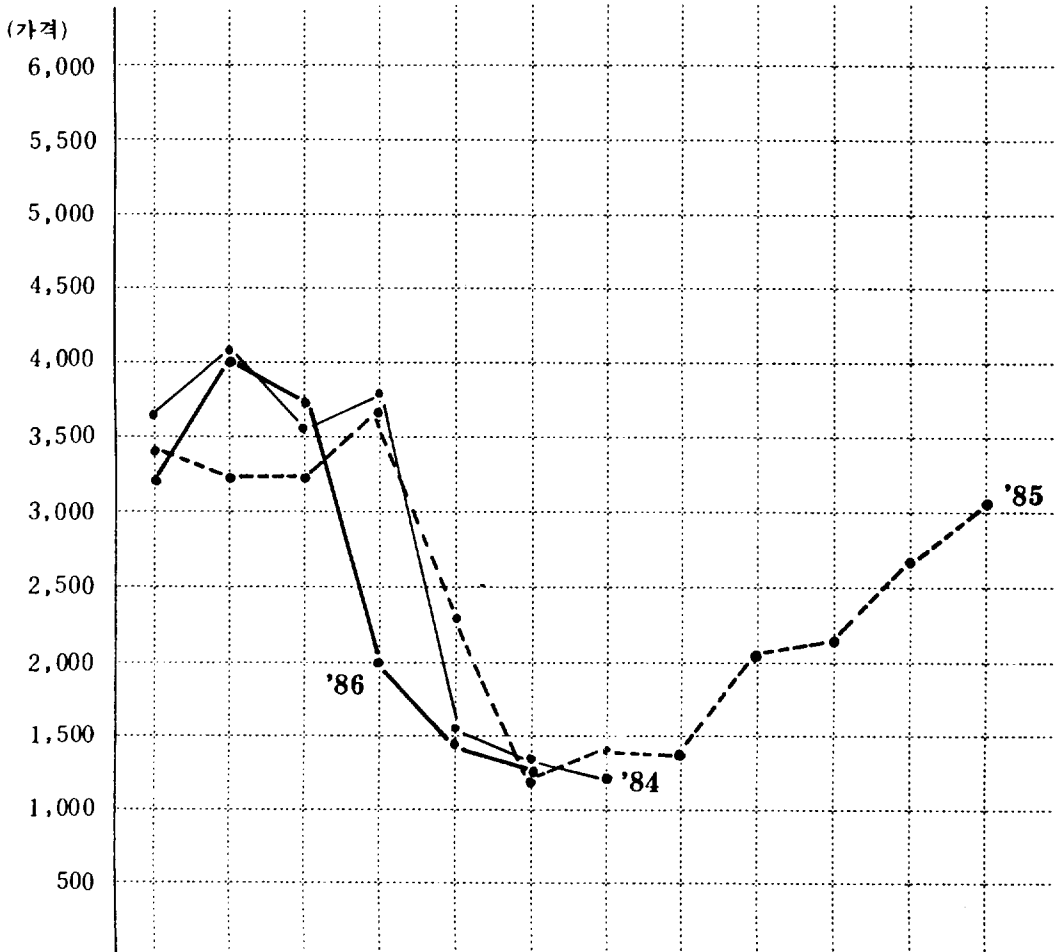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84				5,000	2,750	1,380	1,200	1,100	1,480	2,200	1,880	3,360	2,260
'85	4,420	6,300	6,130	5,750	3,130	2,010	900	1,050	1,080	1,710	2,380	3,150	3,170
'86	4,060	6,060	5,690	3,420	1,950	980							

출처 : 상동

(7) 백합 (조지아-외대)

(단위 : 원 / 1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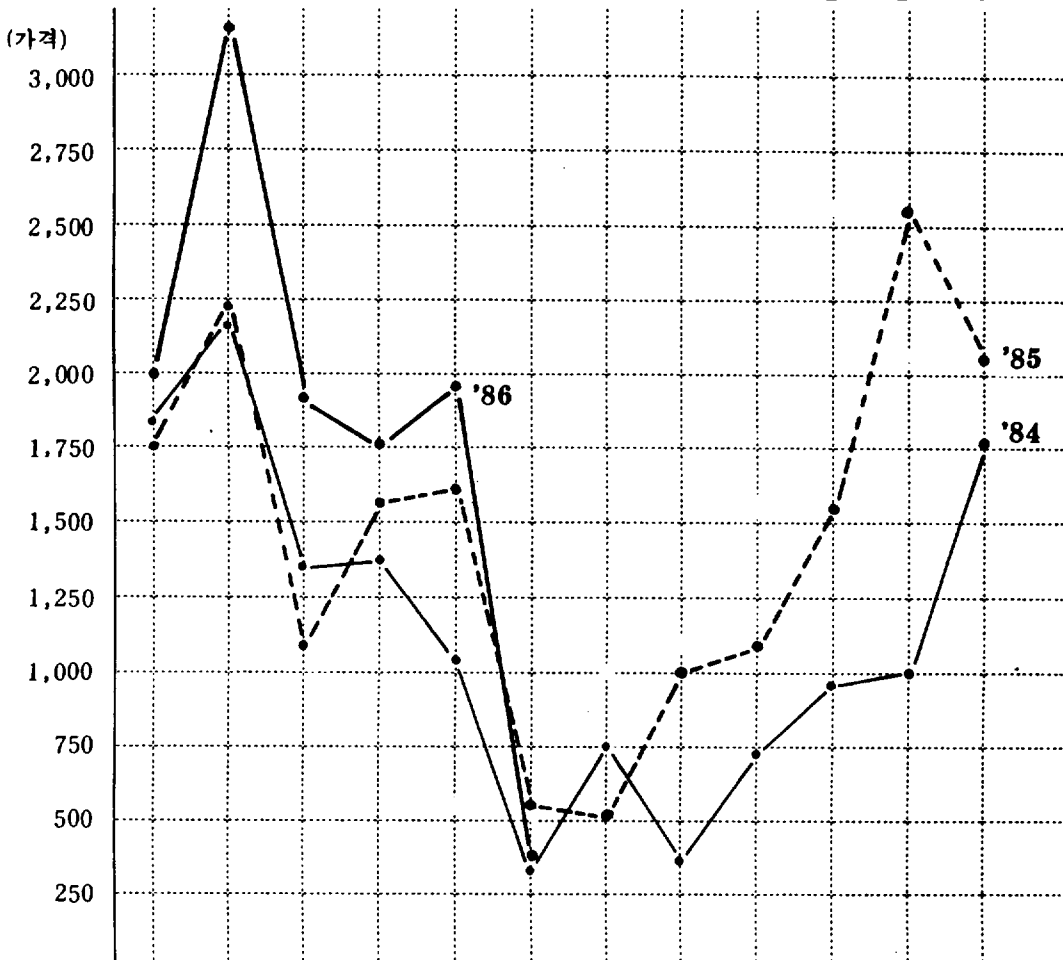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84	3,690	4,130	3,130	3,850	1,560	1,390	1,240						2,710
'85	3,400	3,250	3,250	3,700	2,310	1,190	1,400	1,380	2,060	2,130	2,700	3,050	2,490
'86	3,250	4,000	3,750	2,000	1,460	1,250							

출처 : 상동

(8) 카네이션 (스케니아)

(단위 : 원 / 20 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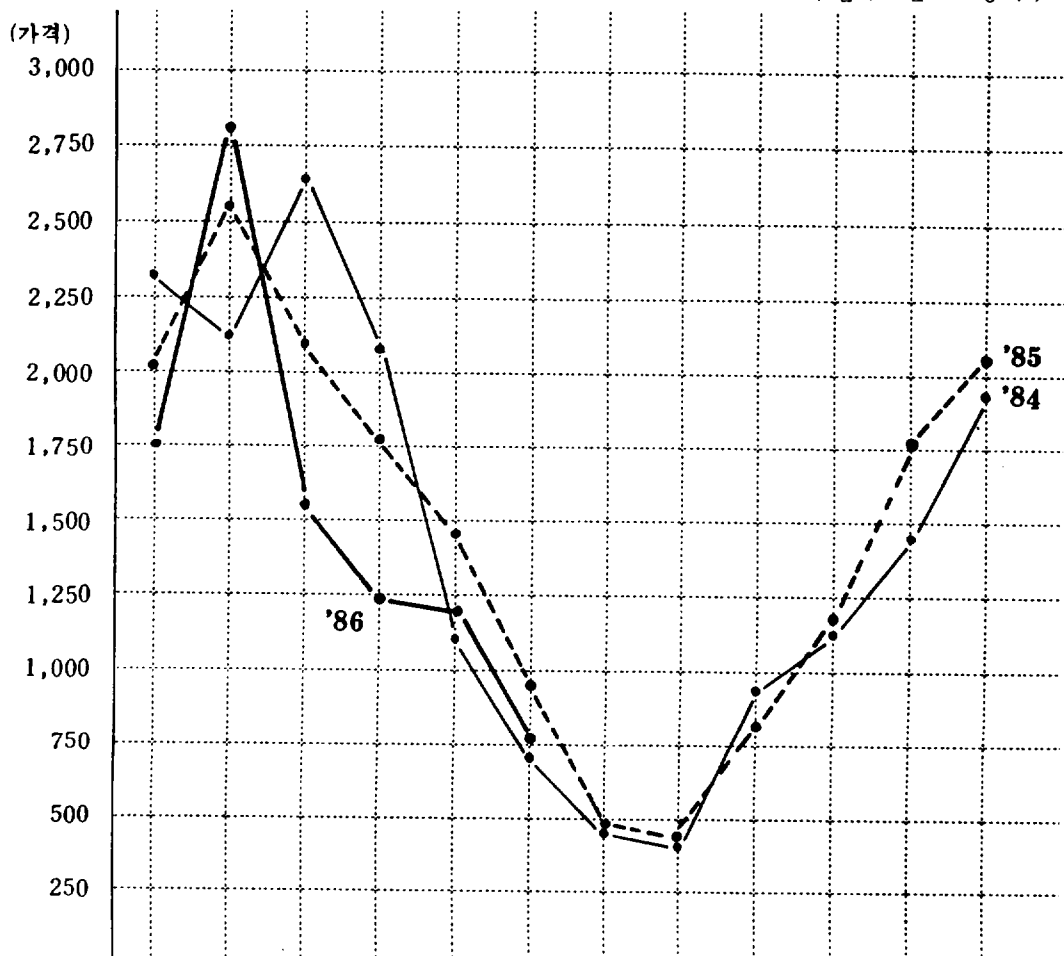


연도	월	월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84		1,880	2,180	1,340	1,380	1,040	330	750	360	740	960	1,000	1,780	1,150
'85		1,750	2,230	1,130	1,570	1,630	540	530	1,000	1,120	1,550	2,580	2,080	1,480
'86		2,000	3,190	1,900	1,760	1,950	370							

출처 : 상동

(9) 장미 (쏘니아)

(단위 : 원 / 10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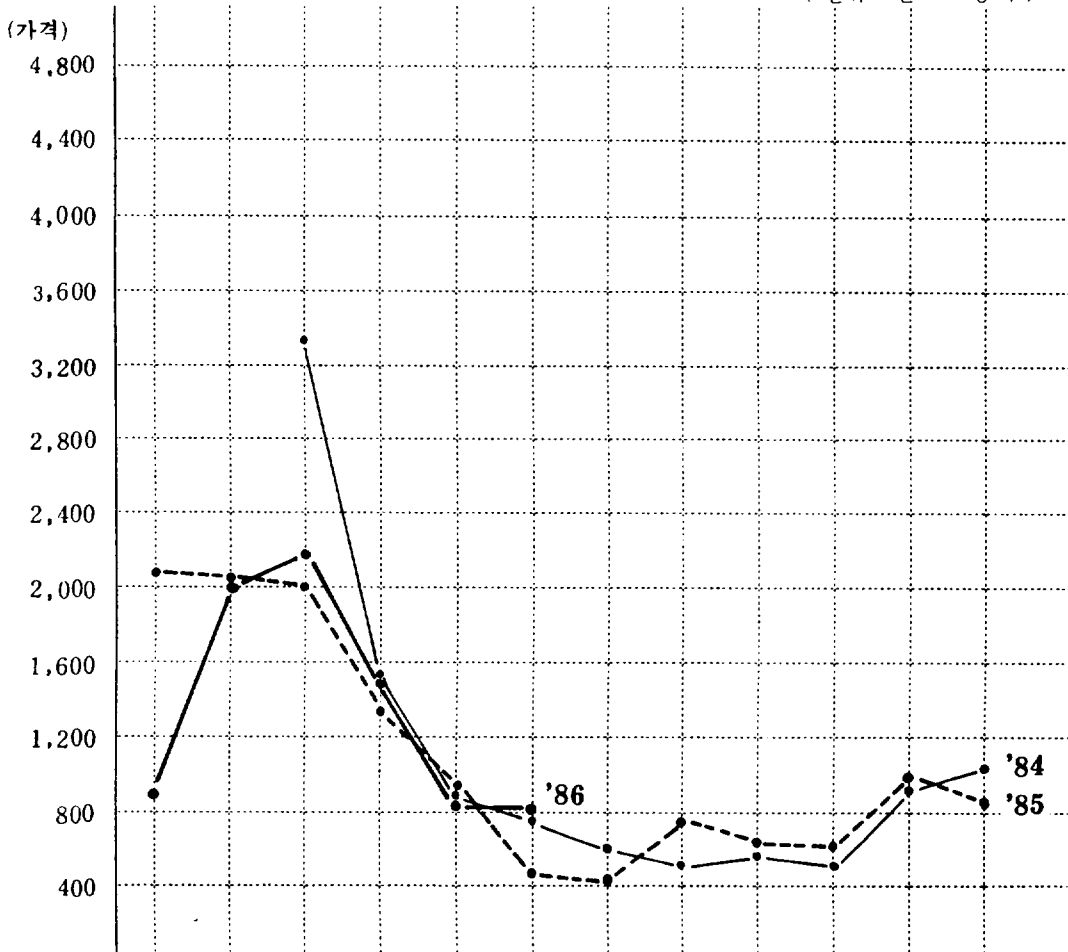


연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84		2,350	2,180	2,680	2,150	1,170	700	440	400	930	1,140	1,440	1,920	1,460
'85		2,030	2,570	2,140	1,780	1,430	950	490	450	840	1,200	1,780	2,080	1,480
'86		1,750	2,810	1,560	1,230	1,200	780							

출처 : 상동

(10) 국화 ( 초설 )

( 단위 : 원 / 20 송이 )



연도	월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84	-	-	3,330	900	780	660	500	600	500	500	980	1,090	1,090
'85	2,170	2,100	2,000	950	560	480	750	640	630	630	1,060	920	1,140
'86	900	2,000	1,250	880	830								

출처 : 상동



〈 부 록 2 〉 花卉市場現況 (全國)

시·도 소재	시 상 명	취급구분	규모(평)	상인수 (명)	주취급품목	거래방법	대표자	전 화	비 고 (소재지) (개설시기)
서울	남대문대도꽃시장	도·소매	1,000	90	절화·분화	위탁판매	김재화	777-1709	서울중구남창동 49 (1972)
	남문꽃시장	소매	380	50	"	직판·위탁	민경섭	(宅) 6-8065 (代) 28-5445	서울중구남창동 52-3 (1969)
	반포코베트1차꽃시장	도·소매	970	98	절 화	"	안대운	591-3927	강남구반포동 19-1 (1983.7)
	반포코베트1차꽃시장	소매	450	45	"	위탁	박금식	590-2775 532-8530	"
	반포코베트2차꽃시장	"	200	35	분 화	"	"	"	"
	반포한산시하꽃시장	"	500	35	절화·분화	"	홍호대	533-1112 591-9981	강남구반포 (1981)
	서초동 꽃마을	도·소매	30,000 (노면 2km)	400	분 화	직판·위탁	이만석	584-0441	강남구서초동
	천호동 공관장	"	600 (노면 0.5km)	25	"	"	이동천	483-8281	공관장
	동일로 꽃공관장	도매	450	50	분 화	직판	홍승규		공관장 (1984.3)
	노량진 꽃시장	소매	300	40	분화·절화	-	-	-	동작구노량진동 (1984)
	남대문대도옥상꽃시장	도·소매	200	40	분 화	직판·위탁	김재화	777-1709 753-7251	서울중구남창동 49 (1970)
	경동 꽃상가	소매	-	-	분화·절화	"	-	-	청라리경동시장
	오렌지 꽃시장	"	250	45	절화·분화	"	김윤희	676-6827	영등포구영등포시장

시·도 소재	시 장 명	취급구분	규모(평)	상인수 (명)	주최급품목	거래방법	대표자	전화	비 고(소재지) (개설시기)
부산	창신동 꽃시장	소 매	150	24	절화및소재	직판·위탁	유태성	22-6456	중구창신동 2가 26 (1975)
	부전동(서면) 꽃시장	도·소매	300	20	절화및분화	"	박경진	804-6006	(1984.6 閉鎖)
	범일동 지유꽃시장	"	350	42	절화·분화	"	제영호	65-3525	부산동구범일동 830-24 (1984.2)
	석대 花卉共販場	"	500	24	분화및소재	직 판	구치고	523-0208	(해운대)
	구서 花卉共販場	"	450	38	"	직판·위탁	김경배	56-2979	(남산동)
대구	대구꽃도매센터(지하)	"	160	10	절화·분화	직 판	추성호	45-3358	(칠성동 2가 302-97)
	대구꽃도매센터(1층)	"	180	34	분 화	직판·위탁	안병일	45-5853	(구. 뉴욕대도꽃시장)
	삼덕동 花卉市場	"	120	10	분화·절화	"	"	45-7313	(삼덕동 1가 149)
	남산동 꽃시장	"	150	20	분 화	"	김태조	23-6231	(남산 2동 698-1) (직매장)
충남 (대전)	중교 꽃시장	"	100	23	분화·관엽	직 판	김수현	26-5108	
	충청 꽃시장	"	70	6	분화·절화	"	"	253-6575	
	중부 꽃시장	도 매	70	9	절 화	위 탁	박대수	22-3461	(위탁수수료 15%)
경남	김해영남花卉組合	"	100	40	"	경 매	이점백	2-6430 (마산)	( " 5%)
	창원(마산) 花卉共販場	"	70	50	"	"	성무경	92-7389	( " 1.7%)

資料: 1) 84.4.20 現在 農水産部資料.  
2) 84.9.20 現在 現地調査後 修正.

〈 부 록 3 〉 產地 直·共販場 現況 (1984.9月 現在)

區分	地域	直 (共) 販場	開設 年數	面積 (坪)		取扱品目	會員數	所 在 地	備考
				空地	建物				
直	서울	통일로 꽃장	1984. 3	900	360	盆花, 草花	80	서울. 은평구진관동	
		千戶花卉販賣場	1979. 4	550	550	盆 花	48	서울. 강동구상일동	
		南部農協共同販賣場	1979. 1	100	100	盆 花	12	서울. 강남구서초동	
賣	京畿	신도農協花卉販賣場	1984. 3	420	140	盆 花	63	경기. 고양군신도읍	
場	釜山	석대 꽃공관장	1980	1,500	1,000	盆 花	30	부산. 해운대구석대동	
		구서花卉販賣場	1980.12	728	550	盆 花	46	부산. 동대구구서동	
	大邱	大邱花卉直賣場	1980	150	150	盆 花	17	대구. 중구남산동	
共 販 場	서울	嶺南花卉切花集荷場	1984. 1	-	25	切 花	(12)	서울. 강남구반포동	(閉鎖)
		서울장미화공관장	1984. 5	-	50	장 미	(12)	서울. 강남구방배동	( " )
	金海	嶺南花卉共販場	1982. 9	200	100	切 花	(23)	경남. 김해시불암동	
場	馬山	馬山切花共販場	1980.11	100	50	切 花	150	경남. 마산시	

資料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부 록 4 〉 切花의 出荷規格例(日本)

(1) 花

評價對象	評價事項	等級 ( 品質 ) 基準		
		秀	優	良
꽃의 色	色彩, 鮮度, 異常, 品種의 特性	品種本來의 色狀, 鮮도가 極히 良好하고, 異常이 없을 것.	品種本來의 色狀, 鮮도가 良好할 것	普通이며, 優에 다음가는 것일 것
花 瓣	花瓣數形姿	花瓣, 形姿가 아주 잘 定立되어 있을 것	花瓣, 形姿가 良好할 것	花瓣, 形姿가 普通일 것
꽃의 病 蟲害	病害 · 蟲害	病蟲害가 없을 것	病蟲害가 거의 없을 것	病蟲害의 被害가 若干 認定되는 것을 包含한다.
採 花	採 花 期	採花時期가 適期일 것	採花時期가 適期일 것	採花時期가 適期일 것
其 他 ( 損傷等 )	햇빛에 탐, 藥害, 農藥 汚染	햇빛에 타거나 藥害, 農藥 汚染이 없을 것	햇빛에 타거나 藥害, 農藥 汚染이 거의 없을 것	優 다음에 가는 것일 것

(2) 莖 葉

評價對象	評價事項	等級 ( 品質 ) 基準		
		秀	優	良
莖葉의 色	色彩, 光澤, 鮮度	品種本來의 色狀, 鮮도가 極히 良好하고 異想이 없을 것	品質本來의 色狀, 鮮도가 良好할 것	普通이며, 優에 다음가는 것일 것
莖葉의 形質	大小, 굵기, 구부러짐, 堅弱性, 形姿, 異常	莖葉의 形質이 아주 잘 均整이 잡혀있을 것	莖葉의 形質이 均整이 잡혀있을 것	普通일 것

評價對象	評價事項	等級 (品質) 基準		
		秀	優	良
莖葉의 病蟲害	病害, 蟲害	病蟲害가 없을 것	病蟲害가 거의 없을 것	病蟲害의被害가若干 認定되는 것일 것
其他 (損傷等)	햇빛에 탐, 藥害, 農藥汚染, 얼룩짐, 부러짐	햇빛에 타거나 藥害, 農藥汚染, 얼룩짐이 없을 것, 부러진 것이 없을 것	햇빛에 타거나 藥害, 農藥汚染, 얼룩짐이 거의 없을 것. 부러진 것이 없을 것	햇빛에 타거나 藥害, 農藥汚染, 얼룩짐이若干 있는 것일 것. 부러진 것이 없을 것

(3) 總 合

評價對象	評價事項	等級 (品質) 基準		
		秀	優	良
花·葉·莖	全體의 調和	均衡이 잘 잡혀있고 調和를 잘 이루고 있을 것	秀에 이어서 均衡이 잘 잡혀있고 調和를 이루고 있을 것	優에 이어서 調和를 이루고 있을 것

(4) 出荷規格

區分 單位 品目	階級(草丈)의 選別基準				1箱子當株數	1束當株數	段보-우箱子의 크기			等級(品質) 評價事項의 追加(要檢討事項)
	2 L	L	M	S			길이	넓이	깊이	
	cm以上	cm未滿 ~cm	cm未滿 ~cm	cm未滿			cm (擇一)	cm	cm (擇一)	
菊花	85	85~75	75~65	65	100,150 200,300	10, 20	100 80,90,100	30	20 16~30	花首長, 1株의 무게, 小菊등은 輪數
카네이션	85~65	65~50	50~35	35	100,200 300,400	20, 50 非結束	90 90,95	30	20 12~30	
장미	85~70	70~60	60~50	50~40 (2 S는 40未滿)	50,100,200	10,20,50	90 65,80,90	30	18 10~30	
宿根안개草	80	80~70	70~60	60	50,100 150,200	10,20	100 80,90,100	30	20 20,22,24	보름, 1株의 무게
百合	90	90~70	70~50	50	100,200	10(덧보의 2輪以上은 5株)	110 75,95,110	30	24 20,22,24	"
튜울립	50	50~40	40~30	30	100,200	10	65	30	22 18,20,22	葉의 枚數, 1株의 무게

區分 單位 品目	階級(草丈)의 選別基準				1箱子當株數	1束當株數	段보-루箱子의 크기			等級(品質) 評價事項의 追加(要檢 討事項)
	2 L	L	M	S			길이	넓이	깊이	
	cm 以上	cm 未滿 ~cm	cm 未滿 ~cm	cm 未滿			株(擇一)	株 (擇一)	cm (擇一)	
후리-자	65	65~50	50~35	35	200,300 400,500	10,20,50	85 75,85	30	16 14,16,18	보름, 1株의 무게, 葉의枚數
글라디 올러스	100	100~85	85~70	70	100,150,200	10	120 90,105,120	30	20 16,18,20	上 同
아이리스	70	70~60	60~50	50	100,200	10	85 67,75,85	30	16 14,16,18	葉의枚數, 1株의 무게
스토크	80	80~65	65~50	50	100,150 200,300	10	100 70,85,100	30	20 16~30	花穗長, 1株의 무게, 겹꽃與否
용두草	80	80~70	70~60	60	100,150 200,300	10,20	100 75,85,100	30	18 16,18,20	花段數, 1株의 무게, 頂花의 고름새
작약	80	80~70	70~60	60	100,150,200	10	100 75,85,100	30	24 20,22,24	1株의 무게
水仙	50	50~40	40~30	30	100,200,300	10	65 65,80,100	30	16 14,16,18	葉의枚數, 1株의 무게

- ※ 1. 段보-루箱子의 크기欄 中에서 □ 內 數值가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크기이다.
2. 等級(品質) 評價事項의 追加欄 中 보름은 花曹(꽃망울) 數를 말한다. 同欄 記載 內容은 各縣 또는 產地別로 檢討해 주기를 바란다.

〈 부록5 〉 品目名, 年次別, 月別 都賣價格 動向(日本)

(1) 全國(78市場平均)

(單位: 円/株)

品目	年	1月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菊	80	66.5	65.9	61.8	64.2	35.4	43.2	25.1	40.1	48.1	53.8	46.5	76.5	51.1
	81	60.2	58.0	73.7	59.0	41.4	31.1	50.7	54.1	27.4	21.5	28.1	52.9	44.2
	82	51.5	58.8	60.3	47.1	44.9	36.5	22.9	91.9	66.6	38.6	27.7	44.4	48.0
	83	54	69	96	69	44	21	33	68	58	39	44	47	51
	84	54	61	69	63	50	43	41	30	34	33	35	53	45
카네이션	80	47.2	44.9	49.7	24.2	27.9	28.7	24.6	34.9	42.4	47.0	48.6	59.1	38.3
	81	38.6	35.1	45.7	32.1	31.8	31.7	22.6	33.4	39.7	29.6	39.1	45.5	35.5
	82	24.4	35.9	40.8	25.0	36.1	31.2	30.1	28.4	38.0	37.6	30.3	45.1	33.8
	83	43	47	62	31	35	33	28	25	42	46	43	50	40
	84	38	50	56	27	36	24	27	31	48	40	32	43	37
장미	80	91.8	85.7	92.4	58.4	37.4	29.1	32.0	35.0	42.4	48.4	67.6	95.0	53.8
	81	77.8	92.8	92.3	66.4	41.0	31.0	30.7	28.0	36.1	43.7	68.6	90.4	52.9
	82	80.7	86.3	97.8	59.3	38.4	31.4	36.5	36.5	46.4	53.2	67.0	92.2	55.9
	83	90	90	99	63	39	30	34	33	38	55	68	86	55
	84	77	90	96	61	39	31	36	31	45	46	62	87	54
鐵砲百合	80	169.8	135.2	123.4	97.2	57.6	57.0	35.1	66.7	94.7	130.5	126.3	160.1	91.6
	81	102.3	114.4	132.5	107.5	67.8	58.1	42.2	57.0	83.7	102.3	138.1	134.7	85.0
	82	113.1	114.9	112.8	95.7	63.3	57.7	44.2	85.0	106.2	117.5	112.7	135.7	91.3
	83	173	151	151	102	67	61	44	60	89	108	133	152	93
	84	160	162	127	82	69	62	41	53	104	129	114	127	86
튜올립	80	79.5	65.1	45.8	25.4	18.4	-	-	-	-	-	65.1	93.1	58.7
	81	66.9	48.1	46.5	32.2	17.7	8.0	-	-	-	-	74.8	80.1	52.6
	82	52.4	47.5	41.3	34.6	18.7	-	-	-	-	-	62.0	65.6	49.2
	83	73	67	59	34	21	43	40	-	133	64	72	69	63
	84	63	59	53	29	20	-	52	-	-	106	61	74	56

(2) 東京 (18 市場平均)

品 目	年	1月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菊	80	63.7	58.9	59.0	56.8	32.3	40.0	25.6	38.5	44.5	52.1	43.4	78.7	48.2
	81	60.8	57.2	69.0	53.4	38.1	30.3	48.1	54.5	28.3	21.9	30.8	52.5	42.8
	82	49.5	49.1	59.5	43.1	41.7	41.5	28.2	89.5	72.2	45.7	29.3	43.0	48.1
	83	55	71	99	71	44	20	38	66	57	41	47	49	52
	84	58	60	70	54	53	47	40	32	36	36	38	55	46
카네이션	80	45.1	48.8	58.6	26.7	27.7	25.9	23.1	34.1	38.0	38.9	43.3	54.0	37.3
	81	36.5	37.8	48.0	34.7	38.4	34.8	18.7	31.8	38.7	31.3	40.3	49.7	36.7
	82	26.9	39.2	48.0	26.5	38.5	29.1	29.9	27.6	41.0	47.3	40.2	43.4	36.7
	83	54	49	69	36	36	37	31	25	51	59	50	53	44
	84	43	53	60	31	40	26	27	33	51	48	38	47	41
장미	80	76.2	74.9	78.7	55.3	31.2	23.5	27.9	36.2	36.0	45.6	58.6	85.1	49.6
	81	68.5	79.8	81.5	63.4	39.6	31.1	29.0	28.3	38.2	44.9	63.4	84.0	52.1
	82	71.6	77.7	88.6	60.0	33.3	29.4	33.3	34.4	46.2	54.6	63.7	84.0	54.1
	83	93	92	101	63	38	31	37	36	41	61	73	89	59
	84	77	93	99	66	42	33	39	34	47	51	71	93	58

〈 부록 6 〉 主要輸入切花의 月別 輸入比率(日本)

(單位: %)

品 種	年度	1月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輸入量 (千株)	
洋 蘭	82	5.3	5.9	2.7	8.2	2.7	3.3	7.3	11.3	17.2	14.0	12.3	9.8	100	44,160	
	83	6.7	7.5	9.0	3.9	3.0	3.1	5.6	10.1	17.1	18.4	6.1	9.5	100	40,493	
	84	6.2	6.3	5.0	4.4	3.6	4.0	7.5	9.6	16.2	16.1	11.1	10.0	100	49,124	
	計	18.2	19.7	16.7	16.5	9.3	10.4	20.4	31.0	50.5	48.5	29.5	29.3	300	133,777	
	平均	6.1	6.6	5.6	5.5	3.1	3.5	6.8	10.3	16.8	16.2	9.8	9.7	100	44,594	
菊 花	82	11.0	36.6	22.7	22.0							0.1	7.6	100	20,618	
	83	9.0	19.3	46.0	2.2				0.2	1.9	0.1	1.1	20.2	100	23,265	
	84	16.0	20.3	51.0	3.9	0.2					0.2	0.2		8.2	100	23,264
	計	36.0	76.2	119.7	28.1	0.2				0.2	2.1	0.3	1.2	36.0	300	67,147
	平均	12.0	25.4	39.9	9.4	0.1				0.0	0.7	0.1	0.4	12.0	100	22,382



(單位: %)

品 種	年度	1月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輸入量 (千株)	
안 스 립	82	4.6	1.9	3.1	5.7	7.0	9.9	12.9	13.1	11.9	10.3	11.1	8.5	100	4,902	
	83	3.6	0.9	1.7	3.0	5.1	8.3	14.0	14.3	13.2	13.0	12.6	10.3	100	4,989	
	84	4.2	1.4	3.4	7.6	9.0	10.4	14.4	14.5	12.1	11.1	6.7	5.2	100	4,944	
	計	12.4	4.2	8.2	16.3	21.1	28.6	41.3	41.9	37.2	34.4	30.4	24.0	300	14,835	
	平均	4.1	1.4	2.7	5.5	7.0	9.5	13.8	14.0	12.4	11.5	10.1	8.0	100	4,945	
羊 齒 類 (시 다)	82	3.7	7.3	0.5	30.0	10.5	5.1	2.2	1.3	5.5	11.9	14.6	7.4	100	3,532	
	83	6.0	12.3	12.9	13.4	2.0	2.1	1.6	3.8	7.5	13.6	16.0	8.8	100	7,479	
	84	7.0	5.8	7.0	14.6	17.2	2.6	2.5	3.3	2.2	15.2	12.1	10.5	100	12,001	
	計	16.7	25.4	20.4	58.0	29.7	9.8	6.3	8.4	15.2	40.7	42.7	26.7	300	23,012	
	平均	5.6	8.5	6.8	19.3	9.9	3.3	2.1	2.8	5.0	13.6	14.2	8.9	100	7,671	
카 네 이 셴	82	9.0	3.3	0.6	15.2	4.6	4.1	3.0	2.3	9.6	17.7	21.2	9.4	100	1,270	
	83	5.5	4.7	10.1	4.9	4.6	6.8	2.5	6.4	9.9	23.1	15.8	5.7	100	2,189	
	84	4.7	14.7	23.5	5.2	12.4	2.5	1.9	2.7	5.6	11.3	9.3	6.2	100	2,904	
	計	19.2	22.7	34.2	25.3	21.6	13.4	7.4	11.4	25.1	52.1	46.3	21.3	300	6,363	
	平均	6.4	7.6	11.4	8.4	7.2	4.5	2.5	3.8	8.4	17.3	15.4	7.1	100	2,121	
도 라 세 나	82	1.4	2.6	3.3	3.7	4.2	12.2	31.3	10.1	1.8	16.1	9.6	3.7	100	181	
	83	4.9	4.9	3.3	14.2	5.4	11.8	7.9	16.7	7.4	9.1	5.4	9.0	100	136	
	84	12.7	14.4	2.3	8.1	2.5	4.0	7.9	8.7	15.6	14.8	3.4	5.6	100	113	
	計	19.0	21.9	8.9	26.0	12.1	28.0	47.1	35.5	24.8	40.0	18.4	18.3	300	430	
	平均	6.3	7.3	3.0	8.7	4.1	9.3	15.7	11.8	8.3	13.3	6.1	6.1	100	143	
글라디올러스	82	85.7	0.5	12.6	0.4	0.5			0.2				0.1	100	57	
	83														(5)	
	84		28.4	51.4					0.8		4.4	0.1	14.9	100	446	
	計	85.7	28.9	64.0	0.4	0.5			0.8	0.2	4.4	0.1	15.0	200	503	
	平均(2 年平均)	42.9	14.4	32.0	0.2	0.3			0.4	0.1	2.2	0.0	7.5	100	252	
창 미	82	7.6	3.7	0.8	34.6	0.6	0.6	0.9	0.9	0.9	1.0	6.0	42.4	100	404	
	83	43.3	0.5	8.1	2.5	1.9	1.5	1.2	0.9	1.2	11.8	7.3	19.8	100	63	
	84	2.4	2.6	31.7	21.4	4.7	2.1	5.1	2.5	5.3	8.0	5.3	8.9	100	174	
	計	53.3	6.8	40.6	58.5	7.2	4.2	7.2	4.3	7.4	20.8	18.6	71.1	300	641	
	平均	17.8	2.3	13.5	19.5	2.4	1.4	2.4	1.4	2.5	6.9	6.2	23.7	100	214	
大 谷 渡	82				12.7	50.9					12.0	24.4		100	315	
	83				14.5	31.3	14.0				19.2	10.6	8.9	1.5	100	582
	84	5.5			5.8	1.6	13.9				11.0	36.7	13.2	12.3	100	436
	計	5.5			33.0	83.8	27.9				30.2	59.3	46.5	13.8	300	1,333
	平均	1.8			11.0	27.9	9.3				10.1	19.8	15.5	4.6	100	444